



2022.3.

국회에산정책처 | 경제·산업동향&이슈 | 제27호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NABO

Economic · Industrial Trends & Issues

CONTENTS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경제 동향

2021년 4/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 작성의 보안방안 연구

경제·산업이슈 |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개선효과 실증분석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2년 3월호 통권 제27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3
I. 경제동향	6
II. 산업·고용동향	32
III. 해외경제 동향	80
경제·산업현안	99
I.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100
II.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경제 동향	105
III. 2021년 4/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113
IV.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 작성의 보안방안 연구: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통계를 중심으로	121
경제·산업이슈	129
I.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개선효과 실증분석: OECD국가를 중심으로	13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경제·산업동향

I. 경제동향	6
1. 생산	6
2. 소비	8
3. 투자	10
4. 대외거래	14
5. 소비자물가	17
6. 금융시장	21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27
II. 산업·고용동향	32
1. 제조업	32
2. 서비스업	48
3. 에너지 및 원자재	55
4. 고용	66
5. 인구	72
6. 부동산	76
III. 해외경제 동향	80
1. 미국	80
2. 중국	83
3. 유로지역	86
4. 일본	88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	93
[주요 경제정책 동향]	96

주요 거시·산업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3Q	4Q	연간	2Q	3Q	4Q	12월	1월	2월
전산업생산	-1.1	-0.7 (2.9)	-1.3 (1.3)	4.9	7.3 (0.6)	3.9 (0.9)	5.8 (1.5)	6.8 (1.3)	4.3 (-0.3)	
광공업생산	-0.3	0.4 (5.7)	0.2 (2.6)	7.4	13.1 (-0.6)	5.8 (1.0)	6.5 (1.2)	7.4 (3.7)	4.3 (0.2)	
서비스업생산	-2.0	-1.7 (2.2)	-2.0 (0.9)	4.4	5.7 (1.7)	3.9 (1.1)	5.5 (1.5)	5.8 (-0.4)	4.8 (-0.3)	
소매판매액	-0.2	1.5 (-0.4)	-1.0 (1.1)	5.9	5.0 (2.2)	5.6 (0.8)	6.4 (1.1)	6.8 (2.2)	4.5 (-1.9)	
설비투자지수	5.9	7.7 (2.9)	3.0 (1.4)	9.6	13.2 (0.7)	6.2 (-0.8)	6.3 (-0.2)	6.6 (2.2)	0.6 (2.5)	
건설기성액	-2.1	-2.2 (-2.5)	-3.2 (1.3)	-6.7	-7.2 (-1.9)	-8.1 (-1.1)	-2.9 (4.1)	0.5 (6.0)	6.8 (0.5)	
수출(통관)	-5.5	-3.5	4.1	25.8	42.1	26.5	24.6	18.3	15.2	20.6
수입(통관)	-7.1	-8.7	-1.7	31.5	37.6	37.5	39.5	37.0	35.3	25.2
경상수지 (억달러)	759.0	244.9	337.4	883.0	194.2	256.5	208.9	60.6	18.1	
실업률	4.0	3.6	3.7	3.7	3.9	2.8	2.9	3.5	4.1	
취업자수 (천명)	-218	-314	-441	369	618	577	660	773	1135	
소비자물가	0.5	0.7	0.5	2.5	2.5	2.5	3.5	3.7	3.6	3.7
원/달러환율	1,180	1,189	1,118	1,144	1,121	1,157	1,183	1,184	1,194	1,198
국고채금리 (3년)	0.99	0.85	0.95	1.39	1.19	1.45	1.87	1.80	2.06	2.29

주: 1. ()는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동향

경제분석국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

■ 수출은 일평균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

- 수출(전년동월대비, %): ('21.12월)18.3 → ('22.1월)15.2 → (2월)20.6
- 일평균수출액(억달러): ('21.12월)24.8 → ('22.1월)25.2 → (2월)27.0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3개월 연속 증가, 건설기성액은 2개월 연속 증가

- 설비투자(전월대비, %): ('21.11월)3.9 → (12월)2.2 → ('22.1월)2.5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1.11월)-1.1 → (12월)6.0 → ('22.1월)0.5

■ 다만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감소하였으며, 소비심리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 등으로 위축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1.11월)1.2 → (12월)1.3 → ('22.1월)-0.3
- 소매판매(전월대비, %): ('21.11월)-0.7 → (12월)2.2 → ('22.1월)-1.9
- 소비자심리지수: ('21.12월)103.8 → ('22.1월)104.4 → (2월)103.1

■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유 및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은 확대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물가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보다 상승

■ 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1.12월)3.7 → ('22.1월)3.6 → (2월)3.7
- 공업제품(전년동월대비, %): ('21.12월)4.7 → ('22.1월)4.2 → (2월)5.2
- 개인서비스(전년동월대비, %): ('21.12월)3.4 → ('22.1월)3.9 → (2월)4.3

2월 중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지속

■ 국고채금리는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에 따른 통화긴축 강화 기대 등으로 상승

- 국고채금리(3년 만기, %): ('21.12월)1.80 → ('22.1월)2.06 → (2월)2.29

■ 원/달러 환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 달러화 수요가 증대하며 상승

- 원/달러 환율(원): ('21.12월)1,184 → ('22.1월)1,194 → (2월)1,198

■ KOSPI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등으로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 KOSPI지수: ('21.12월)2,978 → ('22.1월)2,663 → (2월)2,699

I.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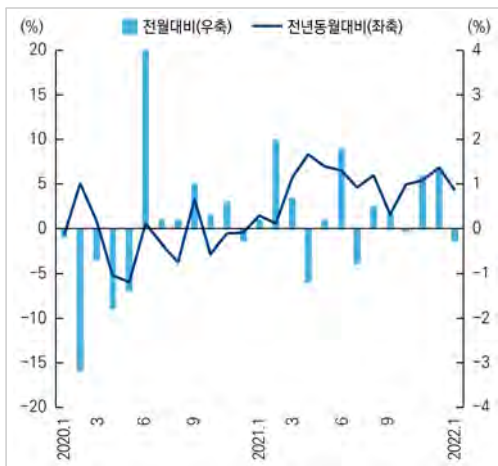
1. 생산

1월 중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에 이어 부진하고 광공업과 건설업의 증가폭이 둔화되며 감소 전환

■ 전산업생산(-0.3%)은 서비스업(-0.4% → -0.3%)에서 전월에 이어 감소세가 유지되고 광공업(3.7% → 0.2%)과 건설업(6.0% → 0.5%) 등에서 증가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며 전월대비 감소 전환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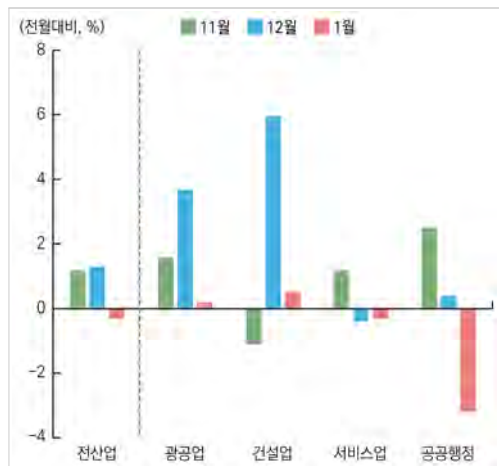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은 제조업(3.7% → 0.1%)에서 기계장비(-3.2%), 통신·방송장비(-19.0%)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6.1%), 자동차(3.2%) 등을 중심으로 늘며 전월의 증가세가 유지됨
- 서비스업생산(-0.3%)은 금융보험(-2.7%), 협회·수리·개인서비스(-3.1%), 전문·과학·기술(-2.5%) 등에서 줄며 전월의 감소세가 지속됨
- 건설업생산은 토목(18.4% → 1.5%)과 건축(2.4% → 0.1%) 실적이 모두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설업(0.5% → 6.8%)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광공업(7.4% → 4.3%), 서비스업(5.8% → 4.8%), 공공행정(15.7% → 0.7%)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6.8% → 4.3%)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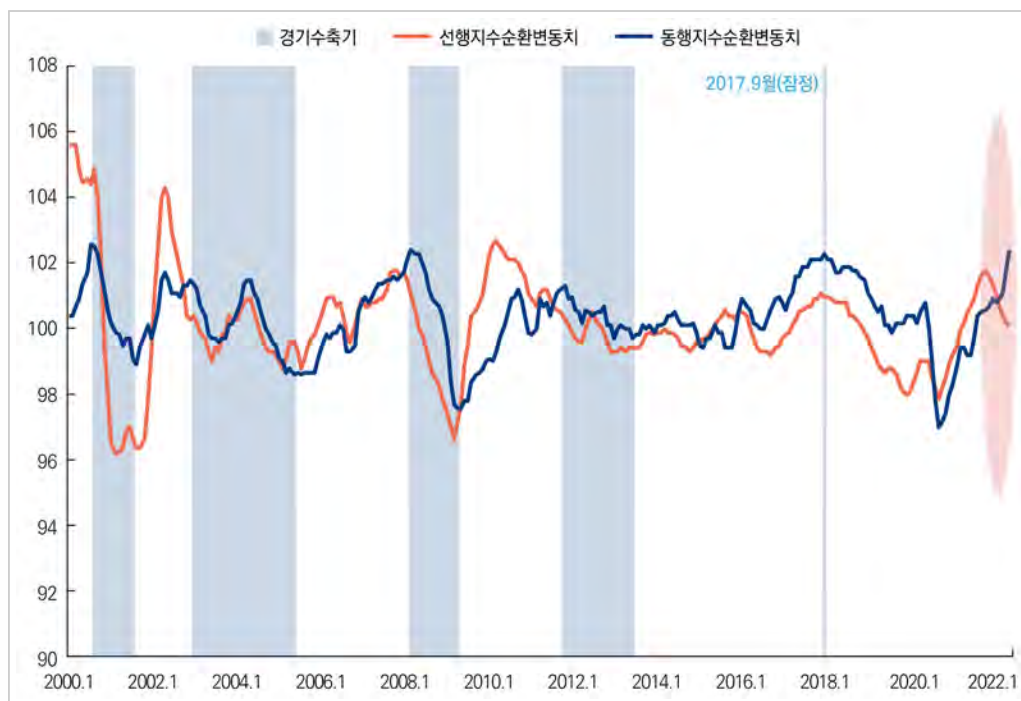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간 괴리가 확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2.4)는 구성지표 중 소매판매액을 제외한 광공업생산,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에서 전월의 호조세를 이어가며 큰 폭(0.6p)으로 상승
- 반면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0.1)는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의 구성지표에서 증가하였으나,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등의 지표에서 감소하며 전월(100.2)보다 0.1p 하락하였고, 지난 6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2. 소비

2022년 1월 소매판매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전월의 기저효과와 승용차 판매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월대비 1.9% 감소

■ 2021년 12월 증가로 반등했던 소매판매는 1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 7월 (-5.6%)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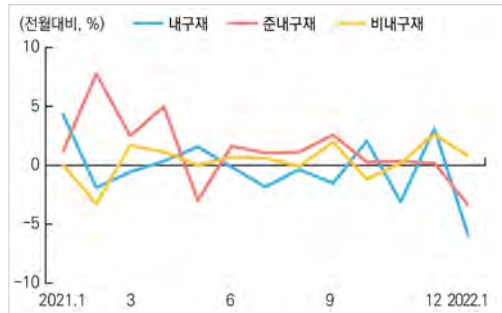
-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전월대비, %): ('21.11월)-0.7 → (12월)2.2 → ('22.1월)-1.9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전월대비, %): ('21.11월)-0.8 → (12월)1.9 → ('22.1월)-1.2

[그림 4]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5]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비내구재는 전월에 이어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월대비 0.7% 증가

■ 준내구재는 의복, 신발·가방의 판매가 축소되며 전월대비 3.4% 감소

- 평년대비 한파일수가 줄고 온화한 날씨가 유지되었으며, 외부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준내구재 수요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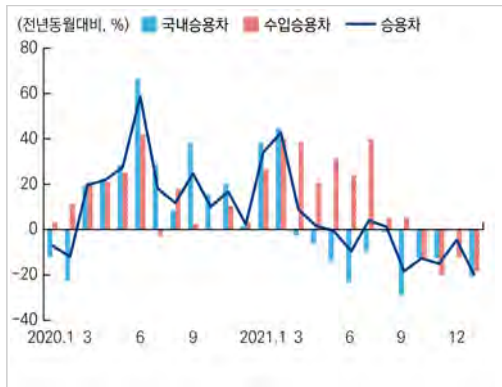
■ 내구재는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월대비 6.0% 하락

- 수입차의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반도체 부족에 따라 내수용 차량 생산이 조정되어 승용차 판매가 줄어들음

■ 소매업태별로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9.7%), 면세점(-18.2%)에서 전년동월대비 판매가 줄었고 전문소매점(12.6%), 백화점(29.6%), 무점포소매(4.0%), 슈퍼마켓 및 잡화점(8.9%), 대형마트(7.0%), 편의점(5.4%)에서 판매가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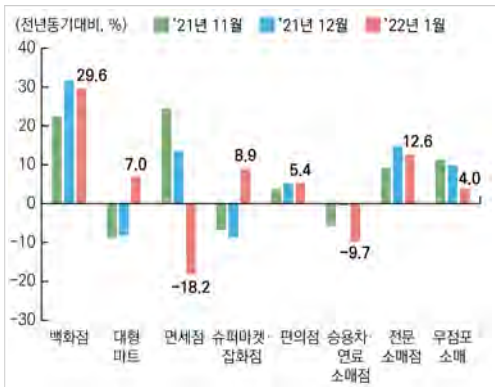
- 2021년 12월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제외되어 면세점 판매가 감소하였으며, 명절의 영향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매출이 증가

[그림 6] 승용차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7] 업태별 소매판매



자료: 통계청

2022년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여 소비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전월대비 1.3p 감소한 103.1을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¹⁾ 가운데 생활형편전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수가 하락
- 특히 향후경기전망 CSI는 91로 전월보다 2p 감소하여 2021년 12월(88)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그림 8]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1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1)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3.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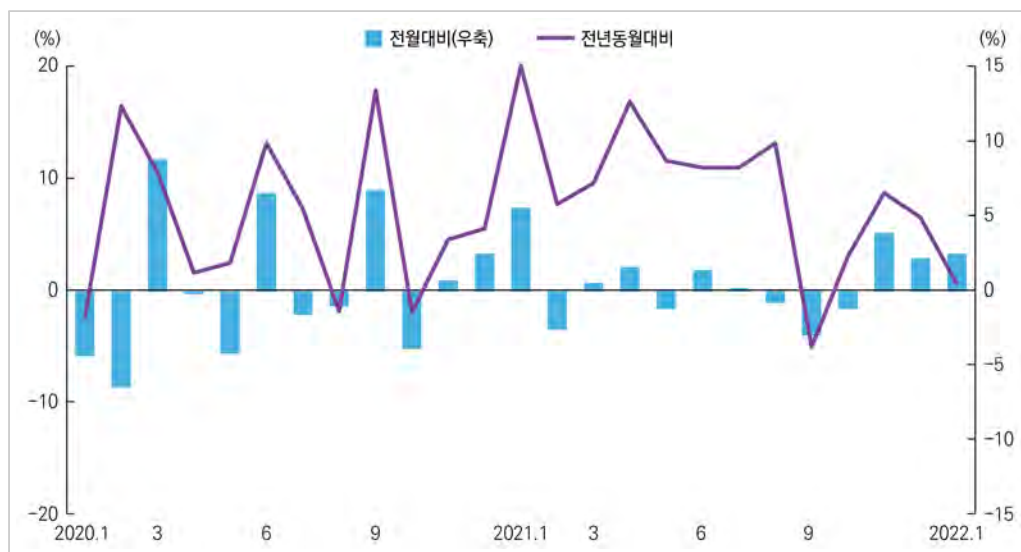
가.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정밀기기 등 기계류에서 감소하였으나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증가

■ 2022년 1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에서 0.6% 감소하였으나 운송장비에서 12.0% 늘어나며 전월대비 2.5% 증가

-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9%)에서 줄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16.9%)에서 크게 늘어나며 0.6% 증가

[그림 9] 설비투자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투자는 일반기계류(0.7%), 기타기기(0.3%)에서 늘어났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0.6%), 정밀기기(-7.6%)에서 줄어들며 전월대비 0.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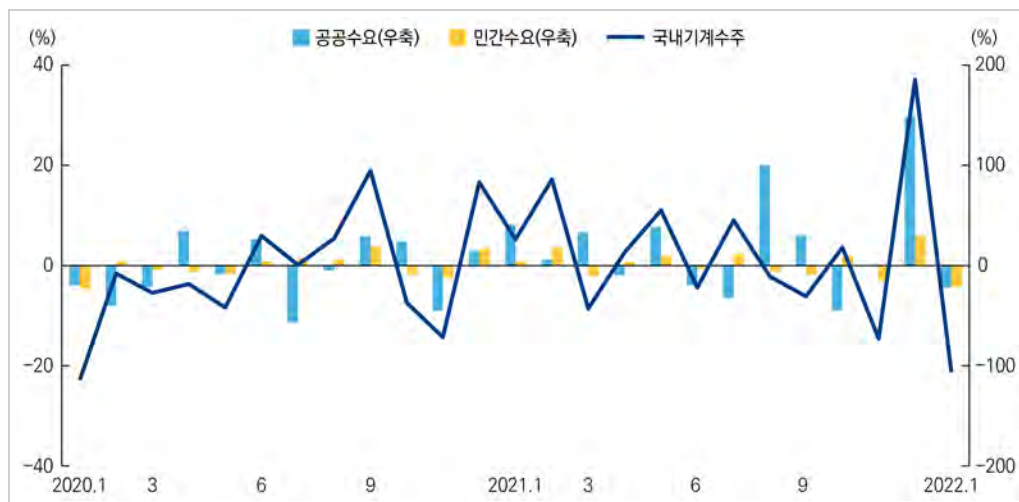
■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1.3%)에서 줄어들었으나 기타운송장비(28.7%)에서 늘어나며 전월대비 12.0% 증가

- 2022년 1월 내구재(승용차 포함) 판매량이 전월대비 감소 전환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연초 자동차 투자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액은 모두 크게 감소하였으나 기계류 내수출하는 증가세 유지

- 2022년 1월 국내기계수주는 민간수요(-21.3%)와 공공수요(-21.6%)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21.3% 감소
- 2022년 1월 기계설비류(선박제외)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1.6% 증가하며 2021년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그림 10]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 2022년 1월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자동차 부품 등에서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12.0% 감소
 - 2022년 1월 중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27.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50.0%), 자동차 부품(-5.2%) 등에서 모두 감소
 - 전년동월대비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34.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27.7%), 자동차 부품(-3.8%) 등에서 줄어들면서 4.7% 감소
- 2022년 2월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관련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상승한 101을 기록
 -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 ('21년.12월)99 → ('22년.1월)98 → (2월)101(수출기업 106, 내수기업 97)

[그림 11]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자료: 무역협회

나. 건설투자²⁾

건설투자는 전월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건설수주도 건축부문이 개선되어 증가로 전환

- 1월 중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공사(0.1%)와 토목 공사(1.5%)가 모두 늘어나며 전월대비 0.5% 증가
- 전년동월대비로도 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2018년 1월(15.9%)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1.11월)-1.1 → (12월)6.0 → ('22.1월)0.5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1.11월)-7.8 → (12월)0.5 → ('22.1월)6.8
 - 건축(전월대비, %): ('21.11월)3.7 → (12월)2.4 → ('22.1월)0.1
 - 토목(전월대비, %): ('21.11월)-14.5 → (12월)18.4 → ('22.1월)1.5

[그림 12] 건설기성(불변) 추이



주: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은 잠정치(p)
자료: 통계청

[그림 13]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주: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은 잠정치(p)
자료: 통계청

2) 2020년 이후 일부 건설투자 통계가 연간보정되어 이전 호에서 수치가 변경됨

■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19.5%)과 비주거용(23.9%)이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21.2% 상승**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1월)11.2 → (12월)18.1 → ('22.1월)21.2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1월)18.4 → (12월)25.4 → ('22.1월)19.5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1월)0.1 → (12월)7.5 → ('22.1월)23.9

■ **토목부문(경상)은 일반토목(4.6%), 전기기계(2.4%), 플랜트(27.4%)가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13.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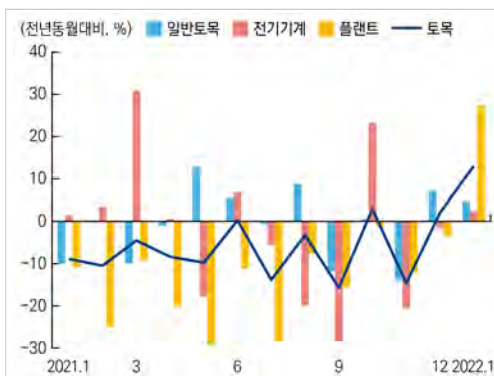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1월)-14.7 → (12월)2.1 → ('22.1월)13.0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1월)-13.9 → (12월)7.1 → ('22.1월)4.6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1월)-20.6 → (12월)-1.7 → ('22.1월)2.4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1월)-12.2 → (12월)-3.5 → ('22.1월)27.4

[그림 14]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주: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은 잠정치(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그림 15]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주: 2021년 12월 및 2022년 1월은 잠정치(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각각 전년동월대비 21.0%, 19.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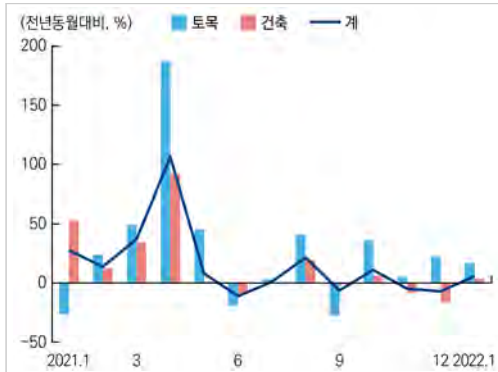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1월)-1.6 → (12월)13.9 → ('22.1월)21.0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1월)6.6 → (12월)13.4 → ('22.1월)19.5

■ **건설수주(경상)는 건축(3.6%)과 토목(16.9%)이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비 6.0% 증가**

- 건축 수주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부문이 전년동월대비 9.9% 감소하였으나 사무실 및 점포의 수주가 40.8%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 토목 수주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철도 및 궤도(250.7%), 발전 및 통신(212.5%)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의 수주가 전년동월대비 35.4% 늘어나면서 건설수주의 증가를 견인한 반면 민간부문의 수주는 1.1% 증가에 그침

[그림 16]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7] 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4. 대외거래

가. 수출

2월 중 수출은 일평균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

■ 2022년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0.6% 늘어난 539.1억 달러로 16개월 연속 증가

-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6% 늘어난 26.9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5.1% 증가한 530.1억 달러로 15개월 연속 증가세

-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물류 및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역대 2월 최고치 기록

■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계절적 요인으로 원유, 가스, 석탄 수입이 감소(전월대비 34.6억원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흑자 전환(8.4억 달러 흑자)

[그림 18]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9]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9대 지역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중국·미국·EU 등 주력 수출시장과 CIS, ASEAN 등 신흥시장이 고른 호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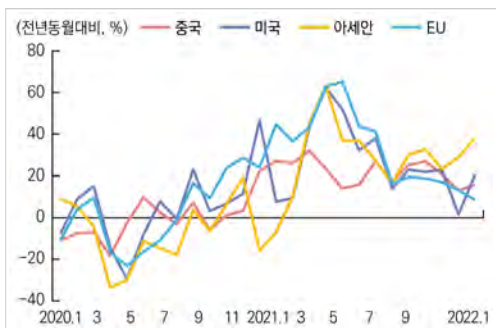
-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역대 2월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지속
 - * 미국으로의 수출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일반기계와 철강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한국산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역대 2월 중 1위를 경신(18개월 연속 증가)
 - * EU지역으로의 수출은 친환경차 신규 모델의 판매 호조로 자동차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철강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대 2월 중 1위 기록(18개월 연속 증가)
- 신흥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봉쇄조치 해제로 생산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냄
 -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ASEAN 지역으로의 수출은 봉쇄조치가 해제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8.4%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 CIS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5.6% 증가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모습
 - *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무선통신 등 주력품목이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역대 2월 중 1위 기록

[그림 20] 2022년 2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1]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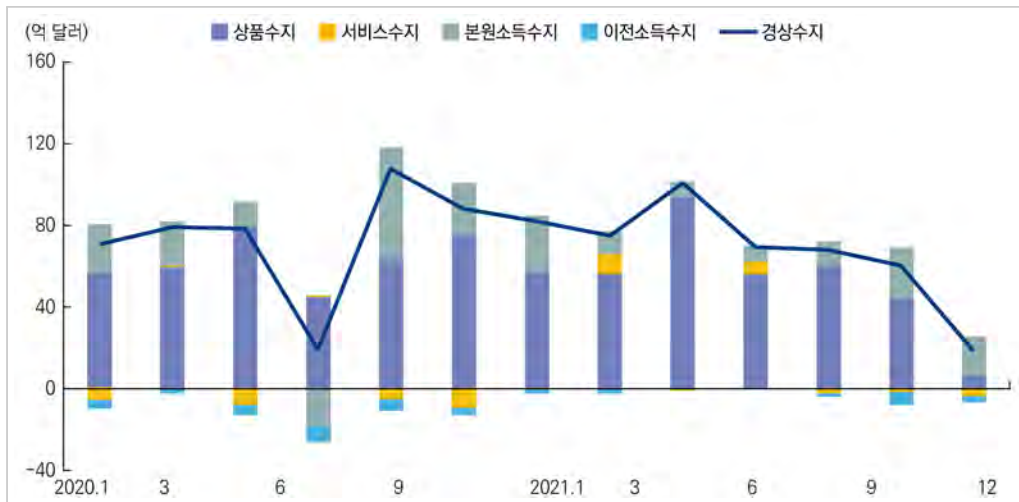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21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으나, 상품수지 흑자규모 감소로 흑자폭이 큰 폭으로 축소

- 2022년 1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8.1억 달러로 2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월 55.8억 달러보다는 축소
- 상품수지는 수출(561.3억 달러)이 수입(554.6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수출(19.8%)은 세계교역 확대로 호조세를 나타냈으나,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증가폭(34.4%)이 더욱 커지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55.8)보다 49.1억달러 축소

[그림 22]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사용료의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해상화물 운송수입 증가로 운송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보다 적자규모가 축소
 - 서비스수지 : (2021.1월) -9.3억 달러 → (2022.1월) -4.5억 달러
 - 2022년 1월 운송수지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전년 동월대비 76.5% 상승하면서 23.2억 달러 흑자를 기록
 - 1월 여행수지는 해외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5.2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된 5.6억 달러 적자를 기록

- 1월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7.7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월(2.7억 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

[그림 23] 운송수입과 SCFI³⁾ 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Shanghai Shipping Exchange, SCFI

■ 본원소득수지는 1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25.7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축소

- 이자소득수지 흑자가 전년동월보다 1.3억 달러 감소하였고, 배당소득수지가 전년동월 16.9억 달러 흑자에서 11.4억 달러 흑자로 축소된 것에 기인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

■ 2022년 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3.7% 각각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월대비, %): ('21년.11월)0.5 → (12월)0.2 → ('22년.1월)0.6 → (2월)0.6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년.11월)3.8 → (12월)3.7 → ('22년.1월)3.6 → (2월)3.7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상승률은 내구재, 개인서비스 등 품목에서의 물가상승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전월(2.6%)보다 높아진 2.9%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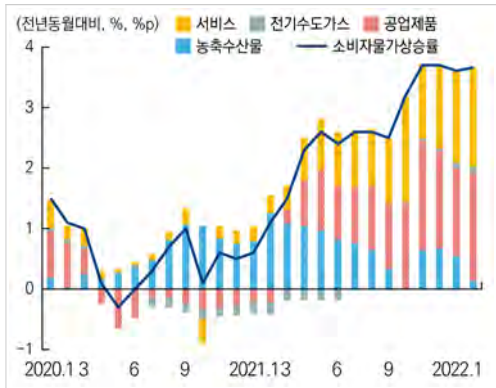
3)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상하이거래소(Shanghai Shipping Exchange: SSE)에서 2005년 12월 7일부터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spot)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

[그림 24]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5]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 물가의 높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1.6% 기록

- 농산물 물가는 과실(7.3%)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품목별 출하량 증가로 채소(-8.3%) 가격이 하락하면서 2.3% 하락
- 축산물 물가는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쇠고기(26.7%)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수요증가로 국산 쇠고기(5.1%), 돼지고기(12.4%) 등의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8.8% 상승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년.11월)5.0 → (12월)5.4 → ('22년.1월)4.6 → (2월)-2.3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년.11월)14.9 → (12월)14.7 → ('22년.1월)11.5 → (2월)8.8

[그림 26]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7]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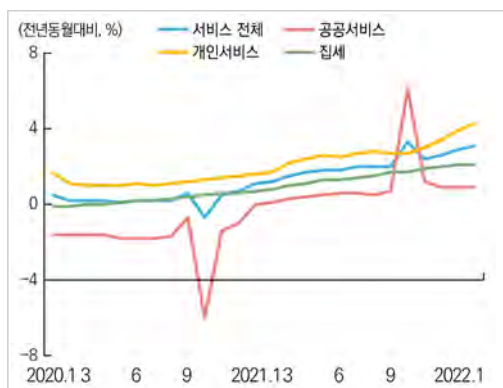
■ 공업제품 물가는 식품 원재료 가격 상승, 국제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가공식품과 석유류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5.2% 상승

- 가공식품 가격은 과실류, 축산물 등 원재료 품목 가격이 상승하면서 5.4% 상승
-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두바이, 브렌트, WTI 3종 평균)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9.4%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 국제유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1년.11월)88.9 → (12월)49.5 → ('22년.1월)56.6 → (2월)54.7

■ 서비스물가의 경우 외식서비스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3.1%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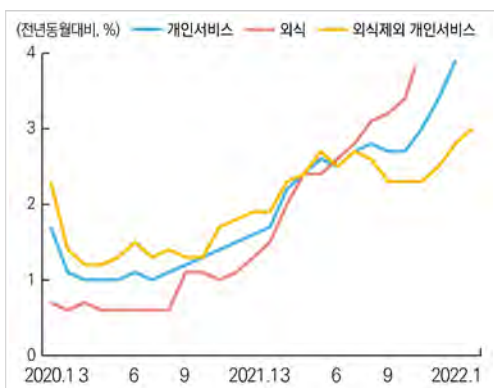
- 집세와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전월과 동일한 2.1%, 0.9% 기록
-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 및 외식제외 물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4.3% 상승
- 외식물가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 대면활동 재개에 따른 외식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22년.1월 5.5% → '22년.2월 6.2%)

[그림 28] 품목별 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9] 개인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2022년 외식물가 추이]

■ 2022년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제품(상품)*, 외식서비스(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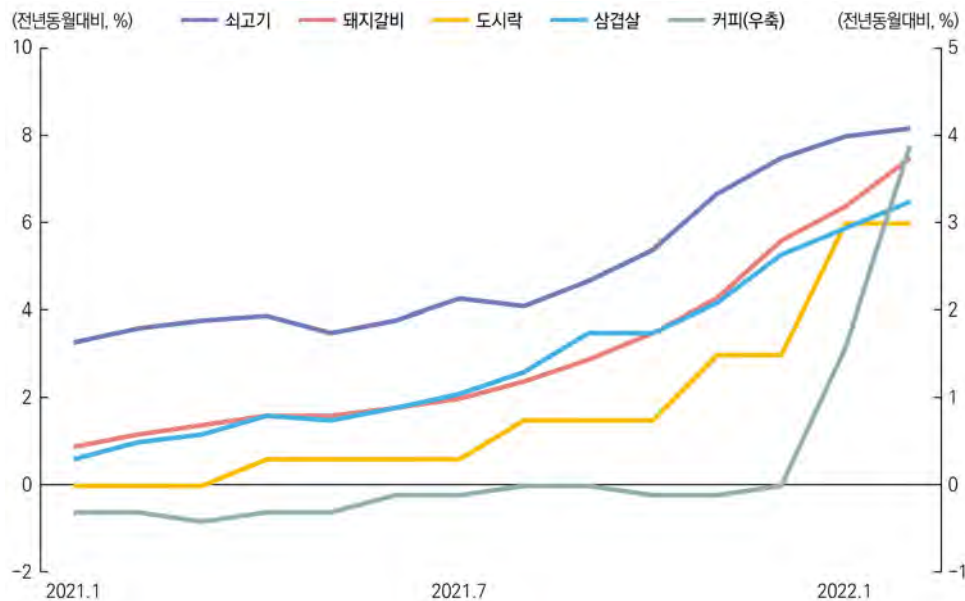
* 석유류 가격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으로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방역지침 완화로 인한 외식수요 증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 등으로 외식서비스 물가의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 2021년 1월 이후 외식물가를 구성하는 39개 품목 중 피자, 커피를 제외한 37개 품목의 가격이 14개월 연속 상승(전년동월대비)
- 2022년 2월 기준으로는 3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이 3%를 초과하는 품목은 35개*에 달함

* 물가상승률 3% 미만 품목: 해물찜(2.4%), 기타음료(2.1%), 소주(0.9%), 맥주(1.6%)

-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쇠고기(8.2%), 돼지갈비(7.5%), 삼겹살(6.5%)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커피(3.9%), 도시락(6.0%) 등의 품목도 3%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

[외식물가 주요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6.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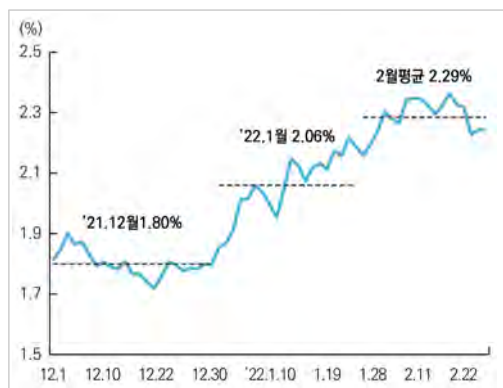
가. 금리

국고채금리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물가 상승 압력 확대에 따른 통화 긴축 강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전월대비 상승

■ 2022년 2월 중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월평균 전월 2.06%에서 2.29%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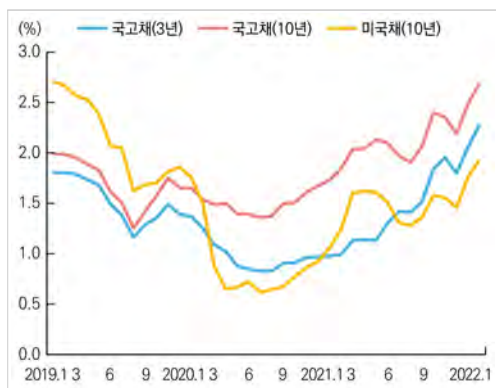
- 3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1.12월)1.80 → ('22.1월)2.06 → (2월)2.29
- 10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1.12월)2.19 → ('22.1월)2.49 → (2월)2.69

[그림 30]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31] 국고채 및 미국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로 대내외적으로 긴축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세

- 월초 영란은행(BOE)이 25bp 금리를 추가인상한 가운데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호조⁴⁾를 보이며 대외금리가 상승세
- 이어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0년만에 최고치인 7.5%를 기록하면서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국내 채권금리도 동반 상승
- 10년 만기 미국채금리(월평균, %): ('21.12월)1.46 → ('22.1월)1.76 → (2월)1.93
- 대내적으로는 1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3.6%를 기록하면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어 국고채 금리 상승

4) 미국의 1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는 46만 7천명 증가하여 시장의 예상치인 15만명을 큰 폭으로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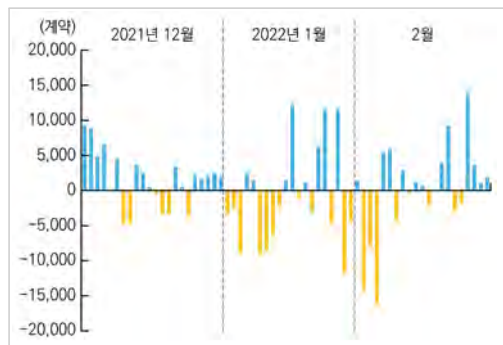
■ 2월 말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등은 국고채 금리 하방요인으로 작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여파로 글로벌 금리가 급락하였으며 국내금리도 이에 연동하여 하락세
- 한국은행은 2월 24일 개최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

■ 미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 등으로 2022년 1월부터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순매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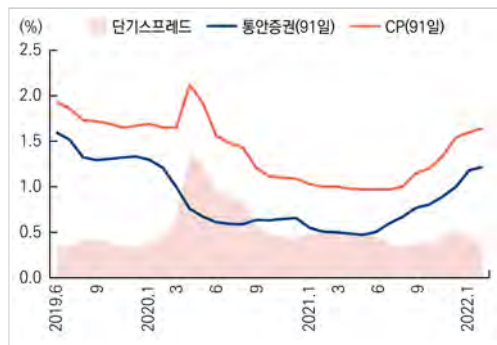
- 외국인 국고채선물 순매수(계약): ('21.11월)29,848 → (12월)34,637 → ('22.1월)-18,015 → (2월)-5,508

[그림 32] 외국인의 국고채선물 순매수 추이



자료: 인포맥스

[그림 33] 단기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단기금리는 한국은행의 세차례 기준금리 인상, 추가 인상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

- 통안증권금리(91일물, 월평균, %): ('21.12월)1.00 → ('22.1월)1.18 → (2월)1.22
- CP금리(91일물, 월평균, %): ('21.12월)1.54 → ('22.1월)1.60 → (2월)1.64

2022년 2월 회사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2022년 1월 기업대출 금리도 대기업대출 금리와 중소기업대출 금리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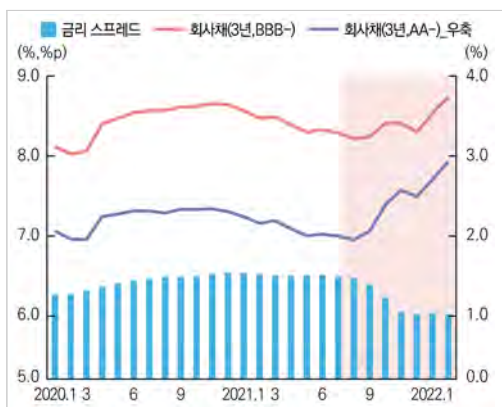
■ 2022년 2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물가의 상방 위험 확대에 따른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우려 등으로 상승

- 2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 대비 24bp 상승한 2.87%, 회사채 3년물(BBB-) 금리는 전월 대비 22bp 상승한 8.72%를 기록
- 2월 회사채(3년, 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간 신용스프레드는 전월대비 2bp 하락한 585bp를 기록

■ 2022년 1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상승하였으나 대기업대출 금리가 중소기업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출 금리차는 축소

- 1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17bp 상승한 3.03%,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15bp 상승한 3.52%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51bp에서 49bp로 축소
- 한편 2022년 1월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1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하며 전월대비 22bp 오른 3.85%를 기록

[그림 34]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35]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주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소폭 상승

■ 2022년 2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98원으로 전월(1,195원)대비 소폭 상승

- 원/달러 환율(월평균): ('21.12월)1,184 → ('22.1월)1,195 → (2월)1,198

■ 대외적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지정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나타남

- 미 연준의 긴축강화 기조에 따른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으로 달러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강세 지속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 내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월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환율은 급상승하며 1,202원에 마감

■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졌음에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가 순매수로 전환된 점은 원달러 환율의 하방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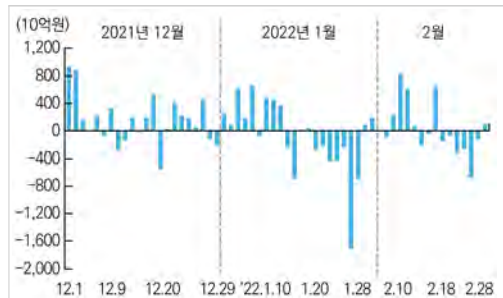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2월 중순까지 외국인 투자자금의 큰 폭으로 증가(2.1~2.16 동안 2조 3,078억원 순매수)
-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는 매도세로 전환되었으나, 2월 중 순매수를 기록

[그림 36]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37] 외국인 국내주식 순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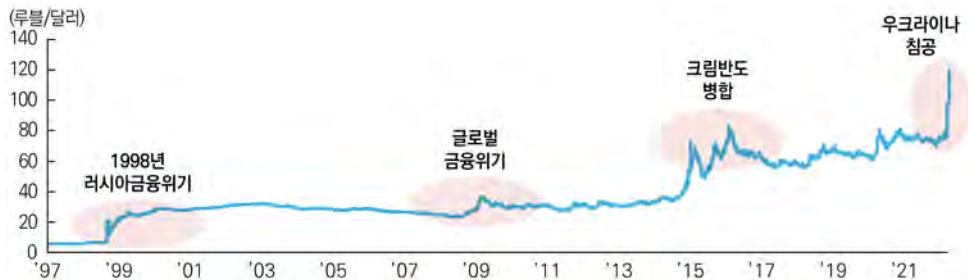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루블화 추이]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

-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러시아 주요은행들은 배제하는 제재안을 발표
- 금융규제 이후 러시아 루블화가 큰 폭으로 폭락하며 3월 4일 기준 달러화 대비 120.1루블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 러시아 중앙은행은 화폐유출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매도를 금지하였으나 러시아 금융시장의 혼란은 지속

[루블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다. 주가

2022년 2월 국내 주가는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글로벌 주가는 물가 불안 확산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출구전략 가속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하락

■ 2022년 2월 국내 주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등으로 상승

- 2월말 KOSPI지수는 전월말(2,663) 대비 1.4% 상승한 2,699를 기록

■ 외국인 투자자는 2022년 1월 3.9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나 2월 들어 순매수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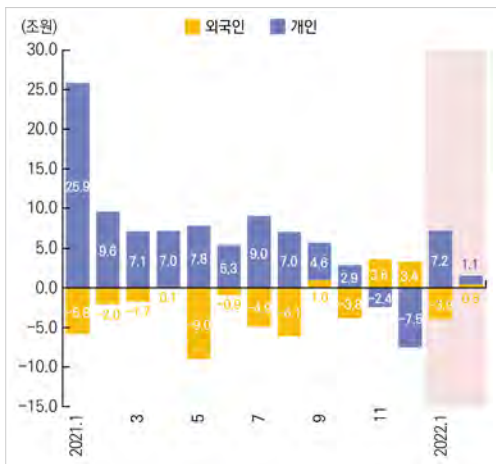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자는 2021년 중 26.1조원, 월 평균 2.2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였으나 2022년 2월 0.5조원 순매수
- 개인 투자자는 2021년 중 76.3조원 월 평균 6.4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가운데 2022년 들어서 도 1월 7.2조원, 2월 1.1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

[그림 38]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39]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2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 움직임 등으로 하락

- 2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2.7%, 신흥국 주가는 3.1% 하락
- 한편 2월말 기준 미국, 독일, 일본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3.5%, 6.5%, 1.8% 하락

[그림 40]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41]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라. 신용위험

2022년 2월 우리나라 및 글로벌 신용위험지표는 지정학적 위험 확대, 물가 불안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 우려 등으로 상승

■ 2022년 2월 한국 신용위험지표는 대외리스크 확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경기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상승

- 2022년 2월말 기준 한국의 CDS프리미엄⁵⁾은 전월대비 6.1bp 상승한 31.4bp를 기록
- 한국의 CDS프리미엄이 30bp를 상회한 것은 2020년 4월 이후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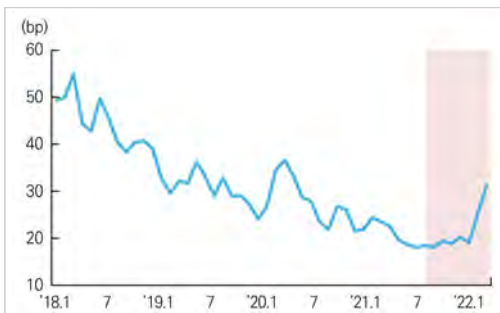
■ 글로벌 신용위험지표는 글로벌 물가 불안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신흥국 채권가산금리⁶⁾,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가 모두 상승

- 2022년 2월말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전월대비 143.2bp 상승한 556.2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39.7bp 상승한 231.9bp를 기록

5)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6)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그림 42] 한국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3]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중앙정부 총수입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2년 1월 총수입은 65.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0조원(14.0%) 증가

■ 국세수입은 49.7조원으로, 경기회복,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0.8조원 증가

- 부가가치세는 24.4조원으로, 경기회복,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⁷⁾, 전년도 1월 세정지원 기저효과⁸⁾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6.9조원 증가
- 소득세는 13.2조원으로, 고용회복⁹⁾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5조원 감소
- 법인세는 2.9조원으로,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¹⁰⁾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9조원 증가

■ 세외수입은 1.8조원으로, 3기 신도시 택지개발 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1조원 증가

■ 기금수입은 13.8조원으로, 자산시장 둔화에 따른 자산운용수익 감소(-3.1조원)¹¹⁾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9조원 감소

7)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직권제외를 10월에서 2022년 1월로 연기함에 따라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이 2.3조원 증가

8) 2021년 1월 개인사업자(665만명)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1월에서 2월로 연기됨에 따라 2021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수가 1월이 아닌 2월에 3.2조원 징수됨

9) 상용근로자수가 2021년 12월 1,52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

10)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2021년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함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1.2조원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이연

11) 2021년 1월 자산시장 호황으로 기금수입이 5.1조원이었으나 2022년 1월에는 2.0조원으로 감소

- 다만,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¹²⁾ 보험료수입이 0.2조원 증가

[표 1] 중앙정부 총수입 현황

(단위: 조원)

	2021년				2022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1월	1월 (누계)	예산	1월	1월 (누계)	1월	1월 (누계)
총수입	514.6	-	57.3	57.3	553.6	65.3	65.3	8.0	8.0
국세수입	314.3	344.1	38.8	38.8	343.4	49.7	49.7	10.8	10.8
- 소득세	99.5	114.1	11.7	11.7	105.8	13.2	13.2	1.5	1.5
- 법인세	65.5	70.4	2.0	2.0	74.9	2.9	2.9	0.9	0.9
- 부가가치세	69.3	71.2	17.5	17.5	77.5	24.4	24.4	6.9	6.9
- 기타	80.0	88.4	7.6	7.6	85.2	9.2	9.2	1.5	1.5
세외수입	29.3	-	1.7	1.7	26.1	1.8	1.8	0.1	0.1
기금수입	171.0	-	16.8	16.8	184.1	13.8	13.8	△2.9	△2.9
-사회보장성기금 ¹⁾	99.5	-	10.9	10.9	104.8	8.0	8.0	△2.9	△2.9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기여금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중앙정부 총지출은 1차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2년 1월 총지출은 56.3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4조원(4.5%) 증가
- 예산은 39.0조원으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 대한 1차 방역지원금(2.3조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0.2조원)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4조원 증가
- 기금은 17.3조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0조원 증가

[표 2] 중앙정부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2021년				2022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1월	1월 (누계)	추경	1월	1월 (누계)	1월	1월 (누계)
총지출	604.9	-	53.9	53.9	607.7	56.3	56.3	2.4	2.4
예산	409.7	-	38.6	38.6	413.0	39.0	39.0	0.4	0.4
일반회계	348.8	-	33.6	33.6	350.2	35.8	35.8	2.1	2.1
특별회계	60.9	-	5.0	5.0	62.8	3.2	3.2	△1.7	△1.7
기금	195.2	-	15.3	15.3	194.6	17.3	17.3	2.0	2.0
사회보장성기금 ¹⁾	63.2	-	5.7	5.7	64.8	5.6	5.6	0.0	0.0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1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2022년 1월 기준 각각 2,210만명, 1,44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명, 50만명 증가

[기금 자산운용 및 수익률 현황]

■ 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기준 883.6조원이며, 사업성기금과 계정성기금의 증가율은 둔화

- 기금 여유자금의 증가율은 2014년 이후 연평균 9.1%이고, 사회보장성기금 중 산재보험이 15.2%로 빠른 증가세
- 계정성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38.5%, -17.3%, 사업성기금의 경우 -1.1%, -1.5%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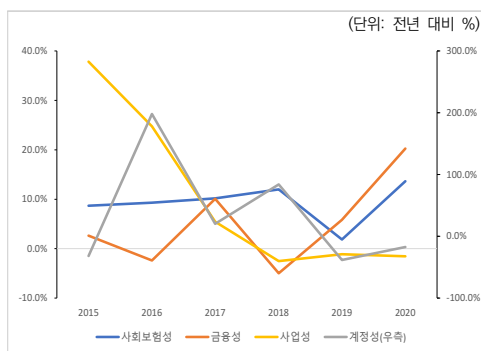
[기금 유형별 여유자금 규모]

(단위: 조원, %)

	2014	2020	비중	연평균 증가율
전체	523.1	883.6	100.0	9.1
사회보장성	471.1	799.3	90.5	9.2
국민연금	437.9	742.2	84.0	9.2
산재보험	9.0	21.0	2.4	15.2
사학연금	11.8	18.9	2.1	8.1
공무원연금	4.8	9.2	1.0	11.3
금융성	18.9	25.1	2.8	4.9
계정성	3.6	8.3	0.9	14.7
사업성	29.5	50.8	5.7	9.5
주택도시	21.5	38.0	4.3	10.0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기금 여유자금의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 기금 여유자금 수익률은 2020년 기준 2.83%이며, 사회보장성기금이 높은 편

- 사회보장성 기금의 경우 2014년에 비해 5.93%p 증가한 반면 금융성, 계정성, 사업성기금은 각각 0.99%p, 1.16%p, 0.65%p 감소
- 주요 개별 기금의 평균수익률은 2014~2020년 동안 국민연금이 5.97%, 사학연금이 5.69%, 공무원연금이 5.05%, 산재보험이 4.36%, 주택도시기금이 3.1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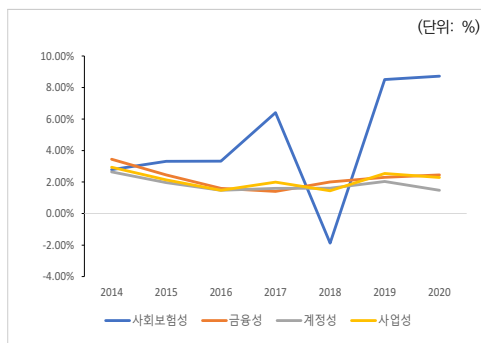
[기금 유형별 여유자금 수익률]

(단위: %, %p)

	2014 (A)	2020 (B)	(B-A)	'14-'20 평균
전체	2.98	2.83	-0.15	2.33
사회보장성	2.79	8.72	5.93	4.46
국민연금	5.25	9.58	4.33	5.97
산재보험	1.70	11.20	9.50	4.36
사학연금	2.63	11.49	8.86	5.69
공무원연금	3.35	10.50	7.15	5.05
금융성	3.44	2.45	-0.99	2.24
계정성	2.64	1.48	-1.16	1.83
사업성	2.94	2.29	-0.65	2.12
주택도시	2.44	5.05	2.61	3.18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기금 여유자금의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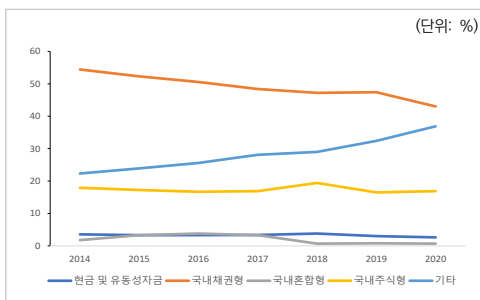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 기금 여유자금의 자산배분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채권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대체투자 등 기타자금의 비중은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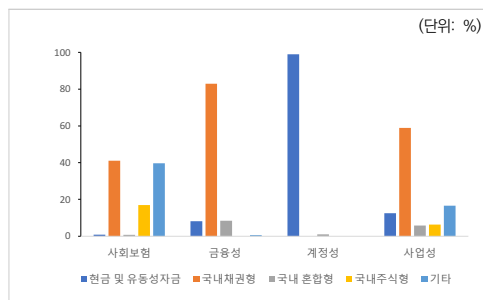
- 국내채권형의 비중은 2014년 54.4%에서 2020년 43.0%로 감소한 반면, 기타자금의 비중은 2014년 22.3%에서 2020년 36.9%로 증가
- 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내채권(41.1%), 기타자산(39.7%), 국내주식(16.9%)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금융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은 국내채권(83.0%, 58.9%)을 중심으로, 재정성 기금은 현금 및 유동성자금(99.0%)을 중심으로 구성

[기금 여유자금의 자산배분 추이]



주: 확정금리형은 국내채권형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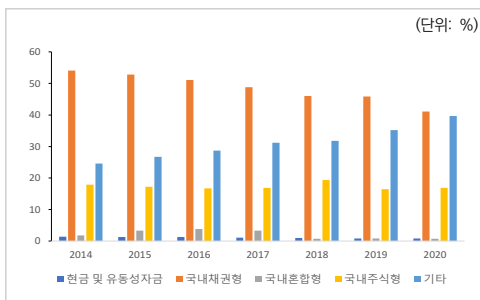
[기금 유형별 자산배분 현황(2020년)]



주: 확정금리형은 국내채권형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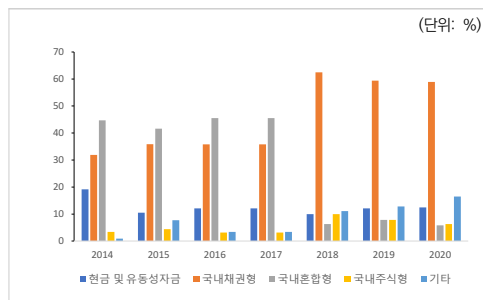
- 사회보험성기금의 경우, 국내채권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기타자금의 비중이 증가세
- 사업성기금의 경우, 2018년을 기점으로 국내혼합형의 비중은 감소하고 국내채권형의 비중이 약 60%를 상회

[사회보험성기금의 자산배분 추이]



주: 확정금리형은 국내채권형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사업성기금의 자산배분 추이]



주: 확정금리형은 국내채권형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 기금의 자산배분 비중과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0.89), 기타(0.68), 국내 채권(0.35), 국내 혼합(0.20)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현금 성자산(-0.56), 유동성 자금(-0.26)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산업·고용동향

경제분석국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모두 증가하고 11대 산업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서비스업의 전월대비 생산은 감소

■ 반도체, 화학 산업 등을 중심으로 1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11월)7.0% → (12월)7.6% → ('22.1월)4.4%
- 반도체(전년동월대비, %):(11월)33.9% → (12월)31.4% → ('22.1월)34.3%
- 화학(전년동월대비, %):(11월)7.7% → (12월)4.9% → ('22.1월)3.8%

■ 숙박 및 음식점 등에서 늘어 1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3% 감소

- 서비스업생산(전년동월대비, %):(11월)5.4% → (12월)5.8% → ('22.1월)4.8%
- 서비스업생산(전월대비, %):(11월)2.0% → (12월)-0.4% → ('22.1월)-0.3%
- 숙박 및 음식점(전년동월대비, %):(11월)14.4% → (12월)38.6% → ('22.1월)37.6%

■ 2월 반도체, 화학, 철강 등 11대 산업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2.5% 증가하여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2.6% 감소

- 11대산업수출(전년동월대비, %):(12월)20.8% → ('22.1월)15.8% → (2월)22.5%
- 11대산업수출(전월대비, %):(12월)-1.5% → ('22.1월)-8.9% → (2월)-2.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으로 2월 중 에너지, 원자재 가격 높은 상승률 지속

■ 원유 가격이 배럴당 93.5달러(2014년 9월 이후 최고가)로 전월대비 11.5% 증가하였고, 석탄, 천연가스 가격도 각각 17.5%, 1.7% 상승

- 원유 가격(달러/배럴):(12월)72.9 → ('22.1월)83.9 → (2월)93.5
- 석탄 가격(달러/톤):(12월)163.3 → ('22.1월)196.9 → (2월)231.4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12월)15.3 → ('22.1월)14.7 → (2월)14.9

■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4.5%, 5.7%, 4.7% 상승

- 농산물 지수:(12월)113.9 → ('22.1월)118.5 → (2월)123.9
- 식품 지수:(12월)127.3 → ('22.1월)133.6 → (2월)141.1
- 금속·광물 지수:(12월)116.7 → ('22.1월)125.2 → (2월)131.18

2월 중 고용은 전월에 이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

■ 전체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1.12월)77.3 → ('22.1월)113.5 → (2월)103.7

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전월대비 %): ('21.12월)0.29 → ('22.1월)0.10 → (2월)0.03

■ 주택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전월대비, %): ('21.12월)0.24 → ('22.1월)0.10 → (2월)0.04

II. 산업·고용동향

1. 제조업

1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전월 수준 유지

■ 반도체와 가전 산업을 비롯하여, 화학, 일반기계, 석유, 철강 산업 등의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반도체 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4.3% 증가하며 7개월 연속 30% 이상의 견조한 증가율을 유지하였고, 가전, 화학, 석유 산업도 각각 12.2%, 3.8%, 4.2% 증가한 반면, 자동차, 조선, 무선통신기기 산업은 각각 9.3%, 12.1%, 24.6% 감소

■ 전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가전 산업의 생산이 증가한 반면, 일반기계, 석유,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은 생산이 줄어 제조업 전체적으로 0.1% 증가에 그침

- 반도체, 자동차, 가전 산업 생산이 각각 6.1%, 3.2%, 8.4%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19.0%) 산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고 화학(-1.1%), 일반기계(-3.2%), 석유(-4.1%), 컴퓨터 주변장치(-3.2%) 산업 생산 또한 소폭 감소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		2021			2022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11.7	117.5	109.0	119.8	126.7	113.8	0.1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	2.5	7.6	7.0	7.6	4.4	
반도체	7.9	17.5	20.0	33.9	31.4	34.3	6.1
자동차	0.2	-5.1	17.9	-5.1	7.7	-9.3	3.2
화학	-4.0	-0.2	0.2	7.7	4.9	3.8	-1.1
일반기계	8.8	3.7	16.9	6.7	8.1	1.1	-3.2
철강	-1.3	0.3	1.8	3.0	-0.4	2.6	2.1
조선	0.4	-3.3	1.6	-13.7	-9.4	-12.1	-0.9
석유	-7.2	-8.6	-10.1	7.6	7.7	4.2	-4.1
섬유	-4.6	-4.1	-0.4	4.2	4.5	6.6	4.9
무선통신기기	1.0	43.9	64.1	12.7	-0.8	-24.6	-19.0
가전	18.1	31.5	19.2	8.8	-2.6	12.2	8.4
컴퓨터 주변장치	-4.1	7.2	-0.7	3.8	-3.7	-1.0	-3.2

2022년 2월 주요 11대 산업¹⁾의 수출은 1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전월대비로는 감소세가 이어짐

■ 11대 산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22.5% 증가

- 계속되는 글로벌 수요 회복 및 전방산업 경기 호조와 단가 상승의 효과로 반도체, 화학, 철강, 석유,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24.0%, 24.7%, 40.1%, 66.1%, 41.5% 증가하며 수출 호조를 이끈 가운데, 조선 산업 또한 15.8% 증가

■ 전월대비로는 조선 산업이 125.6% 증가하였지만, 2월(20.0일) 조업일수는 전월(22.0일)에 비해 줄어 반도체(-4.0%), 자동차(-8.6%), 철강(-9.7%) 등 11대 산업 중 9개 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2.6% 감소

[표 2]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년		2021년				2022년			
	11월	12월	1월	2월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2월*	전월대비
11대산업	-0.2	10.7	9.7	8.1	39.7	20.8	15.8	-8.9	22.5	-2.6
반도체	16.4	30.0	21.6	13.1	40.0	35.1	24.2	-15.4	24.0	-4.0
자동차	3.5	1.9	26.4	26.7	1.5	10.4	6.0	-3.1	5.6	-8.6
화학	-7.8	-1.4	8.6	23.7	62.9	34.5	40.2	5.1	24.7	-4.7
일반기계	-7.5	2.6	-5.0	-5.8	11.6	6.1	13.9	-8.4	0.9	-13.9
철강	-4.7	-7.8	6.0	3.4	45.9	48.6	49.9	2.0	40.1	-9.7
조선	32.4	106.2	23.4	3.6	237.5	-49.0	-77.9	-45.8	15.8	125.6
석유	-48.8	-34.8	-44.5	-12.2	123.9	80.2	89.2	-8.7	66.1	12.5
섬유	-6.4	2.8	-8.0	-24.0	16.9	12.1	22.2	-10.9	15.3	-12.7
무선통신기기	18.9	38.2	57.5	10.0	16.6	4.3	1.9	-10.0	8.2	-7.8
가전	20.2	23.2	19.6	10.5	20.9	11.6	19.7	-3.0	14.6	-9.7
컴퓨터 주변장치	15.5	23.0	21.6	7.8	31.9	16.7	23.7	-8.7	41.5	-1.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제적 영향]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동맹국들의 대러시아 수출제재와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 서의 러시아 배제 등 본격적이며 광범위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교역활동이 불가능

■ 2021년 러시아는 한국의 교역 대상국 중 10위이며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대러시아 수출은 12위, 수입은 9위

-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25.5%), 자동차 부품(15.1%), 철구조물(4.9%), 합성 수지(4.8%) 등이 있음
-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25.3%), 원유(24.6%), 유연탄(12.7%), 천연가스 (9.9%) 등으로 에너지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

[2021년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품목	수출			품목	수입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승용차	2,549	25.5	71.7	나프타	4,383	25.3	72.8
자동차 부품	1,509	15.1	37.5	원유	4,269	24.6	79
철구조물	487	4.9	2,188.4	유연탄	2,203	12.7	31
합성수지	476	4.8	88.6	천연가스	1,715	9.9	120.8
건설중장비	425	4.3	99.9	백금	593	3.4	80.7
화장품	290	2.9	19.2	계	453	2.6	14.2
아연도강판	211	2.1	40.2	무연탄	363	2.1	27
기타 플라스틱	174	1.7	20.7	알루미늄괴·스크랩	302	1.7	55.6
선박	139	1.4	18.7	고철	267	1.5	57.1
의자	119	1.2	25.1	우라늄	252	1.5	12.2

주: MTI 4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1년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교역 대상국 중 68위이며 한국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64위, 수입은 75위

-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11.0%), 아연도강판(11.0%), 화장품(4.8%), 합성수지(7.7%) 등이 있음
-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입 품목은 사료(39.8%), 식물성유지(11.3%), 기타정밀화학원료 (9.7%), 곡류(7.8%) 등으로 1차산품 및 원료 관련 품목이 주를 이룸

[2021년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품목	수출			품목	수입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승용차	126	21.7	63.2	사료	123	39.8	-71.9
아연도강판	64	11	138.7	식물성유지	35	11.3	88.5
화장품	48	8.3	52.7	기타 정밀 화학원료	30	9.7	77.2
합성수지	45	7.7	128.7	곡류	24	7.8	-62.4
자동차부품	34	5.9	23.9	기타난방 및 전열기기	18	5.8	10.4

주: MTI 4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대러시아 수출 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 차질과 에너지, 희귀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예상

- 러시아로의 수출은 러시아 내 국내 기업들의 생산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대러시아 수출 제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에 차질이 예상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제조업 부담 확대
- 우크라이나와의 교역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일부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수입의존도('21년, %): 네온(우크라이나 23.0), 크립톤 (우크라이나 30.7), 크세논(러시아 31.3, 우크라이나 17.8)

반도체 산업의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모두 증가하였으며, 2월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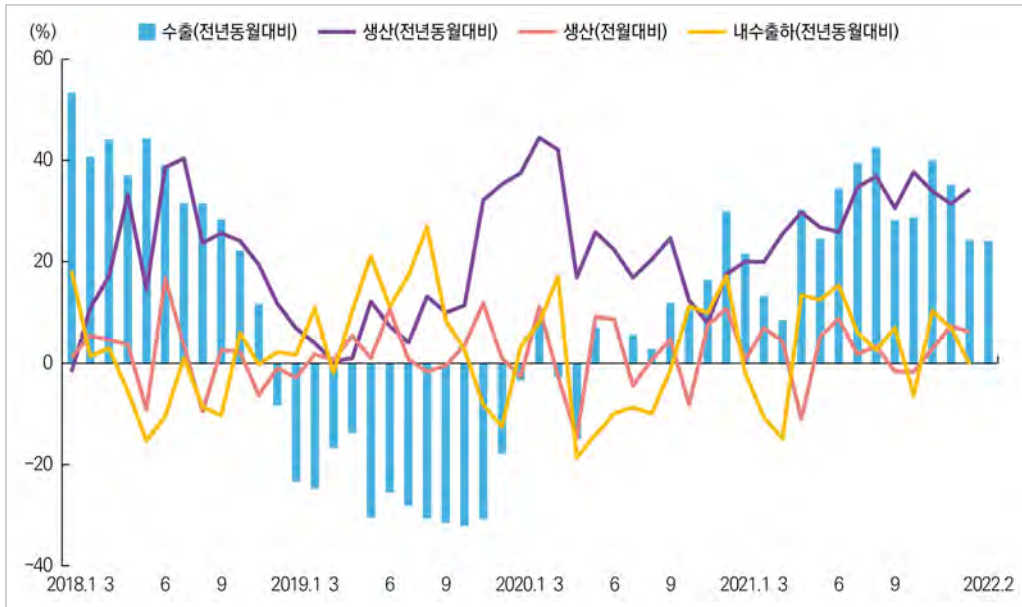
■ 1월 중 반도체 생산은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34.3%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6.1% 증가

-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메모리반도체의 D램과 플래시메모리가 각각 35.6%, 22.6% 증가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84.5% 증가함에 따라 34.3%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33.9 → (12월)31.4 → ('22.1월)34.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2.9 → (12월)7.4 → ('22.1월)6.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0.3 → (12월)6.9 → ('22.1월)-0.2

■ 2월 중 수출(103.8억 달러)은 전년동월대비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수요 증가로 대중 수출(33.9%)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24.0% 증가하며 역대 2월 수출 중 최고 실적을 달성

- D램 고정가격(DDR4 8Gb, 달러): ('21.2월)3.00 → ('22.2월)3.41
- 낸드플래시 고정가격(128Gb 16Gx8 MLC, 달러): ('21.2월)4.20 → ('22.2월)4.81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40.0 → (12월)35.1 → ('22.1월)24.2 → (2월)24.0

[그림 1] 반도체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산업의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전월대비로는 증가하였으며, 2월 수출은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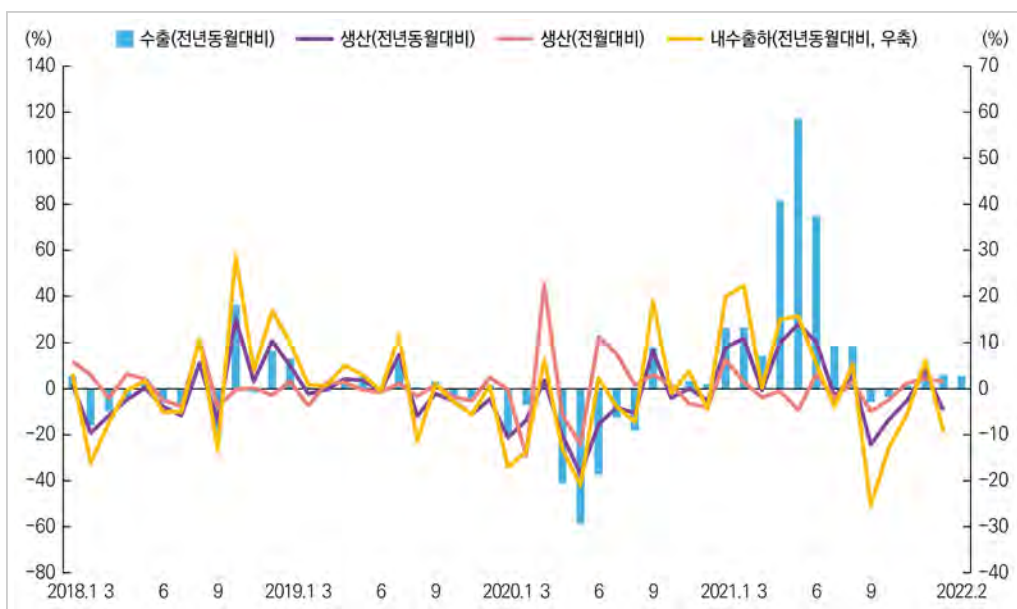
■ 1월 생산은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고 일부 공장에서 신차 출시를 위한 설비 공사로 휴업을 하면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3.2% 증가함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한 반면,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부문에서 각각 17.4%, 3.7% 감소함
- 전월대비로는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문에서 15.5% 감소한 반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부문에서 각각 4.0%, 3.0% 증가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5.1 → (12월)7.7 → ('22.1월)-9.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2.5 → (12월)4.4 → ('22.1월)3.2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5.5 → (12월)6.2 → ('22.1월)-9.2

■ 2월 수출은 차량용반도체 수급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 국내공장 생산라인 정상가동, 한국산 SUV·친환경차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함

- 세부 부문별로 자동차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9.1% 증가하였고, 자동차 부품 부문은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으로 해외공장에서 생산차질이 빚어져, 미국·EU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1.1% 감소함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5 → (12월)10.4 → ('22.1월)6.0 → (2월)5.6

[그림 2]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화학 산업의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감소하였으며,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역대 2월 중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함

■ 1월 생산은 화학섬유 제조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1.1%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화학섬유 제조업 부문 생산이 7.8% 감소한 반면,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부문 생산이 각각 4.9%, 5.3%, 1.9%, 8.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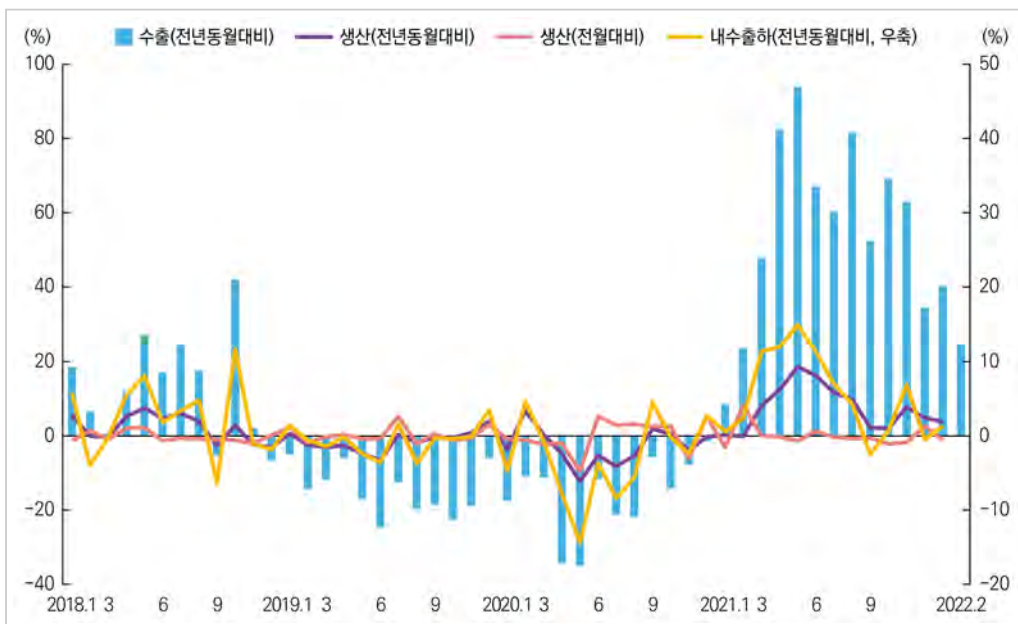
- 전월대비로는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부문 생산이 5.5% 증가한 반면, 나머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부문 생산이 각각 1.3%, 1.5%, 0.8%, 2.4% 감소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7.7 → (12월)4.9 → ('22.1월)3.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1.7 → (12월)2.7 → ('22.1월)-1.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6.9 → (12월)-0.5 → ('22.1월)1.3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도료, 인쇄잉크 및 매스틱, 비누, 세정 및 광택제, 화장품, 화약 및 폭발물, 접착제 및 젤라틴 유도제 등 완제품 상태의 각종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 2월 수출은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 경기 회복,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수출단가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24.7% 증가하면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함

- 합성수지·고무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함
- 석유화학 수출단가(\$/톤): ('21.2월)1,281 → ('22.2월)1,470(전년동월대비 14.8% 상승)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62.8 → (12월)34.5 → ('22.1월)40.2 → (2월)24.7

[그림 3] 화학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산업의 1월 생산은 수주잔고가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2월 수출도 주요국의 설비투자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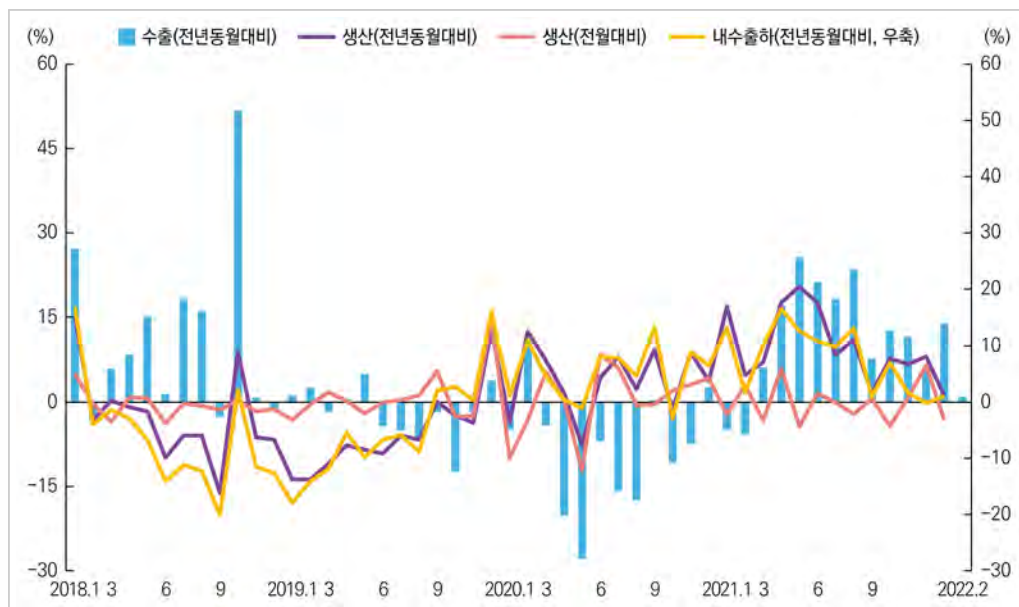
■ 1월 생산은 수주액(-15.4%)과 판매액(-22.7%)의 감소 전환에도 불구하고 수주잔고(0.9%)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로는 1.1% 증가하면서 15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3.2% 감소하였고, 내수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6.7 → (12월)8.1 → ('22.1월)1.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0.8 → (12월)6.5 → ('22.1월)-3.2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6 → (12월)-0.2 → ('22.1월)1.0
- 수주액(선박제외,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3.6 → (12월)44.4 → ('22.1월)-15.4

■ 2월 수출은 미국·EU·중남미 등 주요국에서 주력산업에 대한 설비투자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며 공작기계와 건설기계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어 1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증가 폭은 많이 축소되어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1.6 → (12월)6.1 → ('22.1월)13.9 → (2월)0.9

[그림 4] 일반기계 산업 생산·수출·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산업의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세로 전환, 2월 수출은 글로벌 경기와 수요 회복에 따른 견조한 호조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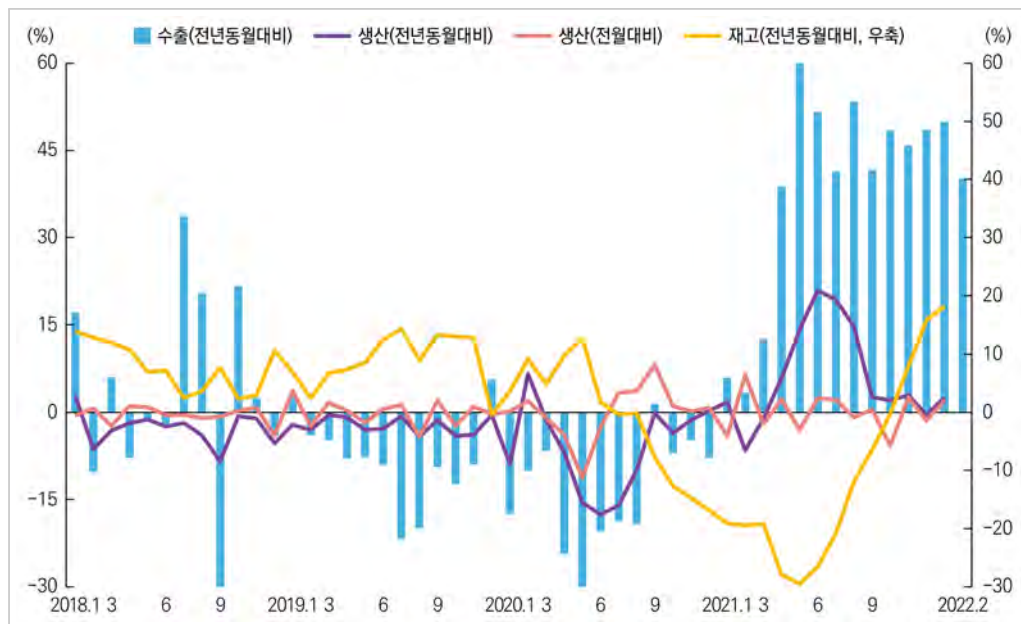
■ 자동차, 일반기계 등 전방산업의 경기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12월 잠시 주춤했던 철강 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2.6%, 2.1%로 증가세 전환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3.0 → (12월)-0.4 → ('22.1월)2.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2.6 → (12월)-1.4 → ('22.1월)2.1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8.0 → (12월)15.8 → ('22.1월)18.2

■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는 글로벌 수요와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2월 철강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0.1%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45.9 → (12월)48.6 → ('22.1월)49.9 → (2월)40.1

[그림 5] 철강 산업 생산·수출·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선 산업의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 2월 수출은 주요 선박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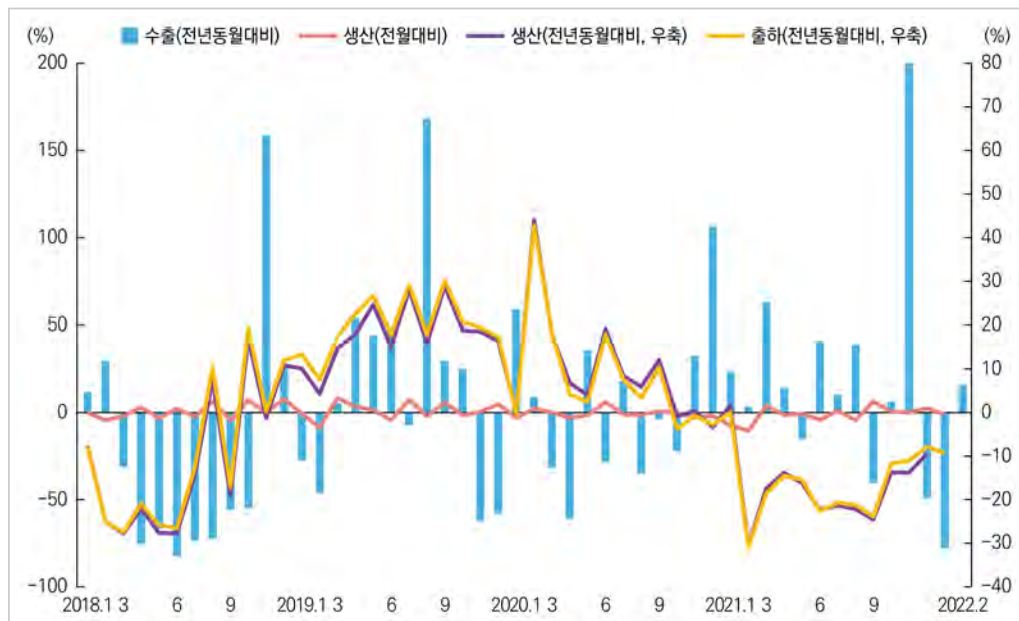
■ 1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가스 및 화학운반선 등이 17.0% 줄어 9.4% 감소하였으며, 출하도 7.7% 감소

- 1월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43.3% 증가한 138만 CGT(Compansated Gross Tonnage)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수주량 중 45.1%를 차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3.7 → (12월)-9.4 → ('22.1월)-12.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0.2 → (12월)2.5 → ('22.1월)-0.9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1.0 → (12월)-7.8 → ('22.1월)-9.3

■ 2월 중 수출(17.3억 달러)은 탱커선(4척), 컨테이너선(3척), LNG운반선(1척), LPG운반선(3척) 등이 이루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15.8%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237.7 → (12월)-49.0 → ('22.1월)-77.9 → (2월)15.8

[그림 6] 조선 산업 생산·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석유 산업의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감소하였으며,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석유 산업의 1월 생산은 벙커C유, 경유, 휘발유, 납사[※], 항공유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는 납사, 경유, 벙커C유, 등유 등의 생산은 증가한 반면 아스팔트, 휘발유 등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4.1% 감소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7.6 → (12월)7.7 → ('22.1월)4.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0.3 → (12월)0.6 → ('22.1월)-4.1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8.3 → (12월)13.2 → ('22.1월)0.4

※ 납사(또는 나프타, Naphtha): 원유를 분류할 때 30~220°C의 비등점에서 얻어지는 탄화수소의 혼합체로 석유화학제품의 주 원료

[표 3] 생산 비중 상위 5개 석유제품별 생산량, 비중,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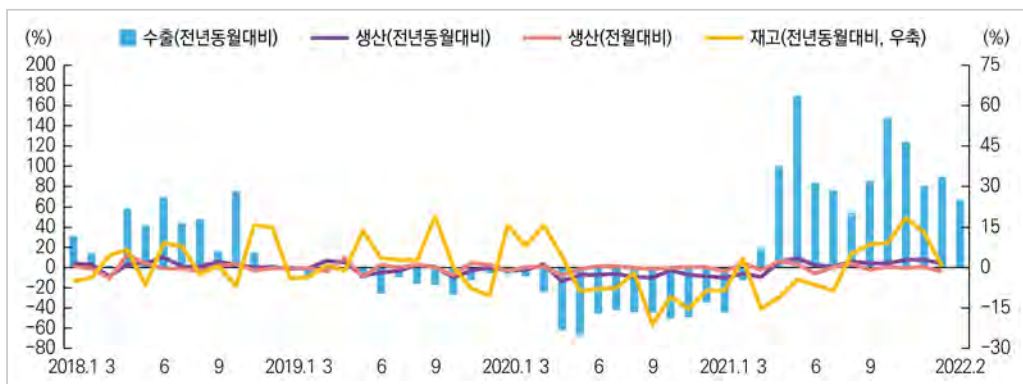
	경유	납사	휘발유	벙커C유	항공유
생산량(천Bbl)	30,287	25,812	15,107	8,249	8,117
비중(%)	28.3	24.1	14.1	7.7	7.6
전년동월대비(%)	11.4	7.2	22.9	61.6	23.5
전월대비(%)	2.2	4.7	-3.0	6.9	-0.3

자료: Petronet(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월 수출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높은 수출단가,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수출 증가세 유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6.1%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석유제품 수출단가(\$/톤): ('21.2월)541.3 → ('22.2월)724.1(전년동월대비 33.8%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23.9 → (12월)80.2 → ('22.1월)89.2 → (2월)66.1

[그림 7] 석유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섬유 산업의 1월 생산은 내수출하와 가동을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2월 수출은 글로벌 패션의류 수요회복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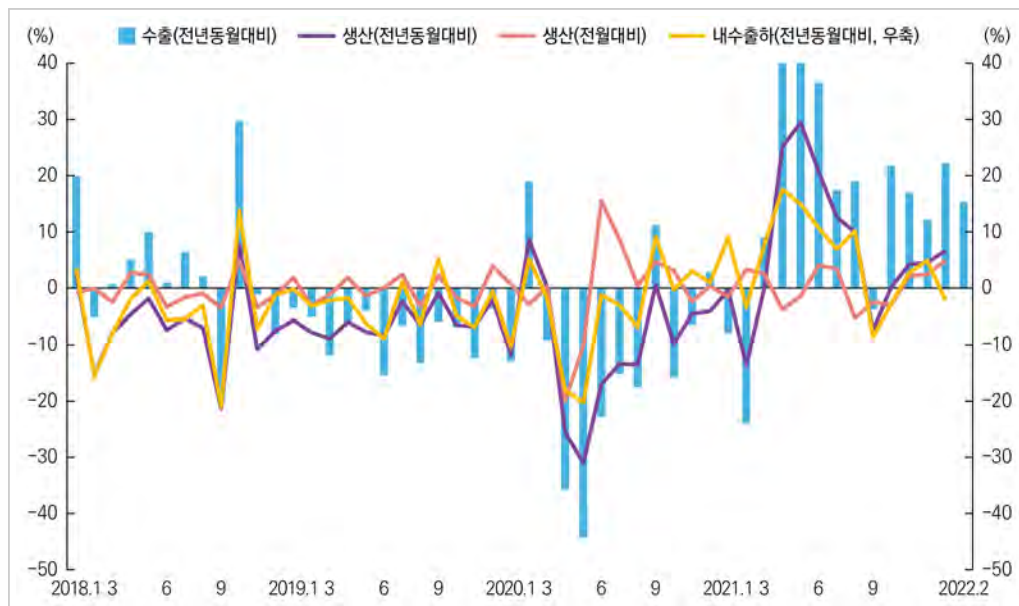
■ 섬유산업의 1월 내수출하(-2.2%)는 감소하였으나 수출(22.2%)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재고(-4.6%) 감소로 섬유제조업의 가동율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18.3%)함에 따라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6%, 전월대비 4.9%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4.2 → (12월)4.5 → ('22.1월)6.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2.2 → (12월)2.4 → ('22.1월)4.9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2.7 → (12월)4.9 → ('22.1월)-2.2

■ 2022년 2월 수출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직물의류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아세안·중국 등 주요 소싱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5.3%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6.9 → (12월)12.1 → ('22.1월)22.2 → (2월)15.3

[그림 8] 섬유 산업 생산·수출·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2월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부품을 중심으로 대중 수출이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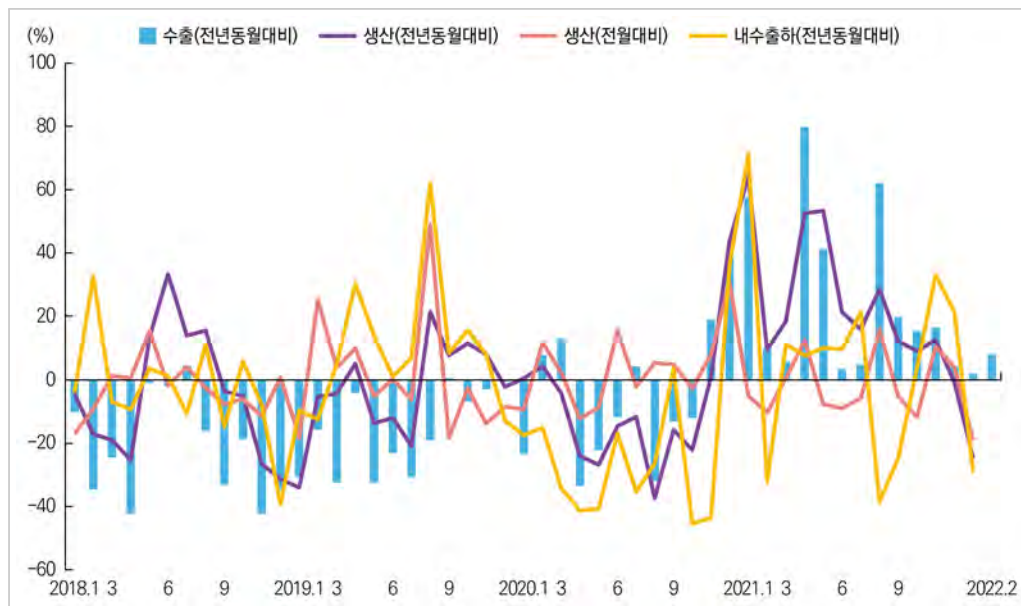
■ 1월 중 생산은 신제품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생산과 내수가 각각 24.6%, 29.2% 감소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2.7 → (12월)-0.8 → ('22.1월)-24.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10.5 → (12월)4.0 → ('22.1월)-19.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33.1 → (12월)21.4 → ('22.1월)-29.2

■ 2월 중 수출(12.7억 달러)은 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 부품에 대한 대중 수출(5.1억 달러)이 112.0% 증가하며 8.2%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6.3 → (12월)4.3 → ('22.1월)1.9 → (2월)8.2

[그림 9]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전 산업의 1월 생산은 가전제품 교체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2월 수출은 국내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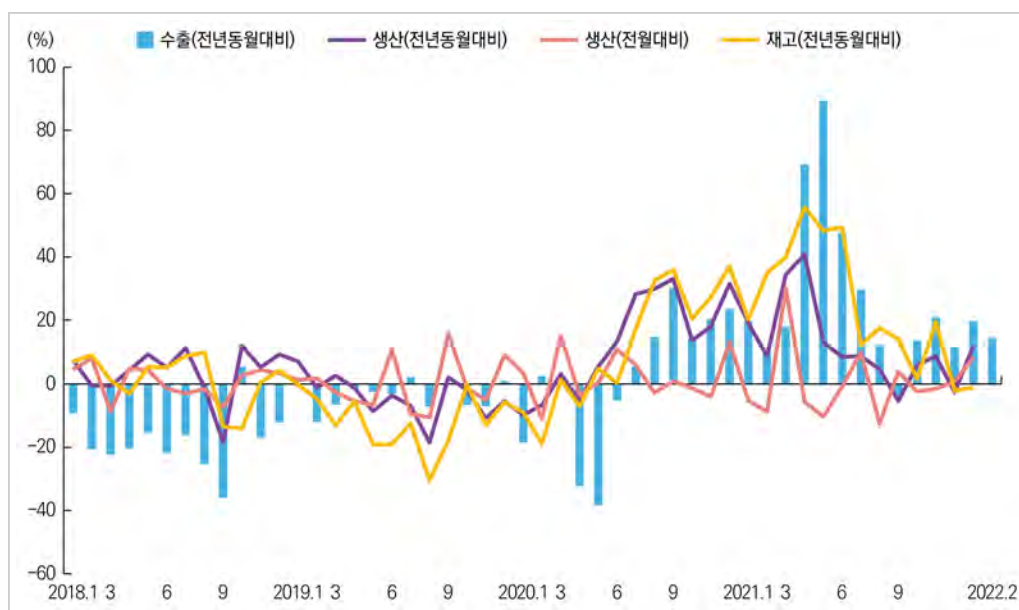
■ 1월 중 생산은 세탁기, 냉장고 등이 각각 11.9%, 29.9%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8.8 → (12월)-2.6 → ('22.1월)12.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1.5 → (12월)0.8 → ('22.1월)8.4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9.5 → (12월)-2.1 → ('22.1월)-1.1

■ 2월 중 수출(6.7억 달러)은 국내 제품에 대한 글로벌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21.9%), EU(10.4%)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4.6%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21.2 → (12월)11.6 → ('22.1월)19.7 → (2월)14.6

[그림 10] 가전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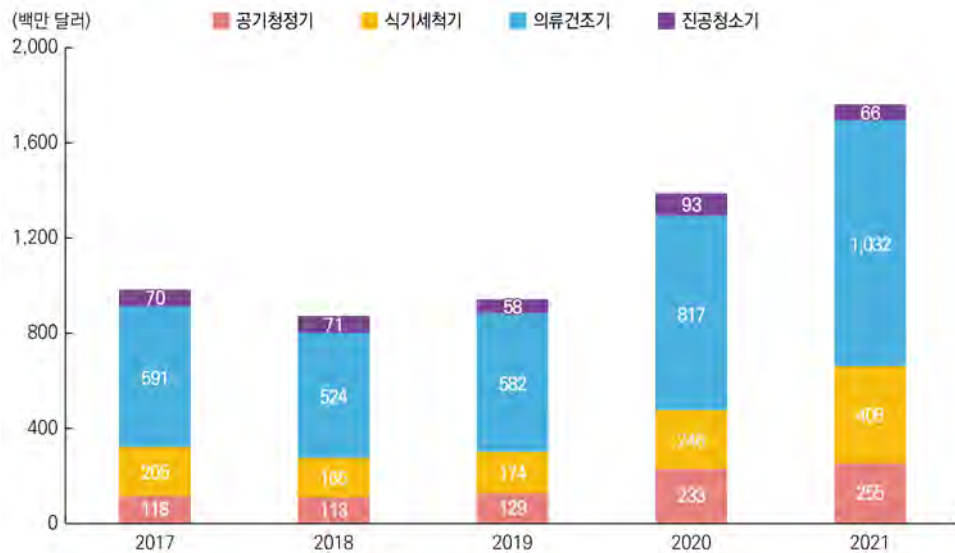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청정가전 수출 동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청정가전 수출이 증가

- 2021년 청정가전(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진공청소기) 대세계 수출은 전년대비 26.9% 증가한 17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함
 - 2021년 청정가전 부문별 수출액: 의류건조기(10억 3,200만 달러), 식기세척기(4억 8백만 달러), 공기청정기(2억 5,500만 달러), 진공청소기(6,600만 달러)

[청정가전 부문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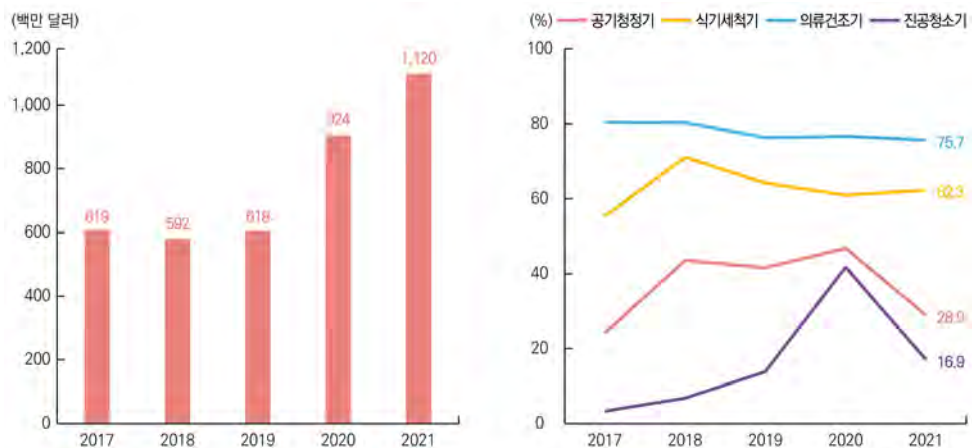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 청정가전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의류건조기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21년 대미 청정가전 수출(11억 2,000만 달러)은 전체 청정가전 수출에서 63.6%의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의류건조기가 가장 높은 75.7%의 비중을 나타냄
 - 2021년 청정가전 부문별 대미수출 비중: 의류건조기(75.7%), 식기세척기(62.3%), 공기청정기(28.9%), 진공청소기(16.9%)

[청정가전 대미수출 및 부문별 수출 비중 추이]



자료: 관세청

컴퓨터 주변장치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와 전월대비 모두 감소하였고,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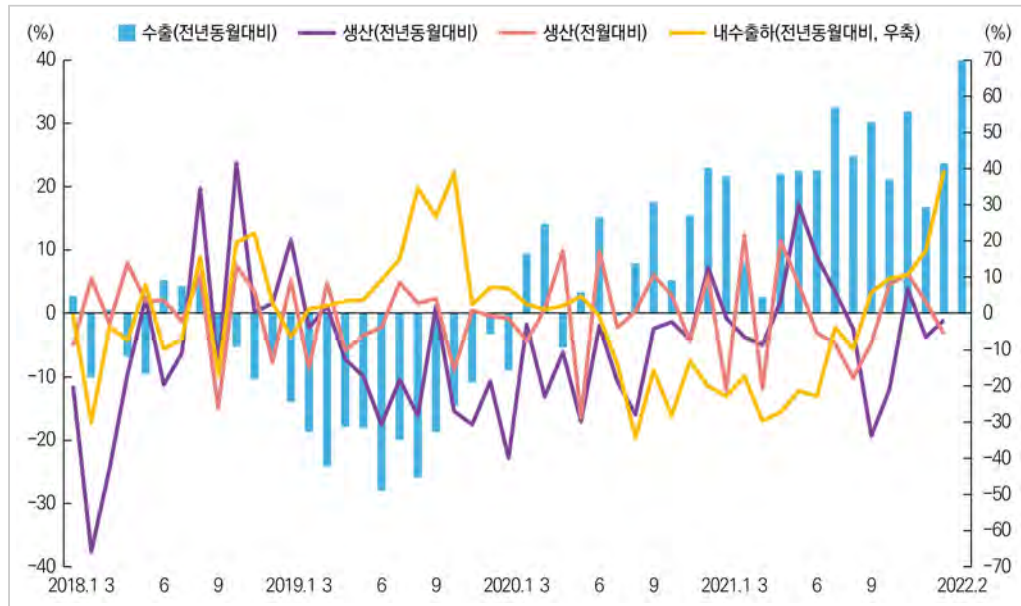
■ 부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1월 컴퓨터 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1.0% 3.2% 감소하였고, 내수출하량은 39.4%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3.8 → (12월)-3.7 → ('22.1월)-1.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6.2 → (12월)1.8 → ('22.1월)-3.2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0.6 → (12월)17.3 → ('22.1월)39.4

■ 비대면 수요의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SSD 시장의 성장세 지속과 북미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월 수출은 41.5%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31.9 → (12월)16.7 → ('22.1월)23.7 → (2월)41.5

[그림 11]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서비스업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 등에서 줄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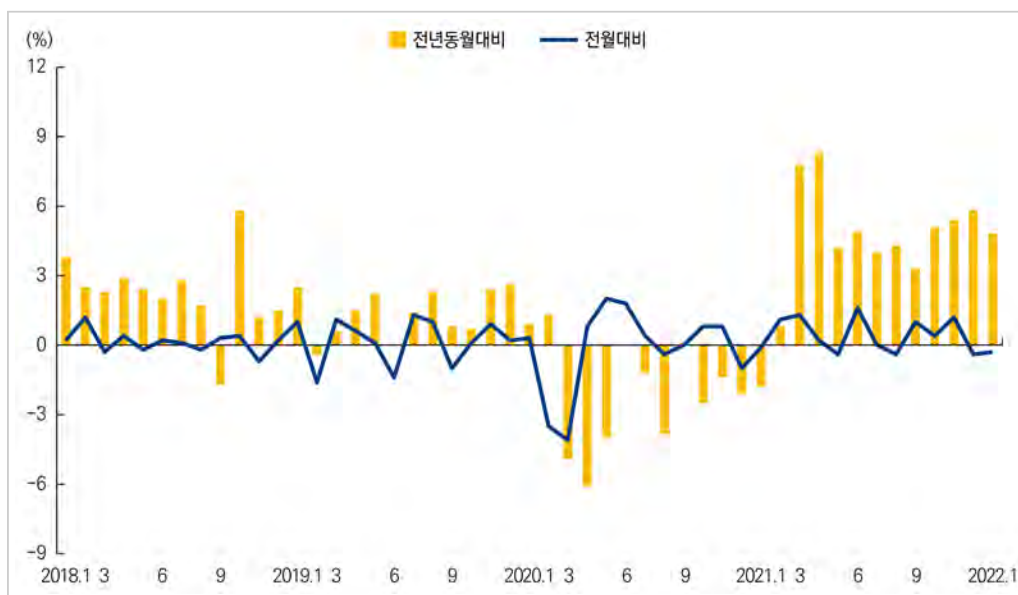
- 1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금융 및 보험(-4.9%), 부동산 및 임대(-1.3%) 등이 줄었으나, 숙박 및 음식점(37.6%), 도매 및 소매(4.5%), 교육(4.4%) 등에서 늘어 4.8%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4.8 → (12월)5.8 → ('22.1월)4.8

- 전월대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2021년 12월에 감소(-10.8%) 했던 기저효과로 2.0% 늘었으나, 금융상품 거래가 줄어 금융 및 보험 (-2.7%)이 감소하는 등에 따라 0.3%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1.2 → (12월)-0.4 → ('22.1월)-0.3

[그림 12]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0		2021			2022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8.8	116.4	104.7	114.7	123.2	109.7	-0.3
서비스업	-1.4	-2.0	-2.0	5.4	5.8	4.8	
도매 및 소매	-2.5	-1.2	-2.0	4.1	4.3	4.5	-0.1
금융 및 보험	18.3	23.7	23.8	4.7	-0.3	-4.9	-2.7
교육	-3.2	-3.3	-5.8	2.4	2.0	4.4	0.8
보건 및 사회복지	-0.6	-0.9	-0.4	4.1	5.7	5.8	0.2
숙박 및 음식점	-17.1	-39.6	-36.6	14.4	38.6	37.6	2.0
운수	-10.7	-13.2	-14.5	10.1	12.0	13.3	1.2
출판·영상·방송	0.6	0.5	0.1	8.6	8.3	7.0	0.7
전문, 과학 및 기술	-0.5	2.0	0.1	3.7	5.5	2.7	-2.5
사업시설관리지원	-11.0	-12.4	-9.2	4.7	4.7	5.1	-0.2
협화·수리·기타개인	-10.6	-12.0	-11.5	5.3	5.9	1.2	-3.1
부동산 및 임대	0.3	3.6	0.8	1.1	-3.8	-1.3	0.9
예술·스포츠·여가	-30.5	-40.2	-47.8	13.8	33.6	55.3	5.4
하수, 폐기물 처리	2.1	2.2	5.8	2.3	1.1	-2.0	-1.5

주: *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1월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 생산이 늘어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과 소매업 부문이 줄어 소폭 감소

■ 1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이 14.1% 감소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이 각각 4.1%, 9.1% 증가함에 따라 4.5%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4.1 → (12월)4.3 → ('22.1월)4.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 생산은 국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과 일부 공장의 휴업²⁾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 도매업 부문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건축자재 및 기계장비 관련 도매업이 각각 8.0%, 1.5%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도매업과 생활용품 도매업 등이 각각 15.7%, 8.0% 증가함에 따라 4.1% 증가
- 소매업 부문 생산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면세점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상인들의 방문이 줄어든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면세점이 18.2%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소매업과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등이 각각 33.7%, 24.9% 증가함에 따라 9.1% 증가

■ 전월대비로는 도매업이 보험세를 나타냈으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과 소매업 부문이 각각 0.7%, 0.2% 감소함에 따라 0.1% 감소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0.8 → (12월)0.6 → ('22.1월)-0.1
- 자동차 및 부품 부문 생산은 전월대비 자동차 부품 및 이륜차 판매업이 10.5%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판매업이 7.2% 감소함에 따라 0.7% 감소
- 도매업 부문 생산은 전월대비 건축자재 및 기계장비 관련 도매업이 각각 1.4%, 3.3%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도매업과 생활용품 도매업 등이 각각 0.3%, 1.6% 증가함에 따라 보험세를 기록
- 소매업 부문 생산은 전월대비 음·식료품 소매업이 10.2% 증가하였으나,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과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등이 각각 3.7%, 7.4% 감소함에 따라 0.2% 감소

[그림 13]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현대) 아산공장 2021.12.31~2022.2.6, (한국GM) 창원공장 2021.10~2022.1.16, 부평1공장 2021.12.20~2022.1.12

1월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함

■ 1월 중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금융업, 보험업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6.8%, 4.5%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에서 34.2%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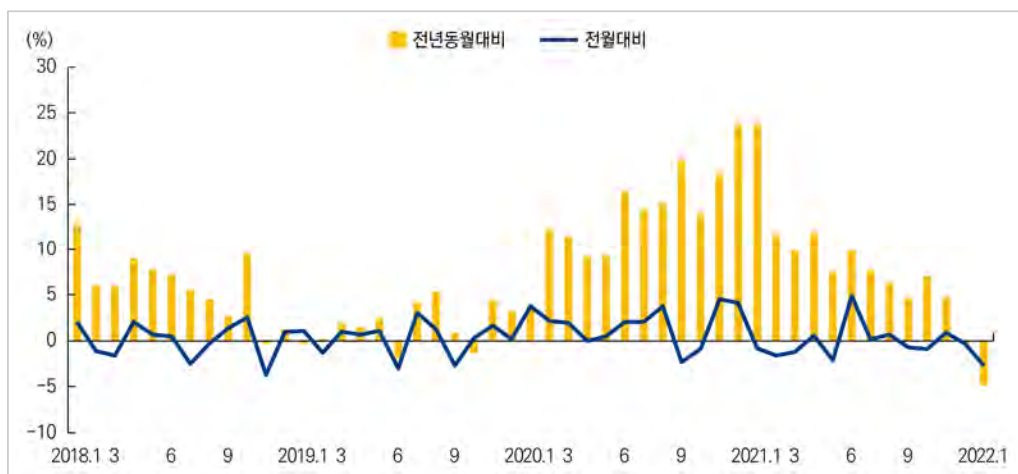
- 세부 부문 중 공제업,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금융리스업 부문에서 각각 전년동월대비 24.2%, 17.1%, 15.0% 증가하였으나, 세분류로 증권 및 선물 중개업을 포함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 부문에서 35.4% 크게 감소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4.7 → (12월)-0.3 → ('22.1월)-4.9
- KRX 상장주식 거래량(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39.0 → (12월)-47.1 → ('22.1월)-48.1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관련 서비스활동을 포함하며, 소분류에 금융 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세분류에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등을 포함

■ 전월대비로는 보험업 부문에서 2.6%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부문에서 각각 13.0%, 0.7% 감소하여 2.7% 감소함

- 세부 부문 중 공제업 부문에서 29.0%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세분류로 증권 및 선물 중개업을 포함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 부문에서 13.8% 감소함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0.9 → (12월)-0.3 → ('22.1월)-2.7
- KRX 상장주식 거래량(주) 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3.9 → (12월)-11.1 → ('22.1월)-1.8

[그림 14]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월 교육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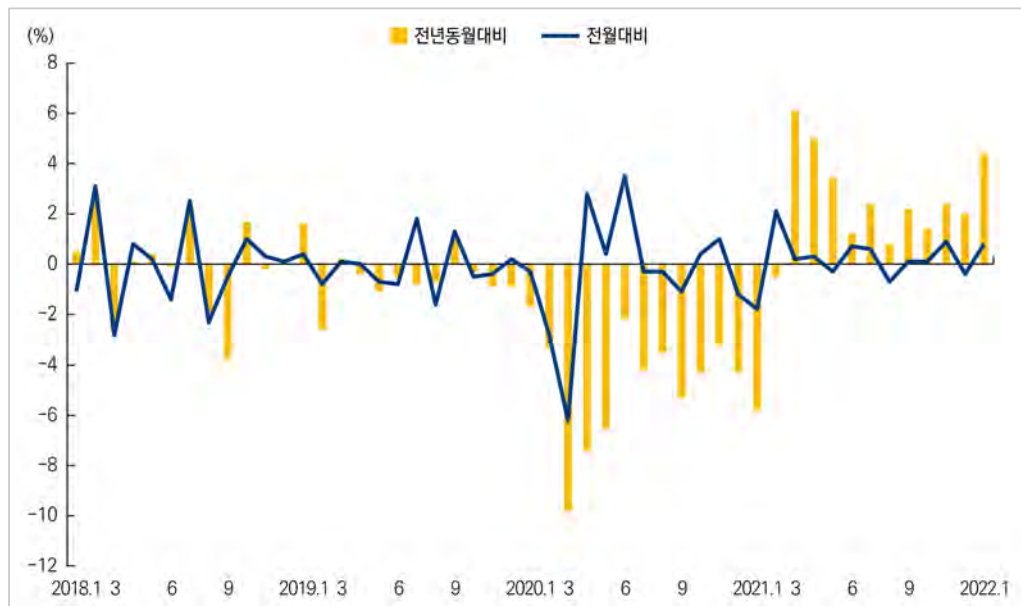
■ 1월 중 교육 서비스업 생산은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은 각각 1.3%, 2.0% 감소하였으나, 초등교육기관이 1.9% 증가하고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의 기저효과로 학원이 전년동월대비 20.6% 증가함에 따라 4.4%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2.4 → (12월)2.0 → ('21.1월)4.4

■ 전월대비로는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은 각각 0.2%, 0.2% 감소하였으나, 비중이 가장 큰 초등교육기관이 0.2% 증가함에 따라 0.8% 증가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0.9 → (12월)-0.4 → ('21.1월)0.8

[그림 15] 교육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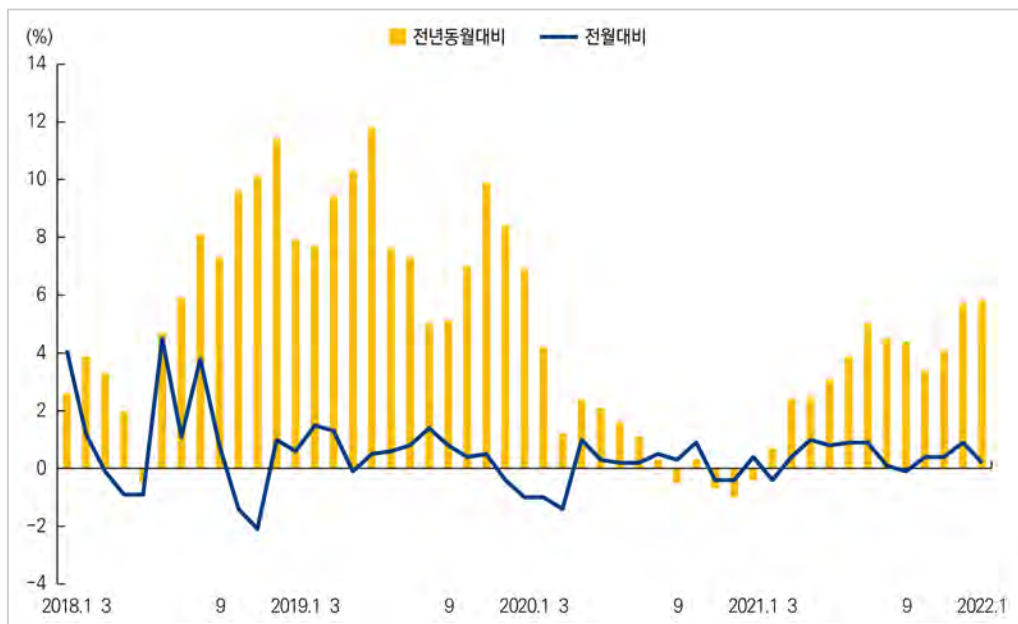
- 1월 중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병원(7.1%)과 의원(5.6%)의 생산이 증가하여 보건업의 생산이 6.0% 증가하였고, 거주복지시설(2.8%)과 비거주복지시설(4.8%)의 생산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도 4.3% 증가함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8%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4.1 → (12월)5.7 → ('21.1월)5.8

- 전월대비로는 병원(0.3%)과 의원(0.2%)의 생산이 소폭 증가하여 보건업 생산은 0.2% 증가하였고, 거주복지시설(0.1%)과 비거주복지시설(0.2%)의 생산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0.1%)도 증가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생산이 0.2% 증가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0.4 → (12월)0.9 → ('21.1월)0.2

[그림 16] 보건 및 사회복지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인하여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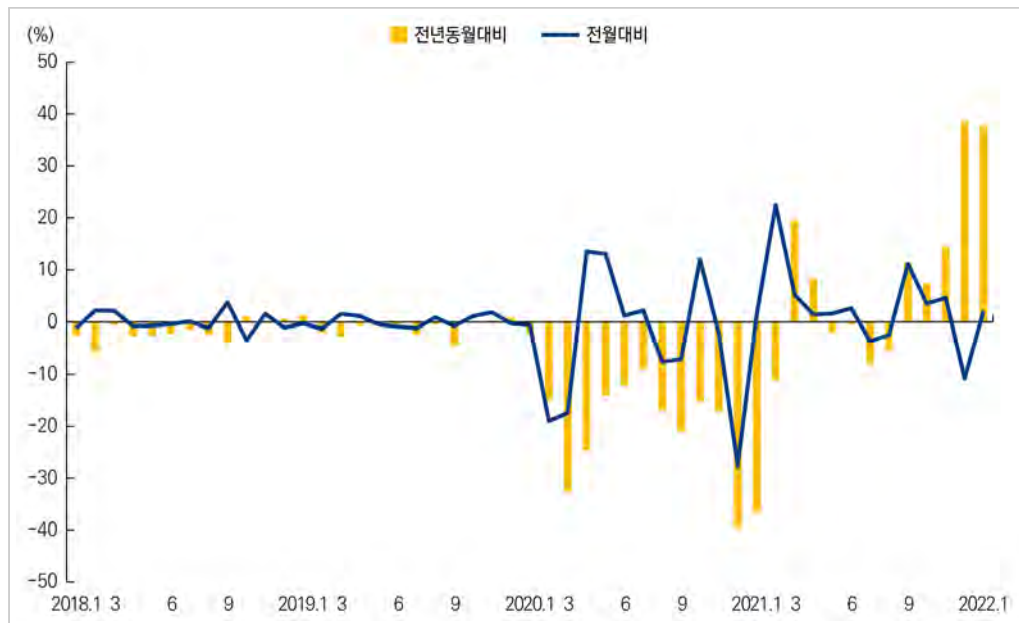
■ 1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7.6% 증가하였는데, 숙박업 부문에서는 45.0%,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에서는 36.7% 증가

-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외국식 음식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58.5%, 69.6%, 44.1%, 48.8%로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특히 주점업 부문은 71.8%로 크게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1월)14.4 → (12월)38.6 → ('22.1월)37.6

■ 1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전월대비 2.0% 증가하였는데, 숙박업 부문에서는 1.5%,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에서는 2.2% 증가

- 세부 부문 중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문은 전월대비 3.0% 감소한 반면, 음식점업 부문은 3.8% 증가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1월)4.6 → (12월)-10.8 → ('22.1월)2.0

[그림 17]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2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고, 특히, 석유는 2014년 9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함

■ 원유 가격은 배럴당 93.5달러로 전월대비 11.5%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54.7% 상승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원유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였음
-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14.9월)95.9 → ('21.12월)72.9 → ('22.1월)83.9 → (2월)93.5

■ 석탄 가격³⁾은 톤당 231.4달러로 전월대비 17.5%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70.7% 크게 상승함

- 국제유가 상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의 석탄 공급 차질 우려등으로 석탄 가격이 급등하여, 2022년 3월 첫째 주에는 주간 평균 톤당 359.8달러까지 치솟음
- 석탄 가격(달러/톤): ('21.2월)85.5 → (12월)163.3 → ('22.1월)196.9 → (2월)2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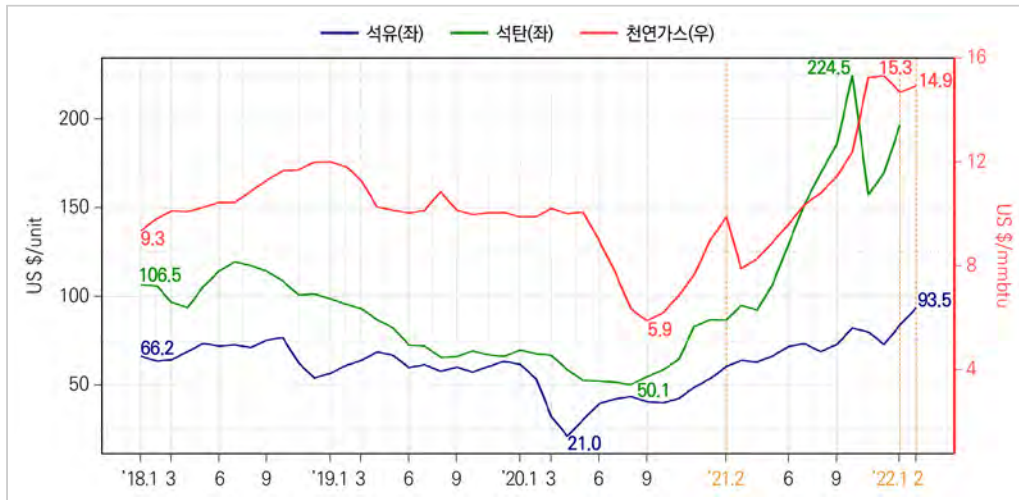
■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14.9달러로 전월대비 1.7%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51.2% 상승함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7.5% 상승한 반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3.6%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8.0% 하락한 반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342.1% 크게 상승함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21.12월)15.3 → ('22.1월)14.7 → (2월)14.9

※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3)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서 '22.2월 석탄 가격[Coal(Australia), port thermal, fo.b. Newcastle, 6000 kcal/kg spot price]은 제공하지 않아, '21.2월, 12월, '22.1월, 2월 가격은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서 제공하는 석탄 가격(연료탄, 호주 뉴캐슬 FOB기준, ICE기준, 선물가)을 참조함.

[그림 18]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1.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2.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서 '22.2월 석탄 가격[Coal(Australia, port thermal, fo.b. Newcastle, 6000 kcal/kg spot price)]은 제공하지 않음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월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모두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귀금속 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함

■ 농산물, 식품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4.5%, 5.7%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각각 18.4%, 21.0% 상승함

- 농산물 및 식품 중 팜유, 야자핵유, 대두, 대두유, 대두분이 전월대비 각각 13.2%, 11.2%, 9.1%, 8.6%, 8.2%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야자핵유, 커피(Arabica), 닭고기, 팜유, 커피(Robusta) 등의 가격이 각각 79.7%, 68.1%, 56.6%, 49.3%, 49.1% 크게 상승함
- 특히 팜유는 글로벌 수입 수요 증가와 함께, 전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급등한 식용유 가격을 이유로 2022년 1월 24일부터 6개월간 팜유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함
- 농산물 지수: ('21.12월)113.9 → ('22.1월)118.5 → (2월)123.9
- 식품 지수: ('21.12월)127.3 → ('22.1월)133.6 → (2월)141.1

■ 금속·광물 지수는 전월대비 4.7%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23.3%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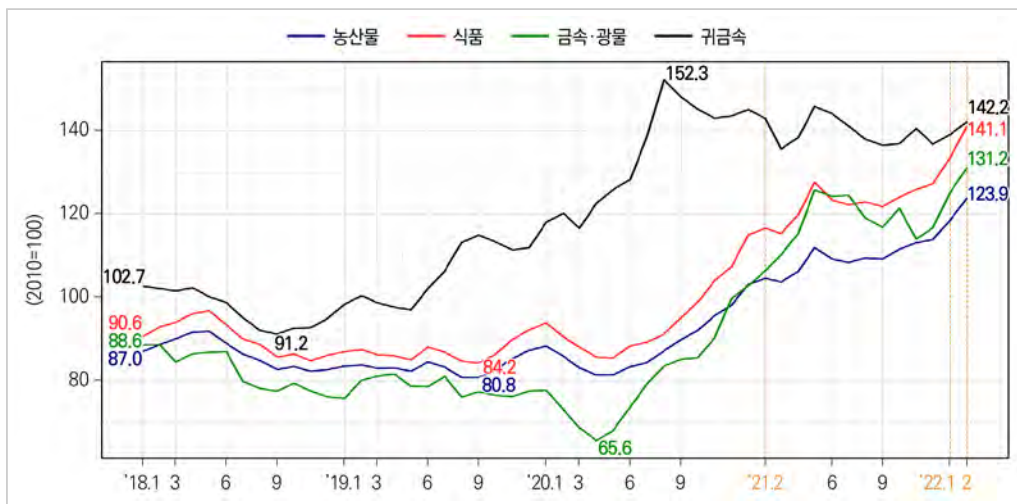
- 알루미늄, 철광석, 니켈, 주석은 전월대비 각각 8.0%, 7.8%, 7.4%, 5.2% 상승함
- 호주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중국의 조강 생산 재개에 따른 수요 확대 전망 등으로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였고, 니켈은 글로벌 재고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중국 전기차 시장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가격이 상승함

- 전년동월대비 철광석은 12.8% 하락한 반면, 나머지 주석, 알루미늄, 아연, 니켈, 구리, 납은 각각 67.1%, 56.2%, 31.9%, 29.2%, 17.4%, 10.4% 상승함
- 금속·광물 지수: ('21.12월)116.7 → ('22.1월)125.2 → (2월)131.18

■ 귀금속 지수는 금, 백금, 은의 가격이 모두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전월대비 2.2% 상승한 반면, 전년동월대비로는 0.6% 소폭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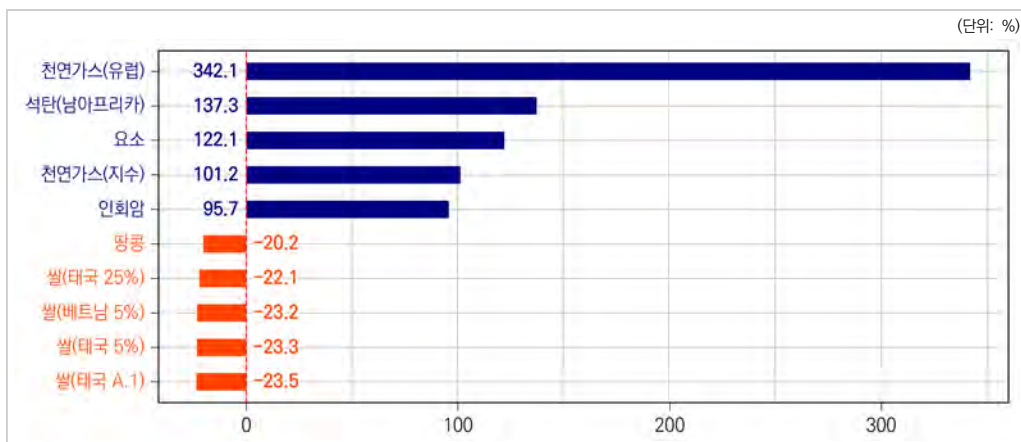
- 금, 백금, 그리고 은의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2.2%, 5.6%, 1.7% 상승함
- 귀금속 지수: ('21.12월)136.8 → ('22.1월)139.1 → (2월)142.2

[그림 19]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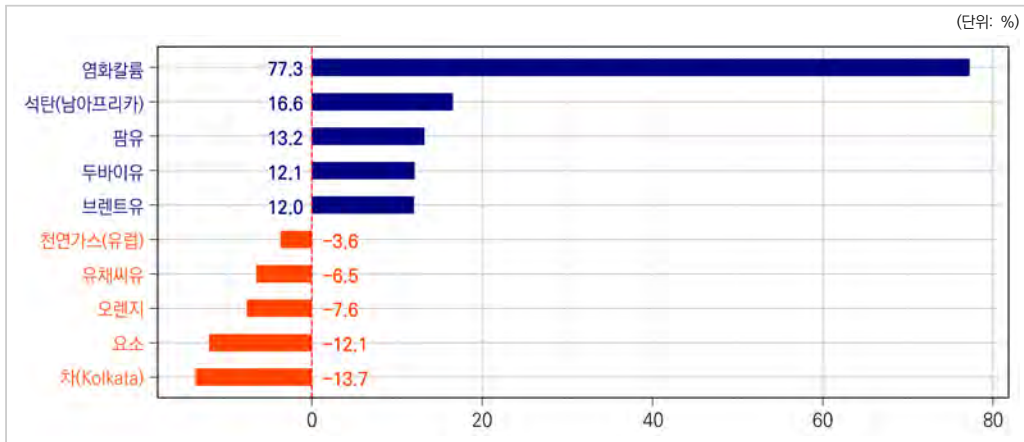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림 20]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상·하위 5개 에너지 및 원자재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림 3[그림 21] 전월대비 증감률 상·하위 5개 에너지 및 원자재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및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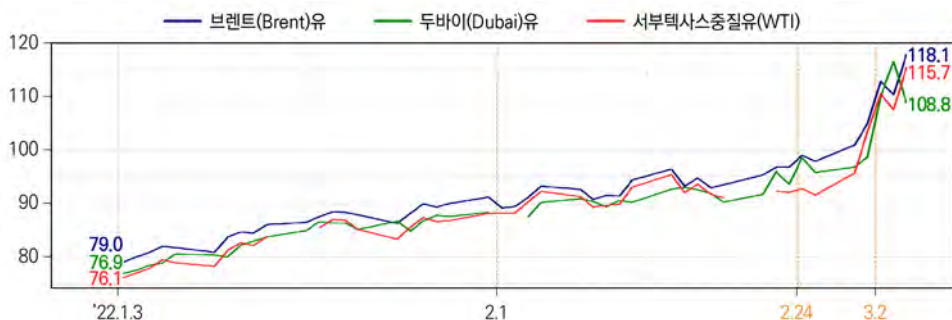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유, 옥수수, 밀 등 2월 에너지,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2.24.)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공급 차질 우려로 브렌트(Brent)유, 두바이(Dubai)유, 서부텍사스중질유(WTI) 등의 가격이 급등함
 - 제26차 OPEC+회의(22.3.2.)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급 차질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유지해온 매일 40만 배럴 증산(감산완화) 계획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원유 가격이 더욱 상승함
 - 브렌트(Brent)유 가격(달러/배럴): (21.12월)74.3 → (22.1월)85.5 → (2월)95.8 → (22.3.4.)118.1
 - 두바이(Dubai)유 가격(달러/배럴): (21.12월)72.8 → (22.1월)83.1 → (2월)93.1 → (22.3.4.)108.8
 -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달러/배럴): (21.12월)71.5 → (22.1월)83.1 → (2월)91.7 → (22.3.4.)115.7

4) OPEC, "26th OPEC and non-OPEC Ministerial Meeting concludes"(2022.3.2.).

[최근 국제 원유 가격 추이]

(단위: 달러/배럴/일)



자료: Petronet(한국석유공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22년 2월 곡물 가격지수⁵⁾는 전월대비 3.0% 상승한 144.8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밀과 옥수수는 흑해 지역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수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함
 - FAO 곡물 가격지수: ('21.12월)140.5 → ('22.1월)140.6 → (2월)144.8
 - 밀 가격(달러/톤): ('21.12월)376.8 → ('22.1월)374.2 → (2월)390.5
 - 옥수수 가격(달러/톤): ('21.12월)264.5 → ('22.1월)276.6 → (2월)292.6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차질 및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중 에너지 수입이 70% 이상을 차지하여, 미국과 EU 등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해 수출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이 우려됨
 -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대(對)세계] 중 러시아 비중(2021년): 나프타(23.4%, 1위), 원유(6.4%, 4위), 유연탄(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⁶⁾
- 러시아는 국제 원유 수출의 약 11%(743만 배럴/일, '20년 기준)를 차지하여, 수출 제재로 국제 원유 수출 물량이 더욱 축소될 경우, 국제 유가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⁷⁾
- 국내 밀·옥수수 연간 수입량('19~'21년간 평균 1,540만 톤)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산(産)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⁸⁾
 - 정부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사료용 밀은 7월 초순, 사료용 옥수수는 6월 초순까지 소요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및 사료곡물 대체원료 할당물량 증량 등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5) FAO, FAO Food Price Index(2022.3.4.).

6) 김꽃별·조익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기업 영향", 「TRADE BRIEF」, No.2(2022.2.18.).

7)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우크라이나 위기의 국내 에너지수급 영향 대비", 「보도 자료」(2022.2.15.);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국내 에너지수급영향」(2022.2.15.).

8) 농림축산식품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대비, 곡물 분야 영향 긴급 점검 및 대응조치 준비", 「보도참고자료」(2022.2.23.).

나. 국내 에너지 수요

2021년 12월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과 수송 부문에서 석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모든 에너지원·부문에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증가함

■ 에너지원별로는 석유, 전력, 액화천연가스(LNG), 부문별로는 수송, 공공,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함

- 석유 소비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석탄, 신재생 및 기타, 열, 도시가스 소비가 감소함
- 가정·상업 부문에서 최종에너지 소비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나머지 산업, 수송, 공공 부문에서 소비가 증가함
- 에너지원별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석유(16.0, 7.22), 전력(4.9, 0.91), LNG(0.5, 0.01), 열(-2.2, -0.05), 도시가스(-0.7, -0.11), 신재생 및 기타(-4.52, -0.16), 석탄(-3.8, -0.52)
- 부문별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산업(8.1, 4.72), 수송(14.9, 2.32), 공공(12.1, 0.30), 가정·상업(-0.2, -0.04)

■ 전월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는 모든 에너지원·부문에서 증가하였는데, 특히 산업과 수송 부문에서 석유 소비가, 가정 부문에서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석유, 열 소비가 많이 증가함

- 전월대비 모든 에너지원의 최종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열, 도시가스의 소비가 각각 74.3%, 42.8% 큰 폭으로 증가함
- 전월대비 모든 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정·상업, 공공 부문의 소비가 각각 41.1%, 30.9% 큰 폭으로 증가함
- 에너지원별 소비 전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석유(14.2, 7.02), 도시가스(42.8, 4.76), 전력(10.3, 1.95), 열(74.3, 1.08), LNG(24.3, 0.34), 신재생 및 기타(7.1, 0.27), 석탄(0.1, 0.02)
- 부문별 소비 전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가정·상업(41.1, 7.36), 산업(7.7, 4.85), 수송(15.0, 2.52), 공공(30.9, 0.69)

※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표 5]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2018	2019	2020	2021 ^P				
				12월	11월	12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33,368	231,353	222,563	21,018	19,538	22,551	7.3	15.4
전년동기대비	1.0	-0.9	-3.8	-2.7	6.1	7.3		
석탄	32,480	32,057	30,457	2,853	2,741	2,744	-3.8	0.1
석유	116,831	116,125	109,344	9,502	9,648	11,019	16.0	14.2
액화천연가스	2,038	2,909	3,602	334	270	335	0.5	24.3
도시가스	24,979	23,943	23,100	3,127	2,174	3,104	-0.7	42.8
전력	45,249	44,763	43,797	3,872	3,683	4,064	4.9	10.3
열	2,682	2,647	2,770	505	283	494	-2.2	74.3
신재생 및 기타	9,110	8,910	9,493	825	738	791	-4.2	7.1

주: 2021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표 6]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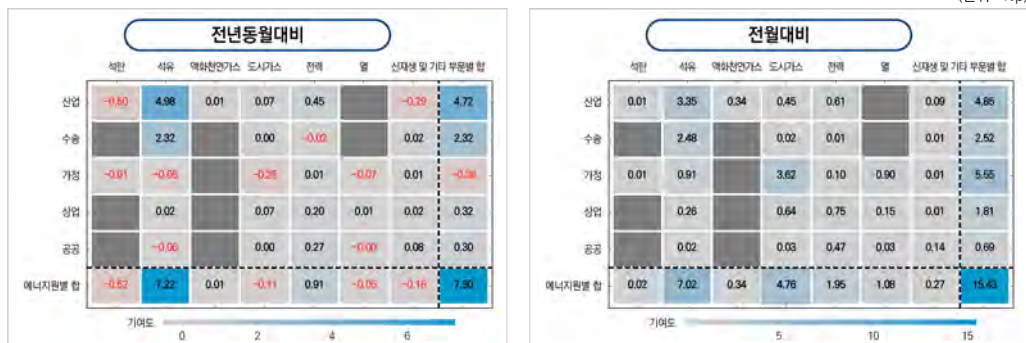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P				
				12월	11월	12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33,368	231,353	222,563	21,018	19,538	22,551	7.3	15.4
전년동기대비	1.0	-0.9	-3.8	-2.7	6.1	7.3		
산업	143,498	142,903	137,964	12,277	12,321	13,269	8.1	7.7
수송	42,969	42,996	39,436	3,286	3,282	3,774	14.9	15.0
가정·상업	41,334	40,056	39,912	4,942	3,496	4,934	-0.2	41.1
공공	5,567	5,399	5,251	512	439	574	12.1	30.9

주: 2021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그림 22] 최종에너지 소비 기여도 행렬

(단위: %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다. 전력수급 동향

2월은 평년대비 낮은 기온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으나 석탄, 가스, 유류화력 연료비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2월 공급예비력 12.7GW, 전력공급예비율 14.5%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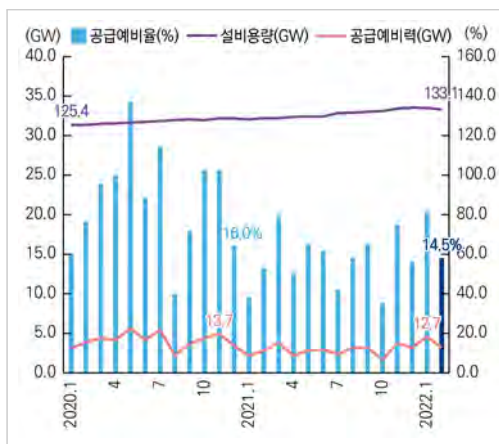
- 발전설비용량은 133.1GW로 전년동월대비 3.3% 증가
- 2월 전국의 평균기온은 -0.1℃로 평년기온(1.2℃)과 비교하여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했으나, 최대 전력(87.3GW)은 전년동월(84.7GW)대비 높아짐

※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 2월 에너지원별 화력 발전의 연료비 단가가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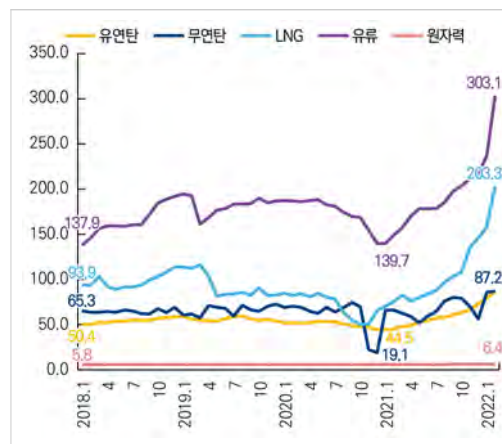
- 석탄발전 연료비 단가는 87.1원/kWh로 전월대비 9.8%, 전년동월대비 91.9% 상승했으며, 가스(LNG)발전 연료비단가는 203.31원/kWh로 전월대비 28.6%, 전년동월대비 167.5% 상승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월 137.4원, 2월 160.6원으로 최근 연료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 생산비용이 전기의 소비자가보다 높아짐

[그림 23] 월별 발전설비용량 및 전력공급예비율



자료: 전력거래소

[그림 24]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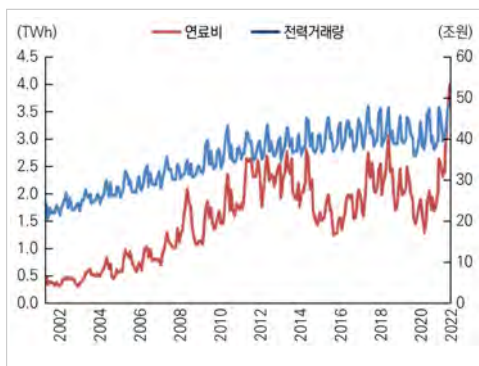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발전용 연료비 상승에 따른 발전공기업의 재무]

■ 전력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한 반면 연료비는 국제에너지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큰 편이며, 최근 발전용 연료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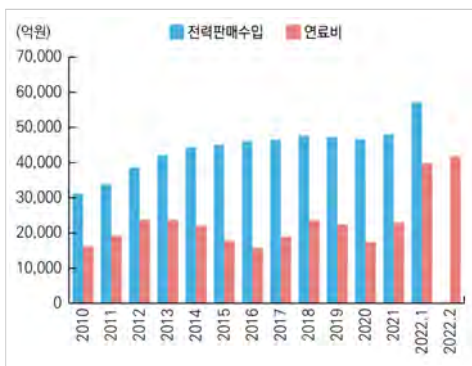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 발전용 연료비는 2.2조원이었으나, 2022년 1월과 2월의 발전용 연료비는 각각 4.0조원과 4.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2010년 이후 월평균 연료비는 1.6~2.4조원으로 전력판매수입의 34.0~61.6%
 - 금년 1월 발전용 연료비는 한국전력 전력판매수입은 69.7% 상당으로 예상

[월별 전력거래량과 연료비]



자료: 전력거래소

[월평균 전력판매수입과 연료비]



자료: 전력통계속보(전력판매수입)

■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전력판매수입 대비 연료비에 크게 달라지므로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2021년에 이어 최대 영업이익 적자가 예상됨

- 2015년 이후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은 2018, 2019, 2021년에 적자를 기록했으며, 당시 전력판매수입 대비 연료비 비율은 40% 후반으로 나타남
 - 다만, 공기업인 한국전력 영업이익은 경영·정책 상의 다양한 요인에 기반하므로 연료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음
- 최근의 높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유지될 경우 2022년 한국전력의 적자는 2021년보다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전기요금의 연료비연동제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한국전력 영업이익과 전력판매수입 대비 연료비 비]

(단위: %, 조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판매수입 대비 연료비	39.7	34.0	40.8	49.6	47.6	37.3	47.8
영업이익	11.3	12.0	4.9	-0.2	-1.3	4.1	-5.8

자료 : 한국전력 사업보고서(영업이익), 전력거래소(연료비)

2월 전력거래량은 역대 2월 중 가장 많았으며 원자력과 석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한 반면 유류발전은 감소

■ 총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7.6% 증가했으며, 전월대비 발전량은 계절적 요인을 포함하여 12.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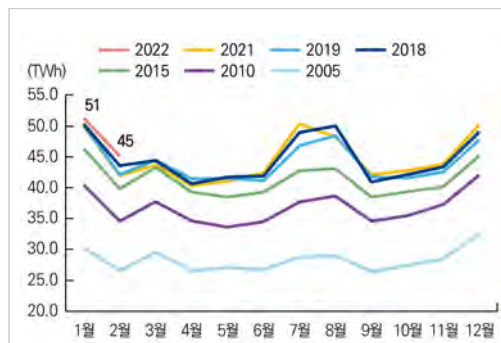
- 2월 총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역대 2월 중 가장 많은 전력수요를 기록

※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 34.2%, 가스 29.6%, 원자력 29.5%,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5.7%로, 원자력발전은 30% 내외의 비중을 유지하며 석탄과 가스발전량이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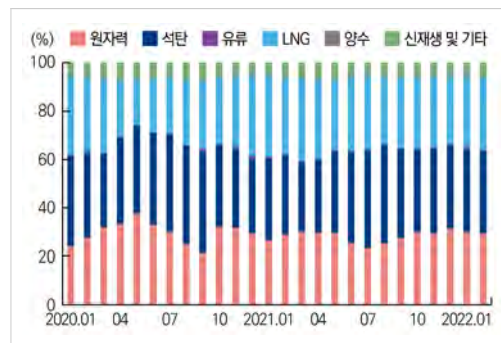
-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원자력과 석탄,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9.7%, 11.6%, 15.1% 증가했으나 유류발전은 8.2% 감소

[그림 25]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그림 26]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자료: 전력거래소

2월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은 태양광 발전량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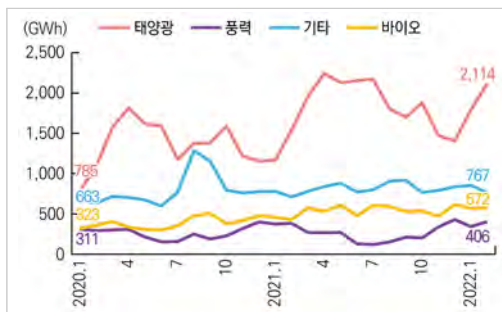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25.8%, 전월대비 8.4% 증가

- 태양광 발전량이 전년동월대비 572GWh, 37.1% 증가하여 전체 증가분의 72.3%를 담당했으며, 바이오에너지는 142GWh, 풍력은 21GWh 증가

■ 2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현물시장가격은 56,074원/REC로 전년동월대비 39.5%, 전월대비로는 21.3% 상승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량은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0.4%)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61% 증가

[그림 27]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자료: 전력거래소

[그림 28]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자료: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통합포털

2022년 1월 전력수요는 산업부문 전력수요와 난방수요 상승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2.1% 증가했는데, 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수요가 4.8% 상승했기 때문

- 가정부문과 서비스부문 전력수요는 양호한 기온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각각 1.2%와 0.4% 감소했으며, 공공부문 수요는 0.5% 상승에 그침

■ 전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난방수요 증가로 인해 5.4% 증가

- 서비스부문(6.0%), 가정부문(10.3%), 공공부문(10.7%)의 수요 증가가 컸으며, 산업부문 전력수요는 총 전력수요 증가율 5.4%보다 낮은 3.3%를 기록

[표 7] 부문별 전력수요

	2019	2020	2021p	(단위: GWh, %)				
				1월	12월	2022p 1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20,499	509,270	533,431	48,756	47,251	49,802	2.1	5.4
전년동기대비	-1.1	-2.2	4.7	5.2	4.9	2.1		
가정부문	70,455	74,073	77,558	6,940	6,218	6,860	-1.2	10.3
공공부문	24,458	23,623	25,026	2,626	2,385	2,639	0.5	10.7
서비스부문	145,816	142,881	148,315	14,695	13,800	14,629	-0.4	6.0
산업부문	283,705	268,692	281,532	24,495	24,848	25,674	4.8	3.3

주 :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1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전력통계속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4. 고용

2월 중 고용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전체 취업자 수가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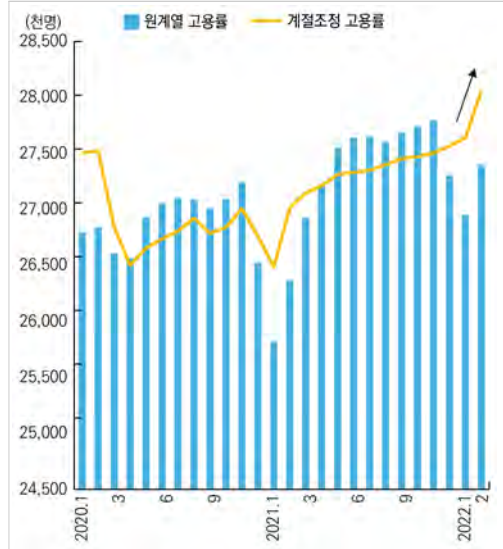
■ 2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와 수출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

- 2월 중 전체 취업자 수(2,740.2만명)는 전년동월대비 103.7만명(3.9%) 늘며 전월(113.5만 명, 4.4%)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가 유지됨
- 전체 취업자수의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폭도 41.7만명으로 전월(6.8만명)에 비해 큰 확대되며 뚜렷한 개선세를 나타냄
-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1월 21.5만명 → 2월 228.9만명)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1월 -5.6만 → 2월 -4.7만), 개인서비스업(1월 -2.1만 → 2월 -3.2만)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주요 업종에서 전월의 개선세가 지속되고, 제조업(3.2만명)과 건설업(6.5만명)에서도 증가세가 유지됨

[그림 29] 코로나19 확진자수와 대면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



[그림 30] 월별 전체 취업자수 추이



주: 1)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 창고업 등을 포함

2) 전체 취업자수는 계절조정치 기준

자료: 통계청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계절조정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며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며 계절조정 실업률이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

- 실업률(계절조정, %): ('21.12월)3.8 → ('22.1월)3.6 → (2월)2.7
- 경제활동참가율(계절조정, %): ('21.12월)63.4 → ('22.1월)63.4 → (2월)63.8
- 경제활동인구(계절조정 전월대비, 만명): ('21.12월)25.3 → ('22.1월)2.8 → (2월)15.9

[그림 31]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자료:

자료: 통계청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양호한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

- 1월 중 원계열 고용률은 60.6%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하며 전월(2.2%p)보다 증가폭이 소폭 둔화되었으나 개선세가 지속되었고, 계절조정 고용률은 62.1%로 전월대비 0.9%p 상승하여 전월(0.2%p)보다 증가폭 확대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4%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남자는 75.8%(전년동월대비 2.1%p 상승), 여자는 58.7%(전년동월대비 2.9%p 상승)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모두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서비스업은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

■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5만 명 증가하여 13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5.7 → (10월)5.2 → (11월)1.6 → (12월)4.0 → ('22.1월)10.0 → (2월)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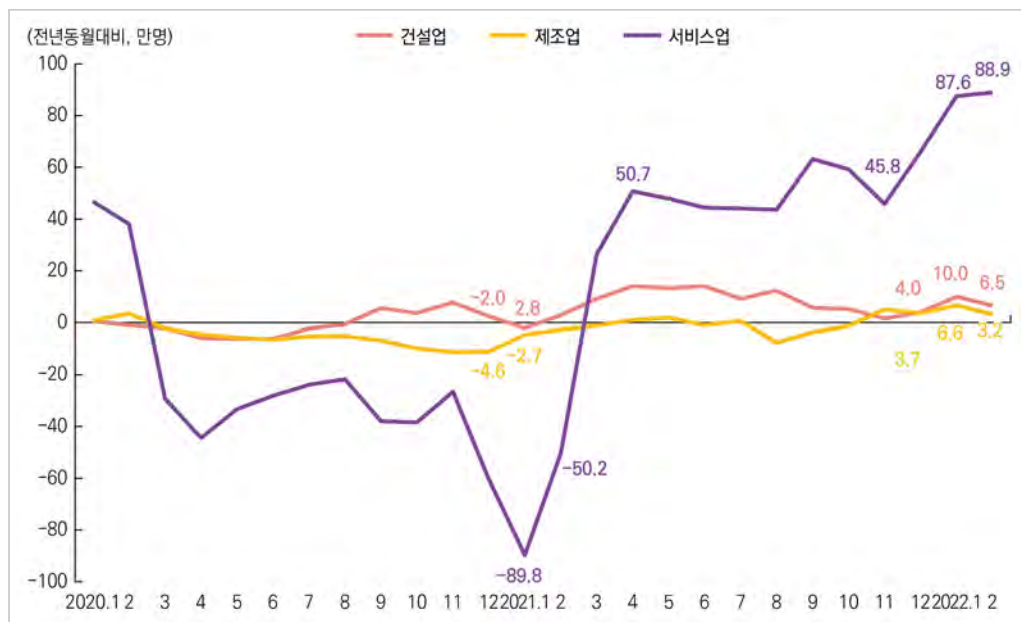
■ 제조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2021년 11월에 증가 전환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3.7 → (10월)-1.3 → (11월)5.1 → (12월)3.7 → ('22.1월)6.6 → (2월)3.2

■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2021년 2월)의 고용상황 개선으로 기저효과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8.9만 명 증가를 기록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63.2 → (10월)59.2 → (11월)45.8 → (12월)66.0 → ('22.1월)87.6 → (2월)88.9
- 지난해 1월의 저점 이후 서비스업의 고용상황이 개선('21.1월 -89.8만 명 → 2월 -50.2만 명)되어 기저효과가 약화되었음에도 취업자 수 증가세는 소폭 확대
- 보건·복지업(+25.4만 명)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업 +10.5만 명, 운수·창고업 +13.5만 명, 정보통신업 +12.8만 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증가
- 다만, 도소매업(-4.7만 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3.2만 명)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의 어려움은 지속

[그림 3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가운데,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고용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디게 개선되는 양상

■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축소되어 26.3만 명 증가

- 청년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21.9 → (10월)18.0 → (11월)16.8 → (12월)26.6 → ('22.1월)32.1 → (2월)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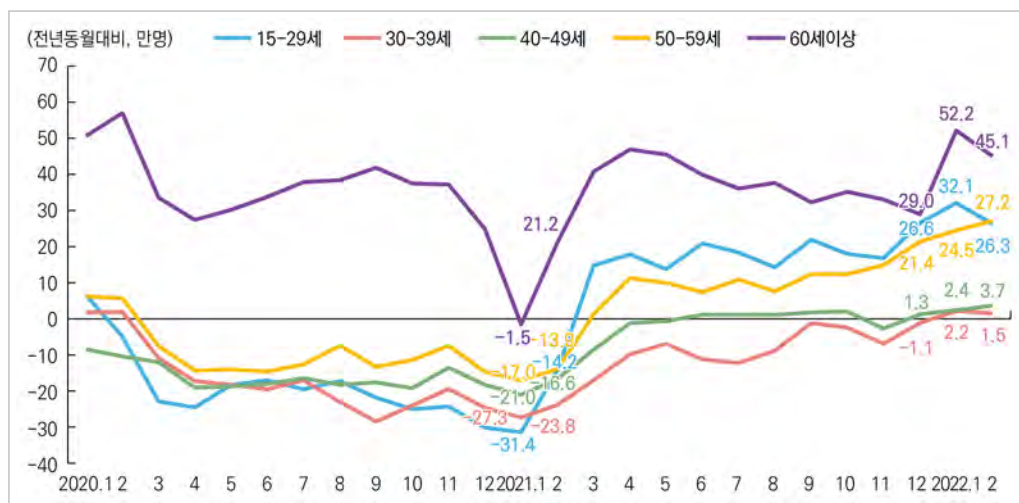
■ 핵심 노동연령대인 30~50대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2.4만 명 증가

- 30~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13.0 → (10월)12.0 → (11월)5.3 → (12월)21.6 → ('22.1월)29.1 → (2월)32.4
- 5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7.2만 명 증가하여 청년층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 3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만 명, 4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7만 명 증가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회복세가 더딘 양상⁹⁾

■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5.1만 명 증가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32.3 → (10월)35.2 → (11월)33.1 → (12월)29.0 → ('22.1월)52.2 → (2월)45.1

[그림 33]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9) 2022년 2월 고용률을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2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년층(+3.0%p), 50대(+1.4%p), 60세 이상(+1.2%p)에서는 고용률이 상승한 반면, 30대(± 0.0 p)와 40대(-0.2%p)에서는 답보 또는 하락하였음

임금근로자는 상용직과 임시직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96.0만 명 증가하였고, 자영업자는 11.4만 명 증가하여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개선¹⁰⁾

■ **상용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76.7만 명 증가하여 2010년 4월(+78.0만 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

-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51.5 → (10월)61.5 → (11월)61.1 → (12월)65.2 → ('22.1월)68.6 → (2월)76.7

■ **임시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4.2만 명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

- 임시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34.0 → (10월)21.9 → (11월)10.6 → (12월)11.9 → ('22.1월)37.7 → (2월)34.2

■ **일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감소세가 확대되어 -14.9만 명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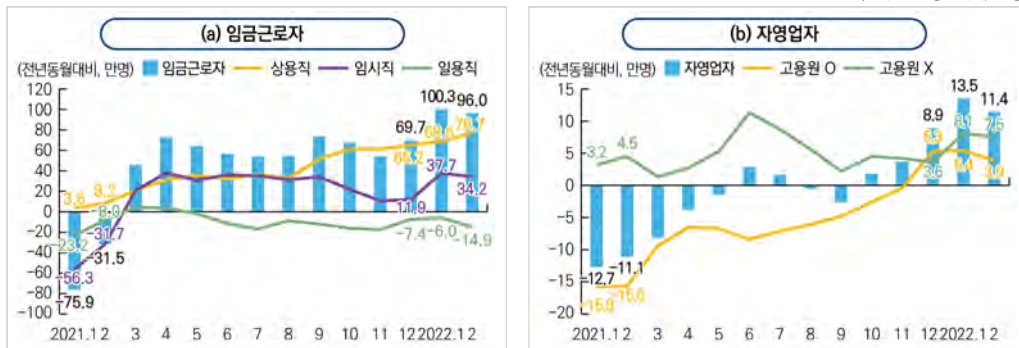
-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12.1 → (10월)-16.2 → (11월)-17.5 → (12월)-7.4 → ('22.1월)-6.0 → (2월)-14.9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3.9만 명)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5만 명) 모두 증가하여 전체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4만 명 증가**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4.8 → (10월)-2.6 → (11월)-0.4 → (12월)5.3 → ('22.1월)5.4 → (2월)3.9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9월)2.2 → (10월)4.5 → (11월)4.2 → (12월)3.6 → ('22.1월)8.1 → (2월)7.5

[그림 3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전년동월대비, 만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 임금근로자는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구성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과 분해 분석]

■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률 변화는 30~50대 취업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인구 변화는 청년층(15~29세)과 30~40대 취업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분해 방법론) 연령별 취업자 수는 연령별 고용률과 연령별 인구 수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며, 로그함수의 특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해 가능

$$\text{연령별 취업자} = \text{연령별 고용률} \times \text{연령별 인구} \div 100$$

$$\Rightarrow \Delta \ln(\text{취업자}) = \Delta \ln(\text{고용률}) + \Delta \ln(\text{인구})$$

$$\Rightarrow \Delta \text{취업자} = \Delta \text{취업자} \times [\Delta \ln(\text{고용률}) / \Delta \ln(\text{취업자})] + \Delta \text{취업자} \times [\Delta \ln(\text{인구}) / \Delta \ln(\text{취업자})]$$

- 위 수식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고용률 변화로 인한 취업자 수 변화(고용률 효과)를 나타내며, 두 번째 항은 인구 변화로 인한 취업자 수 변화(인구 효과)를 나타냄
- 코로나19 기간 동안, 청년층의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고용률 변화는 취업자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
- 30~40대의 취업자 수 감소는 고용률 하락 및 인구 수 감소의 결과로 판단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할 때, 고용률 변화는 30~40대 취업자 수를 약 14.1만 명, 인구 변화는 취업자 수를 약 32.4만 명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
- 50대의 인구 변화는 취업자 수를 소폭 증가시킨 반면, 고용률 변화는 취업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60세 이상 취업자 수의 증가는 고용률 상승 및 인구 수 증가에 기인
 -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률 변화로 인해 증가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6.1만 명이며, 인구 변화로 인한 증가분은 54.4만 명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과 분해 분석]

(단위: 만 명)

		청년층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19년 → 2020년	취업자 증감	-18.2	-16.5	-15.8	-8.8	37.5
	- 고용률 효과	-11.8	-5.5	-10.6	-9.7	11.0
	- 인구 효과	-6.4	-11.0	-5.2	0.9	26.5
2020년 → 2021년	취업자 증감	11.4	-10.7	-3.5	6.6	33.0
	- 고용률 효과	17.5	0.1	1.9	6.8	5.1
	- 인구 효과	-6.1	-10.8	-5.4	-0.2	27.9
2019년 → 2021년	취업자 증감	-6.8	-27.2	-19.3	-2.2	70.5
	- 고용률 효과	5.7	-5.4	-8.7	-2.9	16.1
	- 인구 효과	-12.5	-21.8	-10.6	0.7	54.4

주: '고용률 효과'와 '인구 효과'로 인한 취업자 수 변화를 합하면 '취업자 증감'과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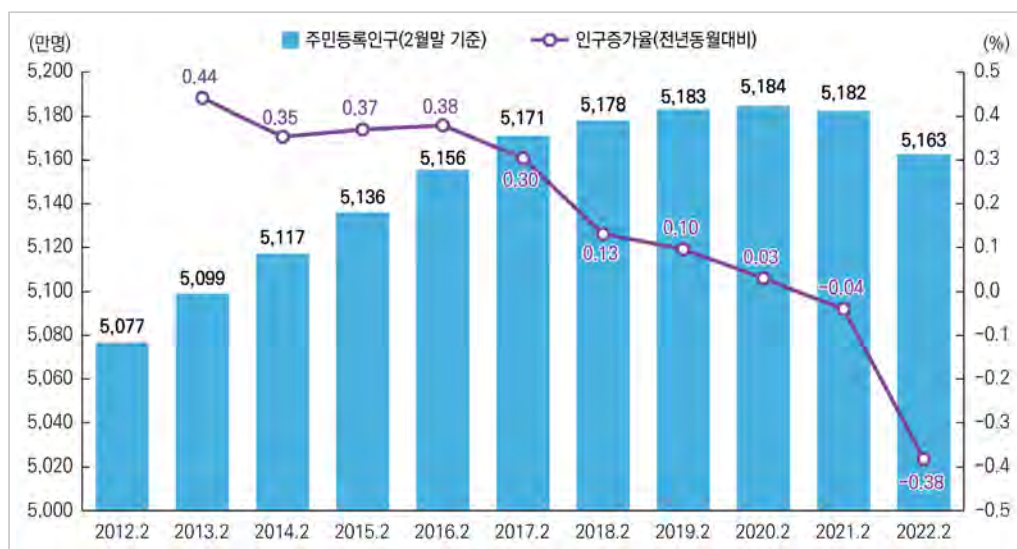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추정

5. 인구

2022년 2월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명(-0.38%) 감소

- 각 연도 2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5년 0.37%, 2018년 0.13%, 2021년 -0.04%, 2022년 -0.38%로 하락

[그림 35]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2~202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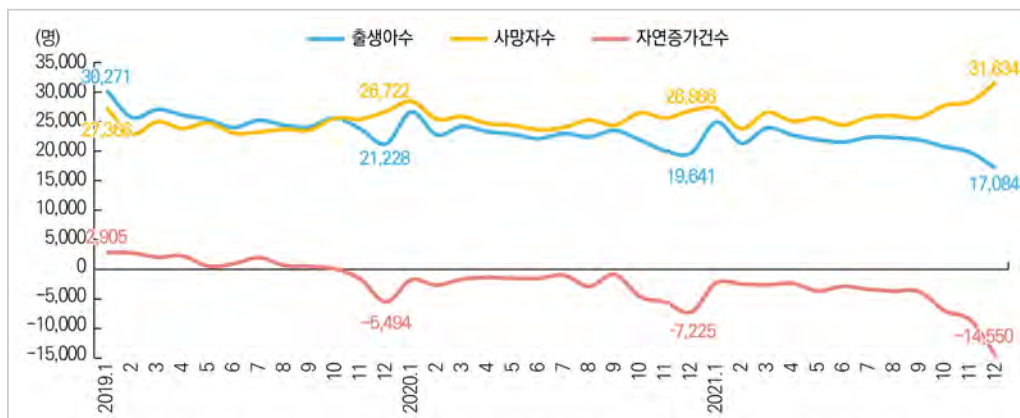
주: 각 연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전년동월대비 출생아 수는 큰 폭으로 감소, 사망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 최근 3개월 동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의 규모가 급증

- 2021년 12월 출생아 수는 17,048명, 전년동월대비 2,557명(-13.0%) 감소
- 2021년 12월 사망자 수는 31,634명, 전년동월대비 4,768(17.7%) 증가
- 2019년 11월 이후 26개월 째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2021년 10월 7,034명, 11월 8,570명, 12월 14,550명으로 전년동기간에 비해 급증

[그림 36]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2021.11)



자료: 통계청(2022),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12월의 혼인건수와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

- 2021년 12월 혼인건수는 19,76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378건(-10.7%) 감소,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률은 4.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6건 감소
- 2021년 1~12월까지의 총혼인건수는 192,50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004건(-9.8%) 감소
- 연중 혼인건수가 가장 많은 달인 12월 기준 조혼인률은 2019년 5.7건, 2020년 5.1건, 2021년 4.5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그림 37]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01~2021.12)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2022),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4분기 출생, 사망, 혼인 동향]

■ 출생

- 2021년 4분기 출생아 수는 57,618명, 전년동기대비 3,961명(-6.4%) 감소

[전국 출생아 수 및 증감률]

	2020년	2021년p	2020년	2021년 ^p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출생아 수(명)	272,337	260,494	61,579	70,170	66,169	66,537	57,618
전년(동기) 증감률(%)	-10.0	-4.3	-12.7	-4.7	-3.1	-3.4	-6.4

자료: 통계청(2022)

- 2021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5명 감소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동기 대비 25-29세는 4.3명, 30-34세는 4.7명 각각 감소, 반면 35-39세는 0.7명, 40세 이상은 0.4명 각각 증가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가입여자 1명당 명,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명)

	2020년	2021년p	2020년	2021년p				전년 동기차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출산율	0.84	0.81	0.76	0.88	0.82	0.82	0.71	-0.05
24세 이하	3.8	3.0	3.2	3.4	3.2	3.0	2.5	-0.7
25-29세	30.6	27.5	27.8	31.3	27.7	27.5	23.5	-4.3
30-34세	78.9	76.0	70.8	83.8	78.0	77.3	66.1	-4.7
35-39세	42.3	43.5	38.7	45.8	44.1	44.6	39.4	0.7
40세 이상	3.4	3.7	3.2	3.8	3.8	3.8	3.6	0.4

자료: 통계청(2022)

■ 사망

- 2021년 4분기 사망자 수는 87,772명, 전년동기대비 8,815명(11.2%) 증가

[전국 사망자 수 및 증감률]

	2020년	2021년p	2020년	2021년 ^p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망자 수(명)	304,948	317,773	78,957	77,575	75,053	77,374	87,772
전년(동기) 증감률(%)	3.3	4.2	1.6	-2.7	3.3	5.1	11.2

자료: 통계청(2022)

- 2021년 4분기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은 6.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7명 증가
 - 전년동기대비 남·여 모두 0.7명 증가하고, 85세 이상 남자는 8.9명 증가
 - 2020년과 비교하여 볼 때, 64세 미만 연령대의 조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었지만, 65세 이상 연령대의 조사망률은 증가

[성·연령별 사망률]

(단위: 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명)

		2020년	2021년 ^p	2020년	2021년 ^p				전년 동기차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전체 조사망률		5.9	6.2	6.1	6.1	5.9	6.0	6.8	0.7
남자	조사망률	6.5	6.7	6.6	6.6	6.4	6.6	7.3	0.7
	0~44세	0.6	0.6	0.6	0.6	0.6	0.6	0.7	0.1
	45~64세	4.6	4.6	4.6	4.6	4.5	4.5	4.7	0.1
	65~84세	26.4	26.1	26.8	26.2	24.8	25.1	28.2	1.4
	85세 이상	143.3	141.8	147.4	140.6	132.0	135.2	156.3	8.9
여자	조사망률	5.4	5.7	5.6	5.6	5.3	5.4	6.3	0.7
	0~44세	0.4	0.4	0.4	0.4	0.4	0.4	0.4	0.0
	45~64세	1.8	1.8	1.8	1.8	1.8	1.7	1.9	0.1
	65~84세	14.2	13.9	14.0	14.1	13.2	13.1	15.0	1.0
	85세 이상	109.5	108.5	112.6	109.9	100.1	102.1	119.0	6.4

자료: 통계청(2022)

■ 혼인

- 2021년 4분기 혼인 건수는 52,05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737건(-8.3%) 감소

[전국 혼인 건수 및 증감률]

	2020년	2021년 ^p	2020년	2021년 ^p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혼인건수(건)	213,502	192,509	56,789	48,016	48,249	44,192	52,052
전년(동기) 증감률(%)	-10.7	-9.8	-13.6	-17.6	-5.4	-6.8	-8.3

자료: 통계청(2022)

- 일반혼인율은 전년동기대비 남녀 모두 0.9건 감소하였으며, 특히 30대 초반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율이 가장 크게 감소
 - 2021년 4분기 남성 30~34세 연령대의 혼인율은 45.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3건 감소
 - 2021년 4분기 여성 25~29세 연령대의 혼인율은 40.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1건 감소

[성·연령별 혼인율 및 일반혼인율]

(단위: 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건)

		2020년	2021년p	2020년	2021년p				전년 동기차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남자	일반혼인율	9.6	8.6	10.1	8.7	8.6	7.8	9.2	-0.9
	24세 이하	1.7	1.6	1.7	1.7	1.7	1.4	1.6	-0.1
	25 - 29세	25.2	22.1	26.1	22.7	22.7	20.1	22.8	-3.3
	30 - 34세	47.6	42.1	51.6	43.2	42.6	37.9	45.3	-6.3
	35 - 39세	20.5	19.4	22.0	19.2	19.0	17.8	21.9	-0.1
	40세 이상	3.2	2.9	3.3	2.9	2.9	2.7	3.2	-0.2
여자	일반혼인율	9.4	8.5	10.0	8.6	8.5	7.7	9.1	-0.9
	24세 이하	5.0	4.1	4.7	4.4	4.3	3.8	4.1	-0.6
	25 - 29세	44.9	38.3	47.2	39.4	39.5	34.0	40.1	-7.1
	30 - 34세	44.0	40.8	48.2	40.7	40.4	37.5	44.8	-3.3
	35 - 39세	14.3	13.8	15.3	13.6	13.5	12.7	15.5	0.2
	40세 이상	2.2	2.1	2.3	2.1	2.1	2.0	2.2	-0.1

주: 일반혼인율= 총 혼인 건수/15세 이상 남자(여자) 인구 × 1,000

자료: 통계청(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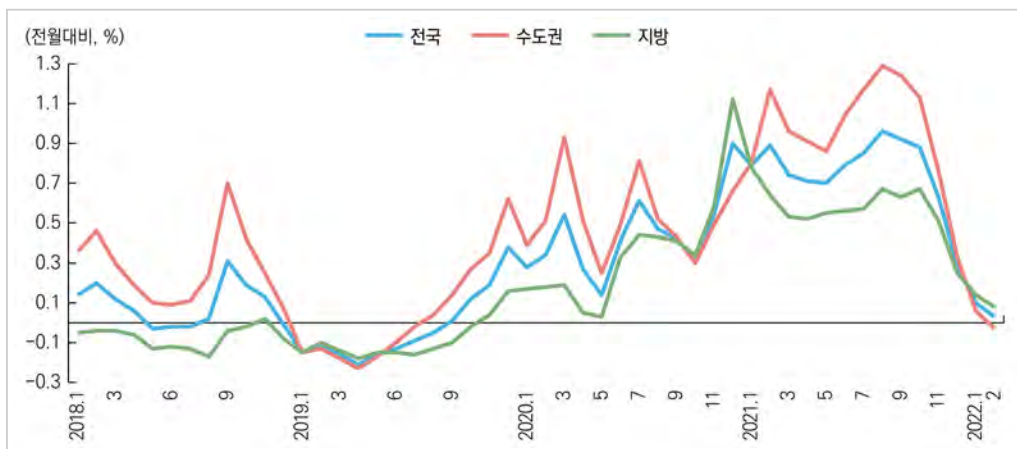
6. 부동산

2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되었으며, 수도권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30개월만에 하락세를 기록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03% 수도권 -0.03% 지방은 0.08%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 축소

- 수도권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 2019년 7월 이후 30개월만에 상승에서 하락 전환
- 지방은 광주 0.23%, 경남 0.22%, 강원 0.19%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세종 -0.51%, 대구 -0.28% 순으로 하락세를 보임

[그림 38]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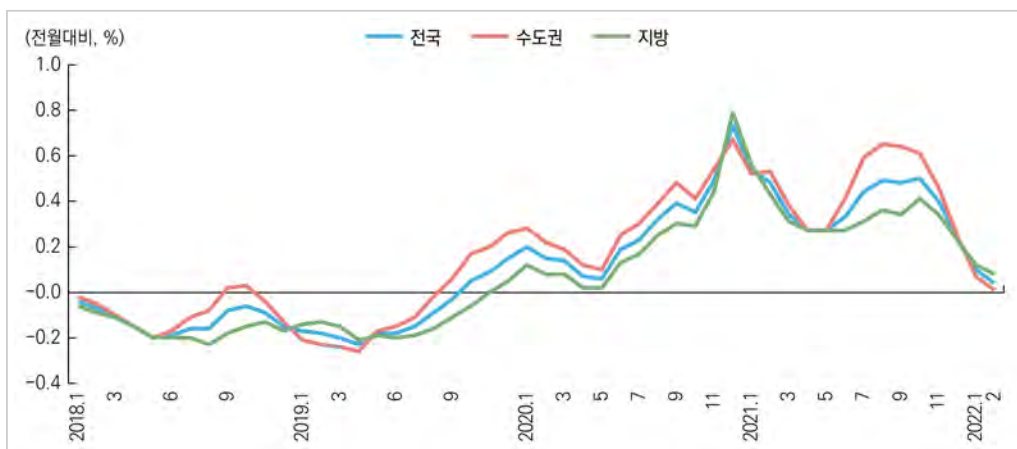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 전국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전국 0.04%, 수도권 0.01%, 지방 0.08%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 축소

- 수도권은 전세가격이 상승에서 보합전환 되었으나, 높은 전세가 부담과 전세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세통합지수 상승폭이 축소
- 지방은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나 세종 등 거래심리 위축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상승폭이 축소

[그림 39]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추이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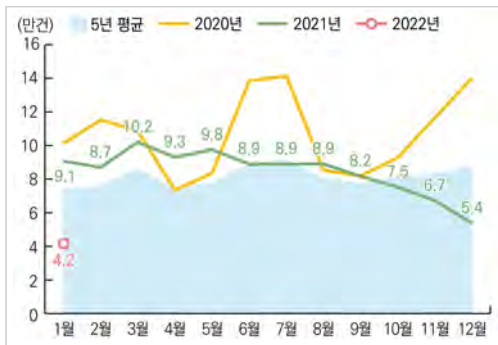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2년 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감소

■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 1,709건으로 전월대비 22.4% 감소, 전년동월대비 54.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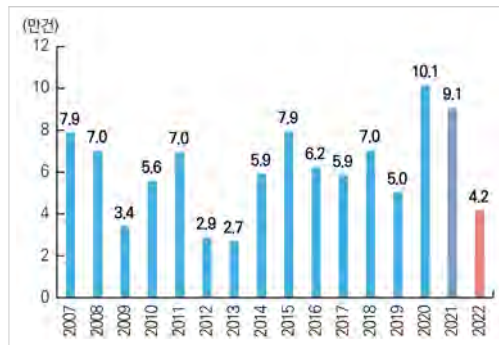
- 수도권(1.6만건)은 전월대비 24.9% 감소, 전년동월대비 65.6% 감소
- 지방(2.6만건)은 전월대비 20.8% 감소, 전년동월대비 41.4% 감소

[그림 40]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41] 연도별 1월 주택 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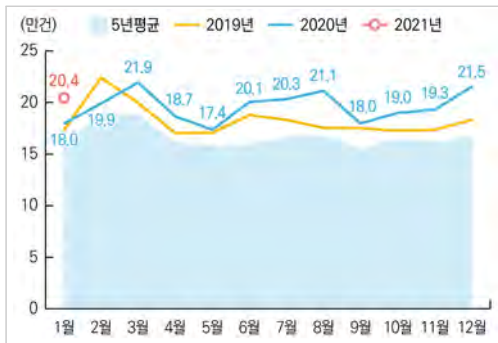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4,497건으로 전월대비 5.1% 감소, 전년동월대비 13.9%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5.6%로 전월대비 0.6%p 감소, 전년동월대비 5.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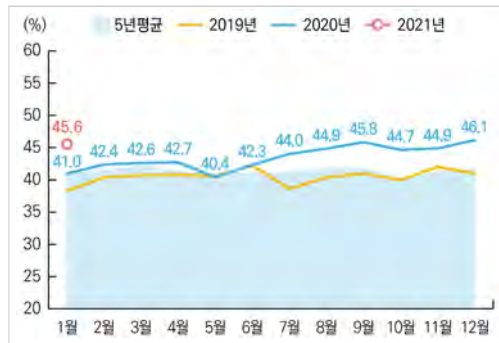
[그림 42]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43] 월별 전국 월세 비중



해외경제 동향

경제분석국

최근 미국 경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과 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 지속

- 산업생산은 1월 중 전기·가스 유틸리티(-1.8% → 9.9%) 생산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되었고, 소매판매(-2.5% → 3.8%)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거래와 신차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호조세를 나타냄
- 노동시장은 2월 중 비농가취업자수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되고 실업률은 하락하며 개선 흐름이 지속
- 물가는 견실한 수요증가와 높은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여 PCE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오름세가 전월보다 확대

2021년 중국경제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를 상회(8.1%)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등의 회복세가 둔화되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2021년 중국의 주요 실물지표인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는 각각 전년대비 9.6%, 10.7%, 4.9% 증가
- 2021년 중국 소비자물가는 돼지고기 등 식료품 물가(-1.4%)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0.9% 상승에 그침
- 2022년 2월 중국의 종합PMI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51.2를 기록

유로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

- 유로지역의 1월 중 소매판매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 및 높은 소비자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으로 0.2% 증가에 그침
- 2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의 오름세 지속, 가공식품 등 음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5.8% 올라 1999년 유로지역 출범 이후 최고치를 4개월 연속 경신
- 2월 중에도 신규 확진자수 증가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신뢰지수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경제봉쇄 및 방역조치 완화 등을 시행하는 국가가 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PMI는 상승

1월 일본경제는 전월에 이어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하고 노동시장도 위축되며 부진한 모습

- 일본의 실물경제는 광공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전월대비 1.3%와 1.9% 감소
-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에너지 및 광열·수도 등의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0.5% 상승
- 비농업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실업률은 상승하여 노동시장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

III.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최근 미국 경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과 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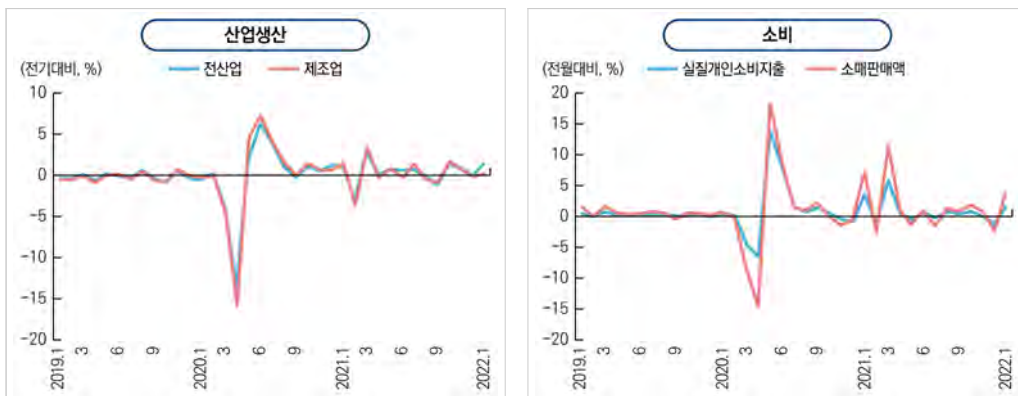
■ 1월 중 산업생산은 전기·가스 유틸리티(-1.8% → 9.9%) 생산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되었고,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

- 전산업생산(전월비, %): ('21. 11월)0.9 → (12월)-0.1 → ('22. 1월)1.4
- 제조업생산(전월비, %): ('21. 11월)0.7 → (12월)-0.1 → ('22. 1월)0.2
-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기준치=50)는 2월 중 58.6로 최근 2개월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

■ 1월 중 소비지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거래와 신차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호조세를 나타냄

- 실질개인소비지출(1.6%)은 내구재소비(-5.1% → 9.7%)와 비내구재소비(-2.6% → 1.9%) 등을 중심으로 전월(-1.2%)의 감소에서 증가 전환되었고, 소매판매(3.8%)는 지난해 3월(11.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2월 중 110.5로 전월(111.1)에 비해 소폭 하락

[그림 1] 미국의 월별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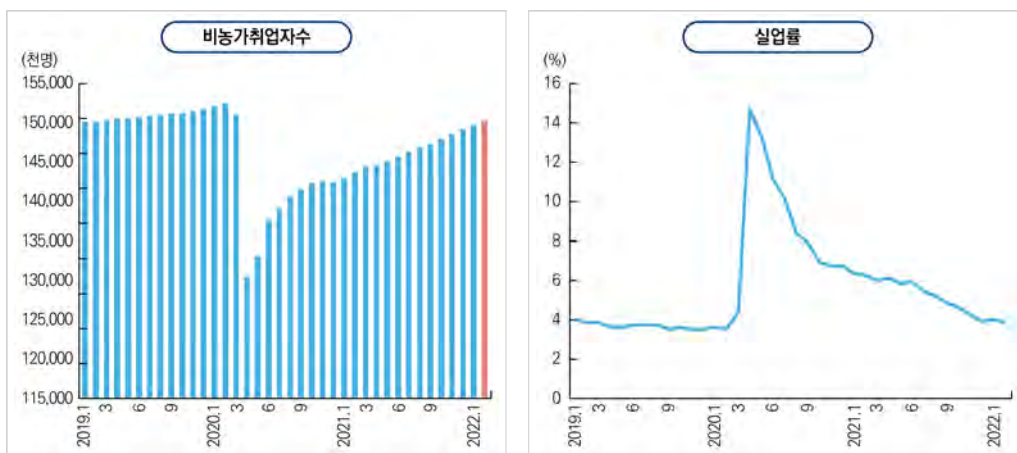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2월 중 노동시장은 비농가취업자수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되고 실업률은 하락하며 개선 흐름이 지속

- 2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67.8만 명 증가하여 전월(48.1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며 개선세가 지속되었고, 실업률은 3.8%로 전월(4.0%)에 비해 하락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여가·호텔·식당(17.9만 명), 교육·보건(11.2만명), 도소매(5.5만 명) 등을 중심으로 65.4만 명 증가하였고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2.4만명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1.12월)58.8 → ('22.1월)48.1 → (2월)67.8
- 실업률(%): ('21.12월)3.9 → ('22.1월)4.0 → (2월)3.8

[그림 2] 비농가취업자수 및 실업률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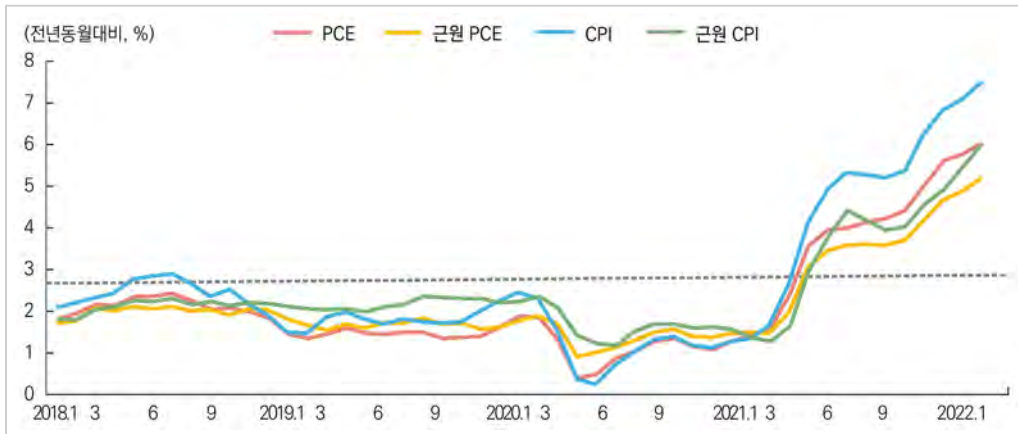


주: 월간 구인건수는 비농가기준

■ 1월 중 물가는 건실한 수요증가와 높은 에너지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여 PCE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오름세가 전월보다 확대

- PCE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6.1% 상승하여 지난 1970년 2월(6.2%)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구재(16.8% → 18.4%), 비내구재(9.7% → 9.3%), 서비스가격(4.6% → 4.6%) 등에서 모두 전월에 이어 높은 오름세를 보이며 7.5%를 기록하여 전월(7.0%)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지난 1982년 6월(7.2%)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임
- 근원PCE물가상승률은 5.2%로 지난 1971년 9월(5.1%) 이후 처음으로 5%를 상회하였고,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은 6.0%로 전월(5.5%)에 이어 3개월 연속 5%를 상회
- 기대인플레이션(미시전대 서베이 기준, %): ('21. 12월)4.8 → ('22.1월)4.9 → (2월)5.0

[그림 3]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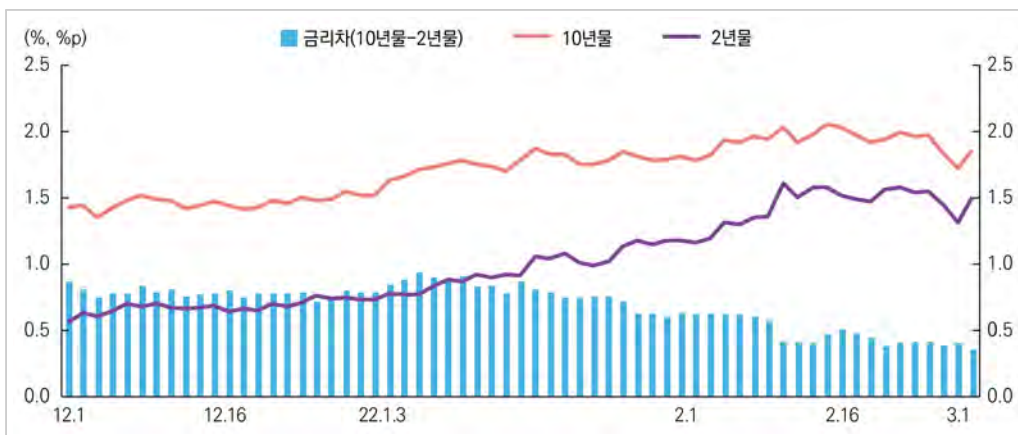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2월 중 시장금리는 장기금리(10년물)가 양호한 성장세와 높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2년물 금리가 연준의 3월 정책금리 인상 현실화 및 0.5%p 인상폭 가능성 부각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기간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

- 장기금리(10년물 기준)는 양호한 경기회복세와 높은 물가상승압력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며 월평균 1.93%를 기록(전월대비 0.17%p 상승)
- 반면 2년물 금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에 따른 연준의 3월 정책금리 인상폭 확대 가능성 등으로 중순 이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어 전월(0.98%)보다 0.46%p 상승한 1.44%를 기록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 %p):('21.12월)0.79 → ('22.1월)0.78 → (2월)0.49

[그림 4]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와 기간금리차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2. 중국

2021년 중국경제는 정부의 경제성장을 목표치인 6%를 상회(8.1%)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등의 회복세가 둔화되며 성장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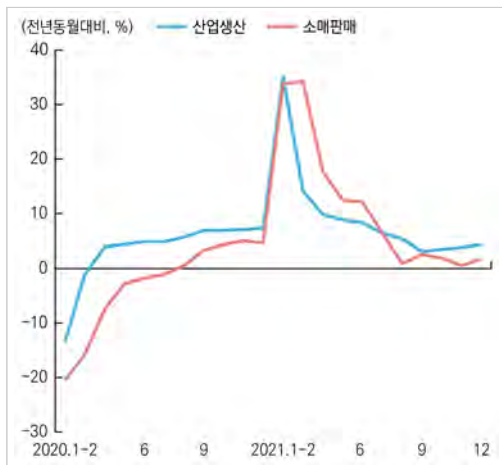
■ 2021년 중국 산업생산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전력난 등의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2020년(2.8%) 기저효과로 연간 9.6% 증가

- 광업 생산은 석탄(6.7%), 비금속광물(7.5%), 석유 및 천연가스(3.9%) 등에서 늘어나며 전년대비 5.3%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5.5%), 전자기기(16.8%), 컴퓨터 및 통신기기(15.7%)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9.8% 증가

■ 2021년 중국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로 재화(11.8%) 및 외식업(18.6%) 부문의 소매판매가 모두 늘어나며 전년대비 10.7% 증가

■ 2021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광업(10.9%)과 제조업(13.5%)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9% 증가

[그림 5]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CEIC

[그림 6]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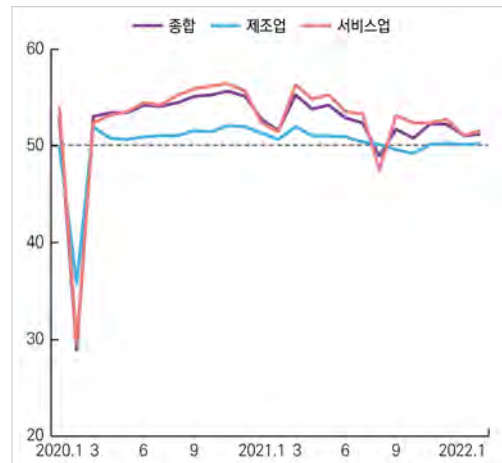
- 2021년 중국 소비자물가는 돼지고기 등 식료품 물가(-1.4%)의 하락으로 전년대비 0.9% 상승에 그침
- 2021년 중국 생산자물가는 석탄(45.1%), 석유 및 천연가스(38.7%)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연간 8.1% 상승
- 2022년 2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51.2를 기록
 - 2022년 2월 중국의 제조업 신규주문지수가 전월(49.3)대비 상승한 50.7을 기록하면서 제조업PMI도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50.2 기록
 - 종합PMI: ('21년.12월)52.2 → ('22년.1월)51.0 → (2월)51.2

[그림 7]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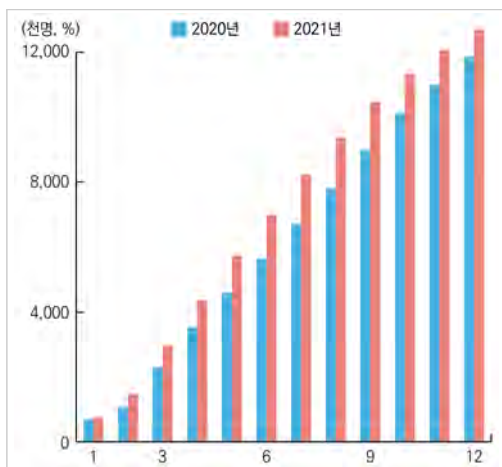
[그림 8]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 2021년 중국의 도시실업률(서베이)은 5.0% 기록하면서 정부 목표치인 5.5%를 하회
 - 2021년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1,269만 명으로 연초 정부가 세운 도시 신규 취업자수 목표치(1,100만 명)를 초과 달성
 - 2021년 중국의 전체 취업자 수는 7억 4,652만 명으로 전년대비 0.6% 감소
- 2021년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3조 3,669억 달러, 2조 6,908억 달러를 기록
 - 2021년 중국의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고강도 방역정책을 통한 생산활동 정상화 등으로 중국산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0.0% 증가
 - 2021년 중국의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0.2% 증가
 - 2021년 중국의 연간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29.0% 증가한 6,762억 달러 흑자 기록

[그림 9] 중국 신규취업자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10]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2022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

■ 중국 정부는 2022년 3월 개최된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2022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를 제시

- **(재정정책)**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면서 정책의 효율성, 정확성, 연속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
 - 재정적자 목표치는 전년(3.0%)대비 축소된 2.8%로 제시
- **(통화정책)** 유연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M2(광의통화)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경제안정을 위해 적절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발표
- **(경제지표 목표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도시 신규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의 2022년 목표치 발표
 - 경제성장률 5.5% 내외
 - 물가상승률 3.0%
 - 도시 신규취업자수 1,100만 명
 - 도시실업률 5.5% 미만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

■ 유로지역의 2021년 12월 중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수준을 회복

- 부문별로는 자본재(2.6%), 중간재(0.5%), 비내구소비재(0.4%)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에너지(-0.8%)와 내구재(-0.3%)는 감소 전환
- 산업생산(전월대비, %): ('21.10월)-1.5 → (11월)2.4 → (12월)1.2

■ 1월 중 소매판매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 및 높은 소비자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약화 등으로 0.2% 증가에 그침

- 품목별로는 온라인판매가 0.6% 증가하였으나, 차량연료판매가 1.3% 감소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1.11월)1.1 → (12월)-2.7 → ('22.1)0.2
- 국가별 소매판매(전월대비, %): 네덜란드(3.6), 독일(2.0), 프랑스(-0.9), 오스트리아(-1.0), 포르투갈(-2.8)

[그림 11]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자료: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2]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 2022년 2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가격의 오름세 지속, 가공식품 등 음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5.8% 올라 1999년 유로지역 출범 이후 최고치를 4개월 연속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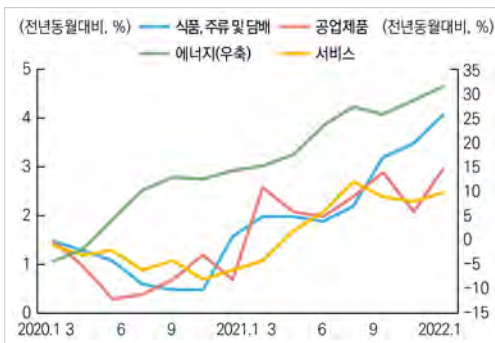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의 상승률은 전월(2.3%)에 비해 높은 2.7%를 기록
- 품목별 물가상승률(2022년 2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 에너지(31.7), 가공식품(6.1), 식품·주류·담배(4.1), 서비스(2.5), 공업제품(3.0)

[그림 13]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4] 유로지역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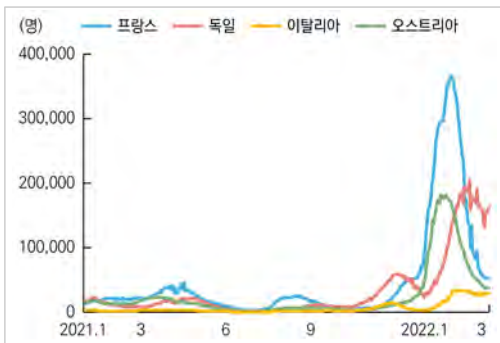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Eurostat

■ 유로지역은 11월 중순부터 확진자 급증으로 주요국에서 봉쇄조치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3개월 연속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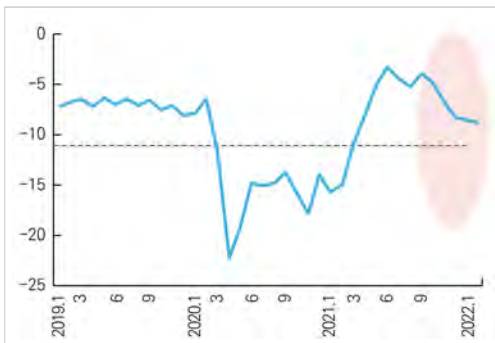
- 2월 신규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으면서 소비자신뢰지수는 -8.8로 전월보다 0.3p 하락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21.11월)-6.8 → (12월)-8.3 → ('22.1월)-8.5 → (2월)-8.8

[그림 15] 유로지역 주요국 신규 확진자수 추이



자료: Our World in Data

[그림 16]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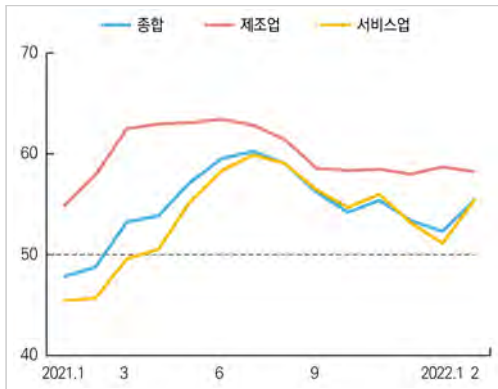
자료: EU 집행위

■ 2022년 2월 중 유로지역의 종합PMI는 신규확진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봉쇄를 완화하는 국가¹⁾가 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승

- 유로지역 종합 PMI는 서비스업 PMI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월보다 3.2p 높은 55.5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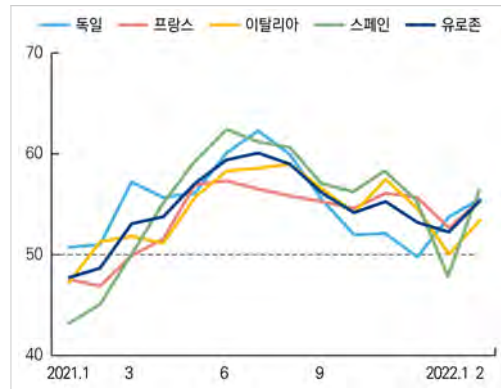
1) 덴마크는 2월 1일부터 모든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해제하였으며, 오스트리아는 3월 5일 규제를 해제, 독일은 3월 20일까지 3단계에 걸쳐 규제를 해제할 예정

[그림 17]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8]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4. 일본

일본경제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구매자관리지수(PMI)가 감소하고 실업률과 물가는 상승하여 부진한 모습

■ 1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1.3% 줄어 2개월 연속 하락

- 광공업 생산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부품 공급의 제약이 자동차 공장의 가동 중단과 출하에 영향을 미쳐 전월에 비해 감소율이 확대됨
- 업종별로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공업(10.4%), 산업용 기계공업(4.9%), 화학물질(무기, 유기 화학물질 및 의약품 제외)공업(10.9%) 등에서 늘어났으나, 자동차공업(-17.2%), 철·강철 및 비철 금속공업(-3.2%), 무기·유기화학공업(-3.8%) 등에서 감소
- 출하(-1.8%), 재고(-1.8%)와 재고율(-1.3%)이 모두 감소

■ 1월 일본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6조 3천억 엔과 8조 5천억 엔을 나타내었으며 무역수지는 2조 2천억엔 적자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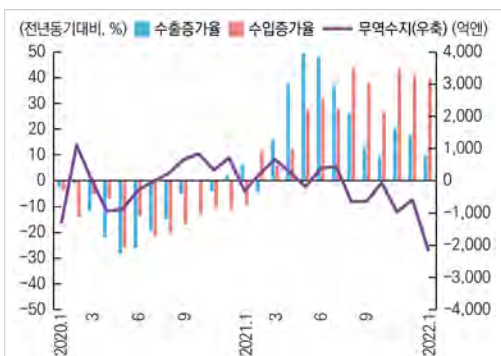
- 수출은 철강(47.0%), 광물성연료(112.2), 반도체 등 전자 부품(18.7%) 등이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9.6% 상승
- 수입은 석유(84.6%), 석탄(167.3%), LNG(52.1%) 등 광물연료(83.3%)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전년 동월대비 39.6% 증가
- 무역수지(십억엔): ('21.11월)-958 → (12월)-583 → ('22.1월)-2,193

[그림 19] 일본 광공업 생산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20]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재무성

- 1월 일본 소매판매액은 기계 및 장비(0.8%)와 의약품·화장품을 포함한 기타 소매판매(1.1%)를 제외한 전 품목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1.9% 감소

- 감염병이 확산되며 외부활동이 감소하여 식물·의복·소지품이 17.4% 감소

- 1월 일본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에너지(17.9%) 및 광열·수도(12.7%)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전년동월대비 0.5% 상승

- 다만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1% 하락

[그림 21] 일본 소매판매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22]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총무성

- 1월 일본 비농업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28만명 감소('21.1월: -33만명)하였으며, 실업률도 0.1%p 상승하여 2.8%를 시현

- 비농업취업자수 증감²⁾(전년동월대비, 만명): ('21.11월)-35 → (12월)9 → ('22.1월)-28

2) 2022년 1월부터 일본 노동력조사의 새로운 벤치마크 인구에 근거하여 과거 수치가 소급하여 보정됨

■ 일본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2021년 1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2월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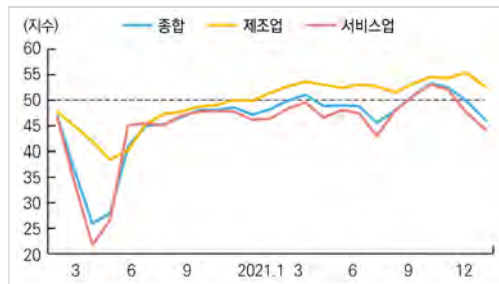
- 종합PMI는 전월(49.9)에 비해 큰 폭(-4.1p)으로 감소한 45.8을 기록
- 제조업PMI는 전월(55.4)대비 2.7p 감소하여 52.7 수준
- 서비스업PMI는 전월(47.6)대비 3.4p가 감소한 44.2를 나타냄

[그림 23] 일본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총무성

[그림 24] 일본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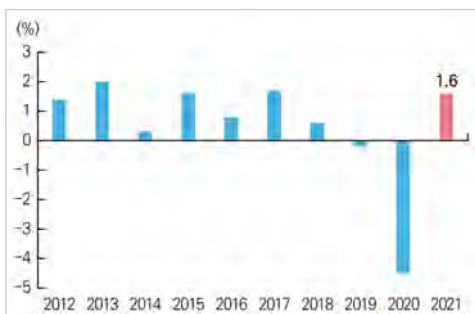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2021년 일본 경제]

■ 일본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주택건설과 설비투자가 부진하였으나 민간소비가 개선되며 전년 대비 1.6% 상승하여 3년 만에 플러스 성장

- 2021년 일본경제는 코로나19 전개 및 그에 따른 긴급사태와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반복

[일본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신규 확진자 수 및 구글 이동성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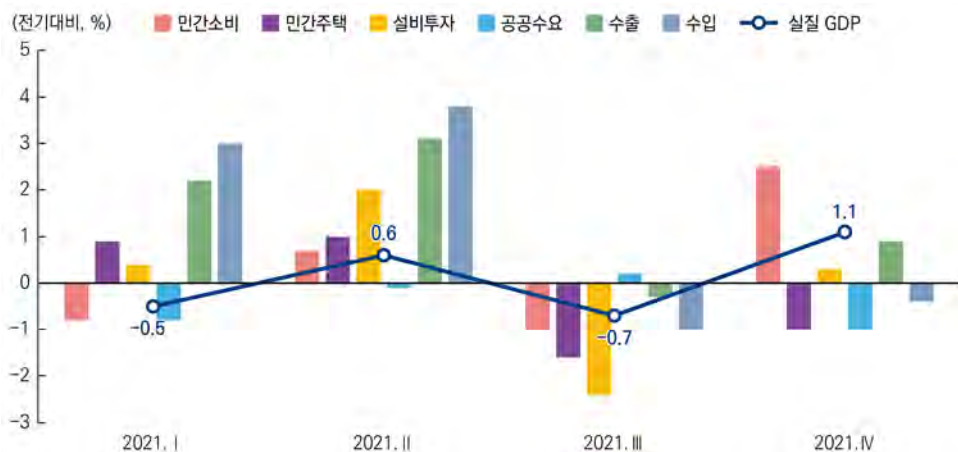
주: Baseline은 2020년 1월 3일-2월 6일 기준이며, 7일 이동평균 사용
자료: Google Covid19 Community Mobility Index, Our World in Data, 국회예산정책처

- 2021년 1/4분기는 코로나19가 확산되어 2차 긴급사태(2021년 1월 8일~3월 20일)가 선포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GDP 성장률도 전기대비 0.5% 감소
- 2/4분기에는 3차 긴급사태(2021년 4월 25일~6월 20일) 및 코로나 만연방지 중점조치(2021년 5월 23일~6월 30일)로 민간소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으나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하여 전기 대비 0.6% 성장

* 일본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긴급사태와 만연방지 중점조치로 구분되는데, 만연방지 중점조치는 최고 수위의 방역조치인 긴급사태에 준하는 조치로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8~9시로 단축되고 주류 판매가 제한됨

- 3/4분기에도 일본 정부가 4차 긴급사태(2021년 7월 12일~9월 30일)를 선언하여 민간소비가 위축되었고, 차량용 반도체와 부품 공급 차질에 따라 수출 감소하여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7% 감소
- 4/4분기 일본경제는 정부가 긴급사태를 해제하여 민간소비가 개선되었으며, 공급차질이 완화되어 자동차가 수출 확대를 이끌어 경기 반등 흐름을 보임(전기대비 GDP 성장률 1.1% 상승)

[2021년 지출 부문별 일본 GDP 성장률]



자료: 일본 내각부

■ 2021년 일본 경제는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였음에도 주요국에 비해서는 미진한 회복세를 나타냄

- 일본은 3차례 긴급사태가 선언되면서 경제 활동이 제약되었고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개최되며 기대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함.
 - 긴급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노무라종합연구소): (2차) 6조 3,000억엔, (3차) 3조 2,000억엔, (4차) 5조 7,000억엔³⁾
 -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로 인한 경제적 손실(노무라종합연구소): 1,468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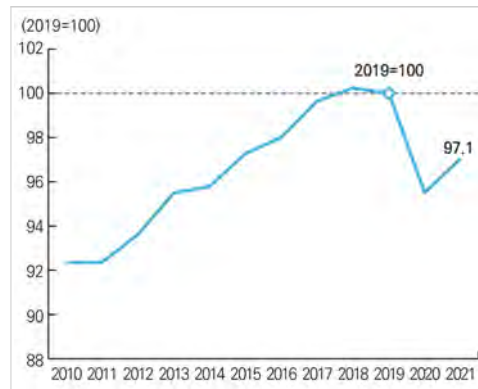
- 일본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1%대 성장하였으며 2021년 현재 코로나 이전(2019년) 경제 규모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2021년 미국은 1984년 이래 37년 만에 최고치인 5.7% 성장하였으며, 유로존도 1971년 이후 최고치인 5.2%를 기록
 - 중국은 당초 정부 성장 목표치(6% 이상)를 크게 상회하는 8.1% 성장을 달성
 - 한국 경제도 11년 만에 최고치인 4.0% 성장

[주요국 2021년 경제성장률]



자료: Bloomberg

[코로나19 전후 일본 실질 GDP 추이]



자료: Bloomberg, 국회예산정책처

3)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21/fis/kiuchi/0525>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

■ 2022년 3월 전 세계 코로나19는 전월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진정되는 상황

- 3월 8일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약 4억 4,972만명이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84만명
 - 북미, 유럽 등의 확진자 감소로 3월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는 200만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음
 - 대륙별 백만명당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은 “오세아니아 > 유럽 > 남미 > 아시아 > 북미 > 아프리카” 지역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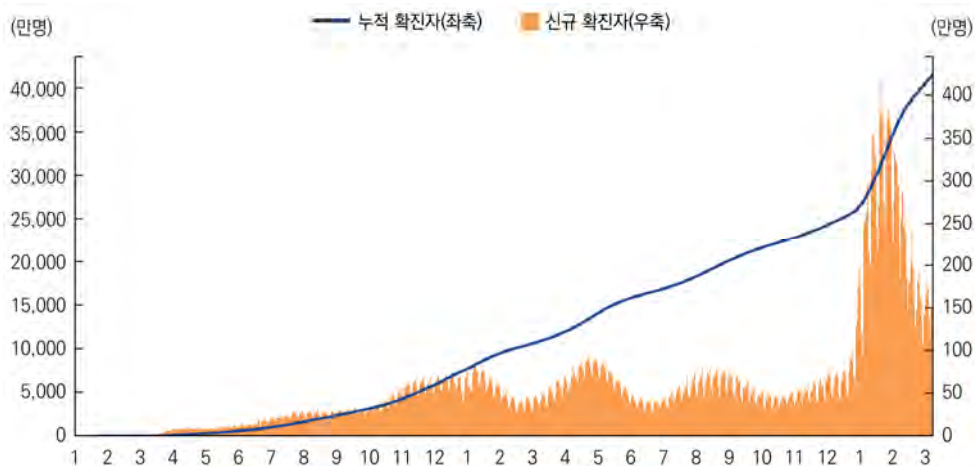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및 일일 확진자 현황(3.8.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세계	유럽	북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확진 (일일)	449,727,293 1,844,922	163,208,011 847,485	93,551,165 51,022	122,763,938 779,564	54,816,385 97,082	11,390,548 15,922	3,996,525 53,847
백만명당 확진 (일일)	57,108 234	217,912 1,132	156,812 86	26,240 167	126,229 224	8,293 12	92,469 1,246
사망 (일일)	6,014,690 7,179	1,731,574 2,711	1,391,293 1,751	1,368,920 1,873	1,264,224 737	250,539 73	8,125 34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3.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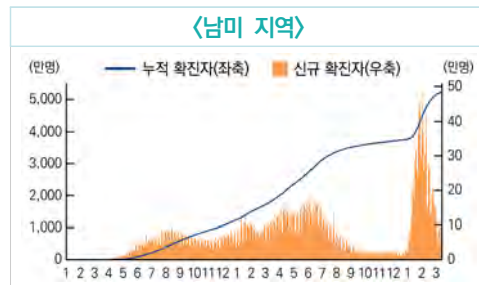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주: 가로축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 현재까지의 시계열을 월 단위로 표시한 것임.

■ 대륙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확산세가 빠른 속도로 진정되고 있는 상황

- **(북미)** 북미의 일일 확진자 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2월 19일부터 10만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 3월 8일 기준 약 3만명을 기록
- **(유럽)** 2월 200만에 육박하였던 유럽의 일일 확진자 수는 3월 8일 기준 약 85만명으로 감소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상황
- **(아시아)** 한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진정되지 못하는 양상
-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일일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일일 확진자 역시 감소
- **(아프리카)** 1월 최대 6만명 수준이었던 일일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3월 8일 기준 약 1.6만명을 기록
- **(오세아니아)** 자연면역, 백신접종 등으로 일일 확진자가 1월 대비 급감하였으나 뉴질랜드의 확진자 증가로 일일 확진자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추세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현황(3.8. 기준)]

순위	국가	누적 확진자 (명)	신규 확진자 (명)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 (명)	누적 사망자 (명)	사망률 (%)
1	미국	79,369,007	29,619	238,406	961,843	1.2
2	인도	42,975,883	4,575	30,842	515,355	1.2
3	브라질	29,152,318	74,487	136,230	653,134	2.2
4	프랑스	23,217,640	93,050	344,363	139,687	0.6
5	영국	19,360,938	62,407	283,855	162,505	0.8
6	러시아	16,835,844	65,569	115,384	350,490	2.1
7	독일	16,326,087	261,063	194,589	124,769	0.8
8	터키	14,425,638	37,407	169,628	95,811	0.7
9	이탈리아	13,109,527	60,753	217,162	156,201	1.2
10	스페인	11,159,574	23,149	238,732	100,859	0.9
11	아르헨티나	8,949,362	6,474	196,233	126,901	1.4
12	이란	7,102,159	5,841	83,527	138,260	1.9
13	네덜란드	6,931,584	66,234	403,631	21,730	0.3
14	콜롬비아	6,073,416	760	118,469	139,154	2.3
15	인도네시아	5,800,253	30,148	20,988	150,831	2.6
16	폴란드	5,760,498	13,176	152,406	112,768	2.0
17	멕시코	5,575,608	8,939	42,803	320,166	5.7
18	일본	5,486,083	53,938	43,523	25,317	0.5
19	대한민국	5,212,118	342,427	101,591	9,440	0.2
20	우크라이나	5,040,518	-	115,962	112,459	2.2
21	베트남	4,776,873	194,815	48,660	40,977	0.9
22	이스라엘	3,688,096	7,464	396,954	10,322	0.3
23	남아공	3,686,556	1,436	61,400	99,625	2.7
24	말레이시아	3,680,953	31,490	112,306	33,384	0.9
25	필리핀	3,668,710	442	33,038	57,072	1.6
26	체코	3,642,514	10,419	339,643	38,986	1.1
27	벨기에	3,609,122	7,495	310,266	30,313	0.8
28	페루	3,528,939	901	105,785	211,252	6.0
29	오스트레일리아	3,459,870	30,691	134,165	5,495	0.2
30	포르투갈	3,352,874	15,068	329,750	21,248	0.6
31	캐나다	3,349,164	4,862	87,979	37,148	1.1
32	칠레	3,214,326	11,764	167,305	43,260	1.3
33	타이	3,088,873	22,073	44,158	23,438	0.8
34	스위스	2,974,778	26,089	341,321	13,203	0.4
35	오스트리아	2,924,852	30,939	323,436	15,071	0.5
36	덴마크	2,891,763	15,475	497,439	4,948	0.2
37	루마니아	2,776,910	5,461	145,177	64,094	2.3
38	그리스	2,538,168	21,057	244,743	26,303	1.0
39	스웨덴	2,460,783	4,817	242,199	17,549	0.7
40	이라크	2,309,816	888	56,092	25,076	1.1

주: 우크라이나는 2월 25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되지 않음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주요 경제정책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2. 23(수)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의 일환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을 발표⁴⁾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는 고령층·만성질환자 관리 용이, 국민건강 증진, 의료서비스 개선 등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 시 의료법 적용, 보건데이터 활용에 대한 민감성 등으로 국내에서 자발적인 시장조성이 어려운 상황
 -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2014년 210억불에서 2020년 1,525억불로 연평균 약 39%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은 21세기 치료법(미국), 차세대의료기반법(일본), 디지털헬스케어육성법(독일)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이에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 ‘시장 창출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 ‘활성화 기반조성’을 중심으로 10대 지원전략을 발표
 - (① 혁신서비스개발) 건강 및 의료 데이터의 결합하여 학교·병원·기업 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기존에 개발된 서비스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
 - (② 대규모 실증 지원을 위한 유효성·상업성 검증) 유효성 입증에 가능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실증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며 지불주제 인식개선 및 다변화를 추진
 - (③ 수요기반 시장 확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수요확대를 유도하고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
 - (④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촉진) 인공지능·VR·XR 등 디지털치료기기의 공통기반기술을 지원하고 우울증·공화장애·소아자폐 등 질환별 치료제 개발을 확대
 - (⑤ 인공지능 기반 진단보조기기 개발) 병원 의료영상의 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의료영상 데이터셋과 영상자료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
 - (⑥ 모빌리티 기반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5G와 연계하여 재난·의료취약지역에 즉시 개원가능한 이동형병원체를 개발
 - (⑦ 신체·정서적 보조 헬스케어 기기 개발) 경량화된 웨어러블 재활기기, 정서적 교감 및 멘탈 헬스케어를 위한 반려로봇 기술, 발달장애아동과 청각장애인 등의 의사소통을 돕는 보조기기를 개발
 - (⑧ 제도적 기반 마련)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며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 및 사례를 구체화
 - (⑨ 데이터 활용 접근성 제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 및 개발하고 보건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련 규정 정비

- (⑩ 융복합 인력양성 확대)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비학위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회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하여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비전 및 10대 중점추진과제]

비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	
목표	· 비용효과성 측면의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유효성 입증 ·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중점 추진과제	시장 창출 지원 강화	① 다양한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② 대규모 실증 지원을 통한 유효성·상업성 검증 ③ 수요기반 시장 확보
	데이터 기반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	④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촉진 ⑤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기기 ⑥ 모빌리티 기반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 ⑦ 신체·정서적 보조 헬스케어 기기 개발
	활성화 기반조성	⑧ 제도적 기반 마련 ⑨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 제고 ⑩ 융복합 인력양성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3.7 (월) 「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발표⁵⁾

-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2008년 제정)에 근거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
- 이에 따라 ‘제조로봇 확대 보급’, ‘4대 서비스로봇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됨
 - (① 제조로봇 확대 보급) 뿌리·섬유·식음료의 3대 제조업 뿐 아니라 항공·조선·바이오화학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활용 표준공정 모델을 추가 개발하고 기존에 개발된 모델의 보급확산에 주력
 - (② 4대 서비스 로봇분야 집중 육성) 고령화·감염병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 반려로봇·보행보조로봇 등의 개발을 착수하고, 국민생활밀접 시설에 1,6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하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등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을 추진
 - (③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다품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그리퍼⁶⁾, 비정형 환경 내 이동지능 SW 등 로봇핵심기술 개발 및 국산부품의 실증을 지원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5G·클라우드 등이 융합된 첨단로봇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

4)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3.7.

5) 산업통상자원부, “「2022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3.7.

6) 그리퍼는 물체를 쥐어 가공되도록 하는 장비를 의미

PART

2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현안

I.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100
II.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경제 동향	105
III. 2021년 4/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	113
IV.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 작성의 보안방안 연구: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통계를 중심으로	121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조은영 경제분석관(6788-4680)

1.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동향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의 일시적인 적자 전환은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잠재적 영향에 대해 관심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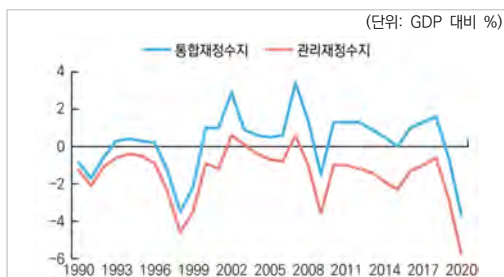
■ 총수입은 2019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총지출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적자가 확대

-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0조원(GDP 대비 -0.6%), 2020년 -71.2조원(-3.7%), 2021년 -75.4조원(-3.7%)으로 적자폭 확대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2025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연평균 65.5조원, 104.3조원 적자를 보이면서 국가채무는 2025년에 GDP 대비 58.8%에 이를 전망

■ 수출액은 2022년 1월 553.2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5.2%, 수입액은 602억 달러로 35.5% 증가하면서 48.3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이는 에너지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1.7배 상승하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159.5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0.6억 달러 증가한 데 기인¹⁾
-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무역수지 흑자가 2015년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흑자폭이 축소

[그림 1] 재정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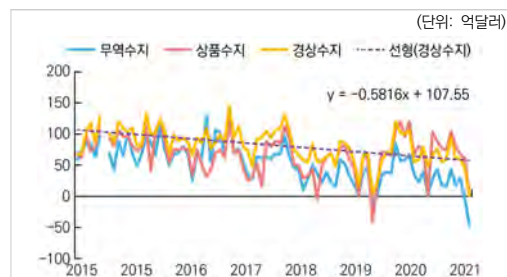


주: 1)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흑자

2) 결산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그림 2]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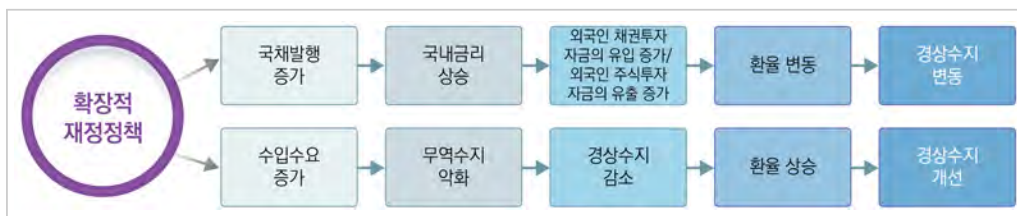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한국은행

1)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1월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2.2.1.

■ 케인지언의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금리와 환율 등을 통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침

- 재정지출의 증가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재정적자를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증가시킬 경우 시장금리를 상승시킴
- 해외자본이 내외금리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외로부터 주식투자 자금의 유출을 초과한 채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경우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킴(환율하락)
- 원화의 절상은 단기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출단가를 높여 수출과 경상수지를 감소시킴
- 한편 재정지출의 증가는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주체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반면, 수입수요를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감소시킴

[그림 3] 확장적 재정정책이 단기 경상수지에 미치는 경로



자료: 이승호(2021)를 재구성

이에 본 분석에서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재정수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경상수지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사용

■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나 본 분석에서는 인구고령화, 국내수요, 교역조건과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²⁾³⁾

2) 윤상규·안동준(2008)은 1991년 1/4분기부터 2008년 2/4분기를 대상으로 경상수지의 결정요인을 분석. 설명변수로 상기 변수 외에 중일 무역비중, 서비스교역비중, 고품질경쟁력 제품 수출 비중을 결정요인으로 고려. 본 모형에서도 이들 자료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최종 모형에서 제외

3) 주옥·민은지·안희정(2021)은 1995~2016년을 대상으로 49개국 패널자료와 IMF의 External Balance Assessment(EBA)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설명변수로 인구구조(노년부양률, 유년부양률, 기대수명 등), 중기거시경제여건(순대외자산, 재정수지, 1인당 생산성, GVC참여도), 경기일시적 요인(GDP갭, 국제유가 및 원유수입국더미), 금융요인(민간신용갭, 실질실효환율), 기타(기축통화국 지위, 산유국 지위)를 고려

- 인구고령화, 국내수요, 해외수요의 대리변수로 각각 노년부양비⁴⁾, 실질국내총생산, 세계수입물량을, 순상품교역조건, 원/달러 환율, 통합재정수지를 설명변수로 고려⁵⁾
- 다만, 세계수입물량과 원/달러 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로 최종 모형에서 제외
- 고령화의 진전은 총저축과 경상수지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됨
- 실질국내총생산이 증가할 때 국내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수입을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출가격이 하락할 경우(교역조건이 악화될 경우) 수입이 증가하거나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분석 기간은 1991~2020년이며, 실질국내총생산을 제외하고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였으나 잔차항에 단위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분하여 추정

$$d(\text{경상수지}_t) = \beta_0 + \beta_1 d(\text{노년부양비}_t) + \beta_2 d\log(\text{실질국내총생산}_t) + \beta_3 d\log(\text{교역조건}_t) + \beta_4 d(\text{재정수지})_{t-2} + \epsilon_t$$

실증분석 결과, 지지난해 재정수지는 당해연도 경상수지와 양(+)의 관계를 보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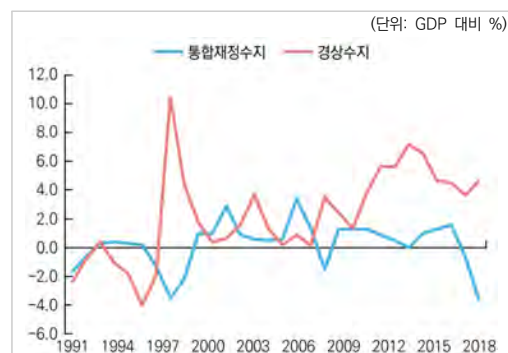
■ 이밖에 노년부양비, 실질국내총생산과 경상수지가 음(-)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교역조건과 양(+)의 관계를 보여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실증분석 결과

변수	계수	표준편차
노년부양비 ¹⁾	-0.019**	0.007
실질국내총생산	-0.323***	0.073
교역조건	0.115**	0.043
재정수지	0.458**	0.185
상수	0.030***	0.006
adj R ²	0.616	

주: 1)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 가능인구(30~64세) × 100

[그림 4]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e-나라지표

4) 노년부양비로 3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사용

5) 경상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단위는 십억 달러, 실질국내총생산은 십억 원, 순상품교역조건은 2015=1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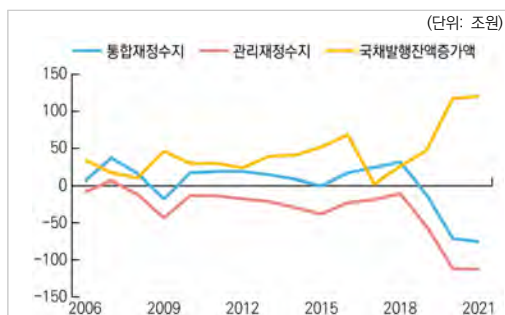
6)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단위를 GDP 대비 비율로 변경하여 분석한 경우, 계수값의 부호나 통계적 유의성이 상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조정결정계수(adj. R²)값은 소폭 개선됨을 확인

다만 2009년 이후 재정수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추정됨

■ 재정수지적자로 인한 국채 발행은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금융당국의 금리 안정화의 노력으로 시장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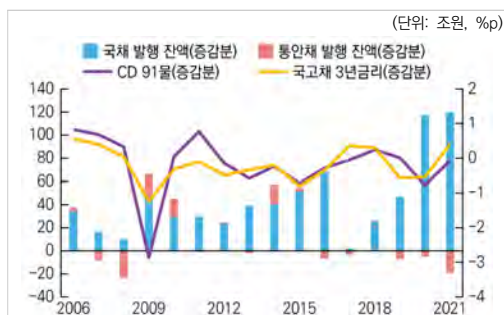
- 예를 들면, 국채 발행잔액은 2021년 기준으로 925.5조원으로, 2020~202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117.4조원, 120.1조원씩 증가
- 국채발행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3년물) 금리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전년대비 -0.54%p, 0.5%p 변동하여 기준금리 변동(-0.75%p, 0.5%p)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이는 한은이 2021년 통안채 발행잔액을 전년대비 19.0조원 감소하는 등 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금리의 상승을 억제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5] 재정수지와 국채발행잔액 증가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6] 국채 발행잔액 증가분 및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e-나라지표

이 밖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상수지가 크게 증가한 것은 대내외 수요와 투자 둔화에 따른 수입의 감소, 국제유가의 하락과 본원소득의 흑자전환 등에 기인⁷⁾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수입 수요 증가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소비재 수입의 경우 2006~2010년 동안 연평균 14.9% 증가한 반면, 2011~2015년 동안 0.6% 감소

■ 국제유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불안, 신흥국의 석유수요 증가, 달러화 약세 등으로⁸⁾ 2011년 1/4분기부터 2014년 3/4분기까지 배럴당 100달러대를 유지하였으나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 증가, 신흥국의 저성장에 따른 수요증가 둔화, 달러화 강세추세, OPEC의 분열 등으로⁹⁾ 2016년 1/4분기 30.5달러로 하락

7) 주옥·민은지·안희정,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조사통계월보』 제75권 제11호, 한국은행, 2021.11, 19~20쪽.

8) 이달석·오세진·김형건, 「2011년 하반기 국제 원유시황과 유가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7.

9) “국내에너지 :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 및 향후 국제유가 전망,”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제54호, 한국에너지공단, 2014.10.17.

-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증가로 순대외금융자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본원 소득수지가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그 규모는 2011~2021년 연평균 85억 달러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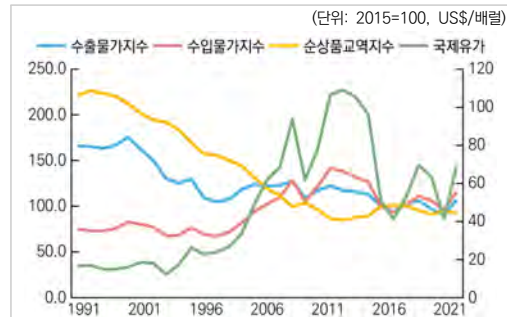
[표 2] 성질별 수입 증감률

(단위: 연평균 증감률, %)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원자재수입	9.3	2.3	3.6
(국제 유가)	(13.0)	(-4.0)	(-0.4)
자본재수입	12.3	1.3	1.9
소비재수입	14.9	-0.6	0.3

자료: 주옥·민은지·안희정(2021) 재인용

[그림 7] 국제유가와 교역조건 추이



주: 1) 국제유가는 두바이 기준,
2) 교역조건이 100이하이면 채산성이 악화됨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e-나라지표

3. 시사점

다른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경상수지도 악화될 수 있고 해당 영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전반에 전이될 수 있음

- 재정수지적자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가중하고 소비 및 투자의 감소로 연계될 수 있음
- 경상수지적자의 확대는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국내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지연,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지속, 원유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라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음

- 원/달러 환율이 2022년 3월 둘째 주에 1,225원으로 전주 대비 20.8% 상승한 가운데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도 배럴당 122.8달러로 전주 대비 16.6% 상승

II.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경제 동향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오현희** 경제분석관(6788-4657)

1. 연구배경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 및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장기목표 수준을 상당기간 상회하면서 FRB의 정책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모습

■ FOMC는 2022년 3.15~16일 회의에서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재 수준(0.00~0.25%)에서 0.25%p 인상(0.25~0.50%)하기로 결정

- 미 연준은 2021년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금리인상, 양적긴축 등을 논의하였으며, 2022년 1월 FOMC에서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긴축속도를 강화
- 미국의 2월 중 신규 고용자수(비농업분야)는 전월보다 67.6만명 증가하여 7개월만에 가장 큰 폭 증가, 2월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9%로 40년만의 최대폭 기록

■ 정책금리는 2022년 말까지 1.9%로 상승한 후 2023년 말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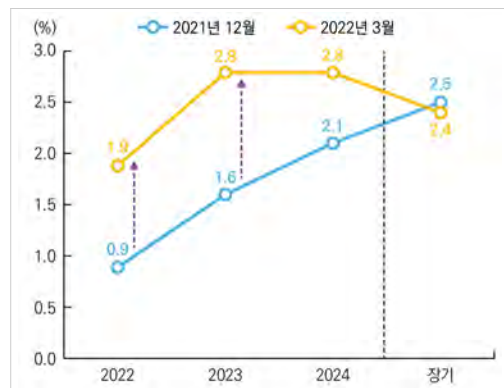
- 정책결정문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명시
- 금년 말 정책금리는 참여위원 다수가 1.75~2.00%(0.25%p 인상기준 7회)를 제시

[그림 1] 미국의 근원물가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그림 2] 미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



주: 회의참석자의 연말 정책금리 예측치의 중간값 기준임
자료: 미 FRB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기준금리 인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기 우리경제지표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경제의 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 2004년 미국의 금리인상기는 IT 버블붕괴 이후 경기회복기

- 미국은 2004~2006년 기간 중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1.00%에서 5.25%로 인상

■ 2015년 미국의 금리인상기는 양적완화 이후 경기회복기

-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2015년말부터 2018년 6월까지 0~0.25%에서 1.75~2.00%로 인상

[표 1]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시기

	2004년 금리인상기	2015년 금리인상기
기간	2004.6월~2006.7월(25개월)	2015.12~2018.12(36개월)
배경	2000년대 초반 금융완화정책으로 풀린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상승에 대응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 환수
인상폭	1.00% → 5.25%	0~0.25% → 2.25~2.50%
특징		2017.10월~2019.8월까지의 자산축소 동시 시행
국내기준금리 변동폭	3.25% → 4.25%(1%p)	1.25% → 1.75%(0.5%p)

[그림 3]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미 F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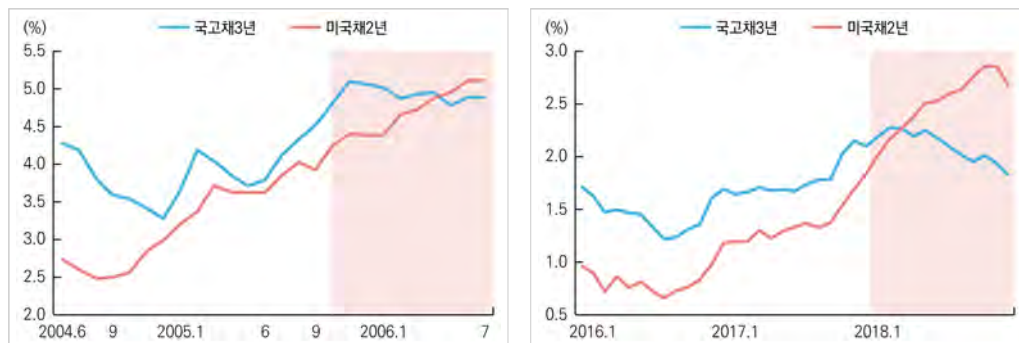
2.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기 국내경제 동향

(국고채 금리) 미국의 금리인상기 국내 금리도 함께 상승하고, 한·미간 금리차는 축소되는 모습

■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인상기 초반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이후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상승세 전환

- 2005년 10월, 2017년 11월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으나, 미국 정책금리에 비해 인상폭이 작아 국내 기준금리와 국채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모두 역전되는 모습

[그림 4] 미국 금리인상기 국고채금리 추이



주: 음영은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역전 시기

자료: Bloomberg

(주식시장) 미국 금리인상이 시작되기 전후 코스피지수 하락세를 보였으나, 금리인상 이후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상승 전환

■ 코스피지수는 미국 금리인상이 시작되기 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금리인상이 시작된 후 2개월 정도까지 하락세를 보임

- 2004년 금리인상기 코스피지수는 금리인상 전후 4개월간 월평균 6.2% 하락
- 2015년 금리인상기 코스피지수는 금리인상 전후 3개월간 월평균 2.1% 하락

■ 그러나 단기하락 이후 코스피지수는 상승세 전환

- (2004년 금리인상기)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국내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 영향 등으로 코스피지수가 꾸준히 상승

- (2015년 금리인상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회복과 실적개선으로 주가지수 상승
- * 2017년 말부터는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미국이 자산축소를 시행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통화정책의 긴축기조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2017.9월), 미국·북한간 갈등 고조, 미중 무역분쟁 등이 코스피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며 지수가 하락

[그림 5] 미국 금리인상기 외국인 주식투자와 코스피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외국인 투자) 미국의 금리인상기 채권과 주식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제한적인 모습

■ 한미간 기준금리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는 2004년과 2015년 모두 순매수를 나타냈으며, 기준금리가 역전된 기간동안에도 순매수세가 지속

- 외국인 채권투자는 2004년 금리인상기 2조 916억원 순매수, 2015년 금리인상기 11조 9,480억원 순유입
- 기준금리 역전시기인 2005.8월~2006.7월, 2018년 3월~2018.12월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각각 1조 6,971억원, 10조 664억원을 기록

■ 외국인 채권투자는 두 번의 금리인상기 모두 순유입을 나타냈는데, 국내경제의 건조한 성장세, 장기투자 중심의 외국인 투자 등으로 인해 채권투자자금 유입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채권자금의 경우 대체로 장기투자자인 국외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금융기구 등 공공자금¹⁾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순유입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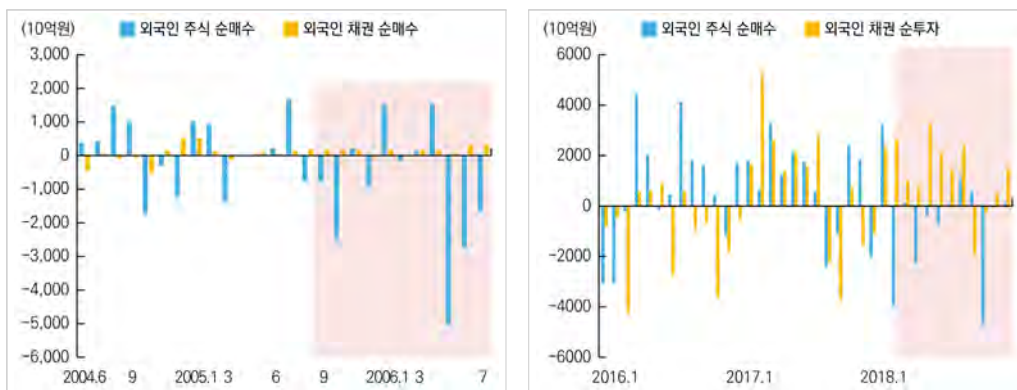
1)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채권투자의 71%가 공공부문(한국은행, 2018)

2) 한국은행(2021)

■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04년 미국 금리인상기 순매도, 2015년 순매수를 기록하여 다른 양상을 나타냄

- 외국인 주식 투자의 경우 2004년 미국 금리인상기 순매도, 2015년 순매수를 보였으나 2015년 금리역전시기에는 순매도로 전환된 모습을 보이는 등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대내외 경제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 모습

[그림 6] 미국 금리인상기 외국인 주식 및 채권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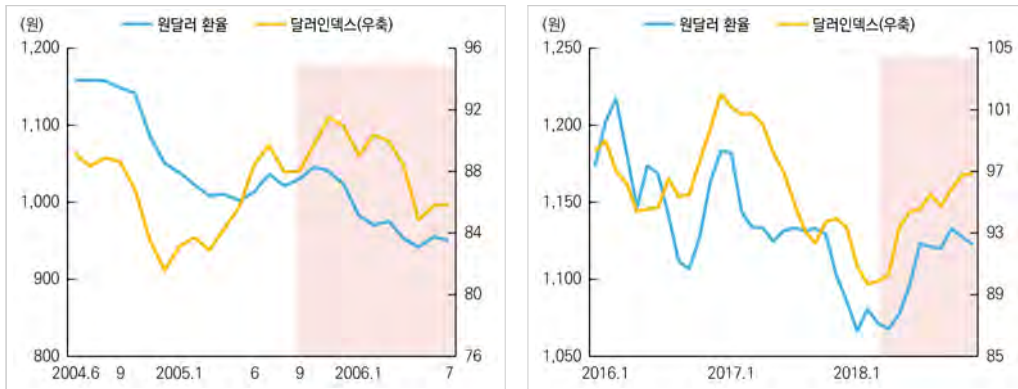
주: 음영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시기

자료: Bloomberg, 금융감독원

(원달러 환율)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으로 달러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기 원화강세 기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남

- 금리보다도 경상수지, 경제성장, 물가, 자본이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환율변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2004년 금리인상기) 2004년 3/4분기~2006년 2/4분기 중 평균 수출증가율 11.4%, 성장률 4.7%로 견조한 성장흐름이 지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임
- (2015년 금리인상기) 금리인상 초기인 2016년 2월 1,217원에서 2018년 1월 1,066원까지 하락하며 원화강세가 나타남
 - 원화강세의 주된 요인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초까지 나타난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증가 등에 기인
 - 2018년부터는 미·중간무역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달러강세 전환

[그림 7] 미국 금리인상기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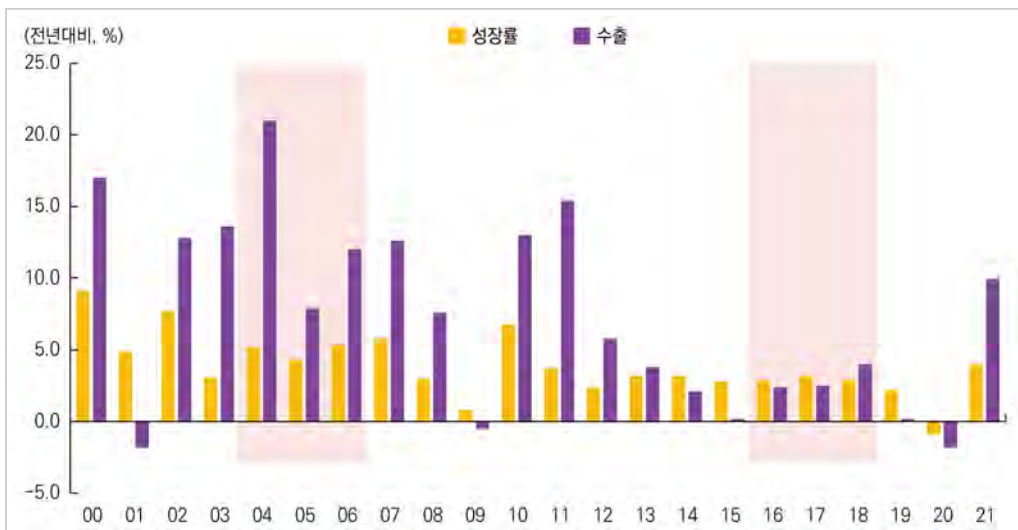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연합인포맥스

(실물부문) 미국의 금리인상기 국내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은 양호한 흐름을 보임

- (2004년 금리인상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기인 2004~2006년 기간 중 국내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은 각각 4.9%, 13.6%를 기록
- (2015년 금리인상기) 2016~2018년 국내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은 각각 3.0%를 기록

[그림 8] 미국 금리인상기 국내 경제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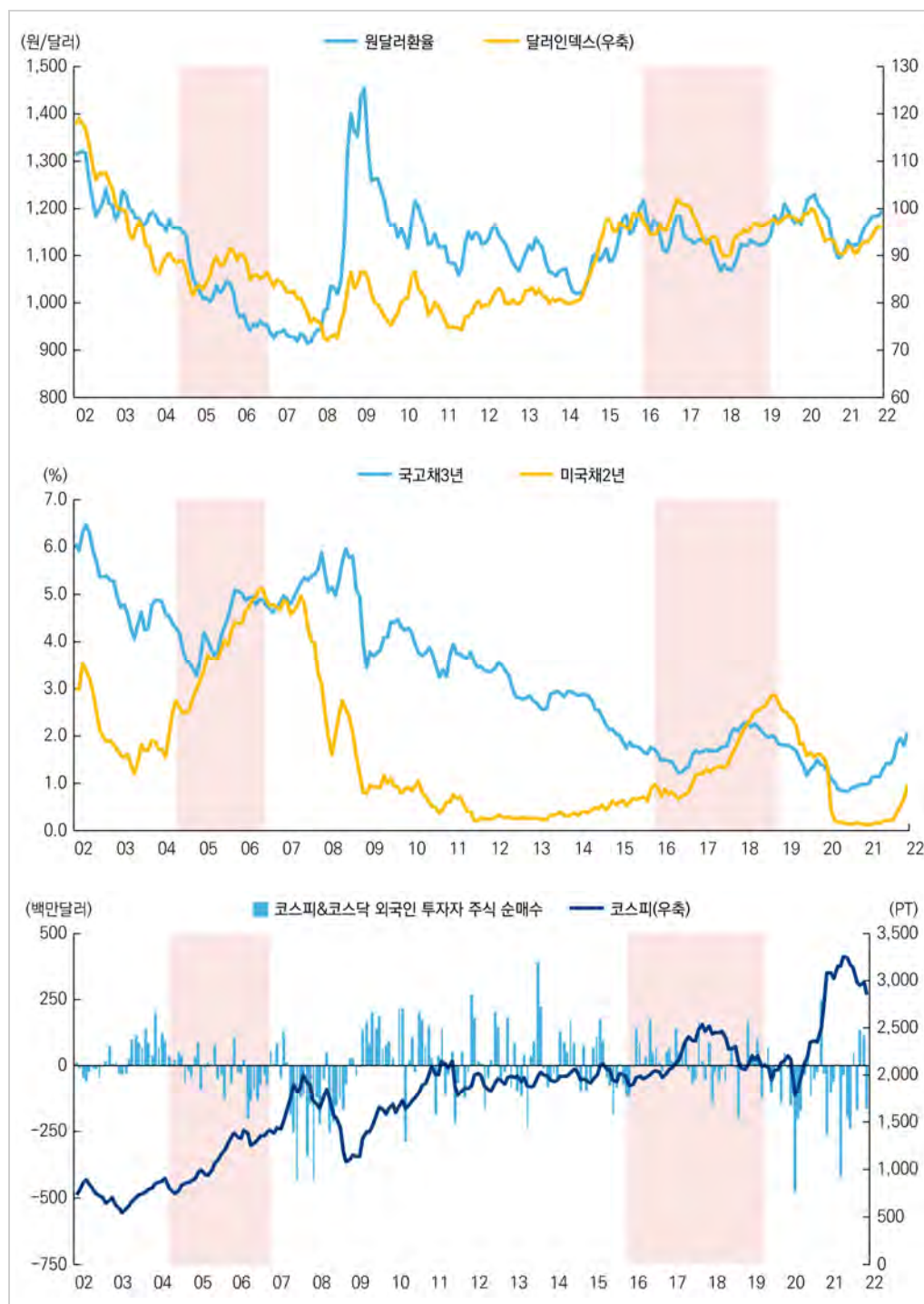
2004년과 2015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부문 모두에 제한적인 모습

- 금융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국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은 제한적
- 주식시장의 경우 금리인상 초반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으나, 금리인상 이후 불확실성의 해소, 양호한 경제상황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을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실물부문의 영향도 크지 않은 편

2022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또한 경제회복세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충격효과는 다소 가변적

-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국내 경기와 물가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대처할 필요

[참고] 미국 금융시장 지표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Bloomberg

Ⅲ. 2021년 4/4분기 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동향 및 특징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권일 (6788-4677)

1. 가계 소득 및 소비지출 동향

(소득) 2021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4만 2천원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분기대비 6.4% 증가(실질소득 2.8% 증가)

■ 근로소득은 4/4분기 중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월평균 임금도 상승함에 따라 전년동분기대비 6.2% 증가

- 2021년 4/4분기 중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61.1만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6.0만명(2.4%) 증가¹⁾
- 업종별로는 제조업 2.5만명, 서비스업 57.1만명, 건설업 3.6만명 증가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020년 4/4분기 354.4만원에서 2021년 4/4분기 372.9만원으로 5.2% 상승²⁾

〈그림 1〉 15세 이상 취업자 수 추이



〈그림 2〉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소득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³⁾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되어 전년동분기대비 8.6% 증가

- 4/4분기 중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의 영향으로 숙박업(23.6%), 여행사업(41.7%), 음식점(17.7%) 등 여행·외식 관련 업종의 생산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서비스업 판매액지수⁵⁾가 전년동분기대비 6.4% 증가하는 등 서비스업 업황 관련 지표가 개선

※ 본 보고서는 통계청의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함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고용노동부, 「2022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2.2.28.

3)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1차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완화(24시까지 허용),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4)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5) 한국은행,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 이전소득은 공적이전소득(10.7%)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소득(-8.6%)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분기 대비 3.9% 증가에 그침

[표 1]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천원, 전년동분기대비 %)

	금액					증감률	
	'20.4분기	구성비	'21.3분기	'21.4분기	구성비	'21.3분기	'21.4분기
소득	4,362	100.0	4,729	4,642	100.0	8.0	6.4
경상소득	4,280	98.1	4,666	4,539	97.8	8.3	6.1
근로소득	2,738	62.8	2,954	2,893	62.3	6.2	5.6
사업소득	937	21.5	885	1,018	21.9	3.7	8.6
재산소득	25	0.6	24	26	0.6	-23.9	3.9
이전소득	580	13.3	804	602	13.0	25.3	3.9
공적이전	375	8.6	583	415	8.9	30.4	10.7
사적이전	205	4.7	221	187	4.0	13.4	-8.6
비경상소득	81	1.9	63	103	2.2	-10.0	26.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021년 4/4분기의 소득증가율은 6.4%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3/4분기 8.0%에는 미치지 못하나 매우 높은 수준이며, 소득 구성 측면에서도 질적으로 개선

- 3/4분기는 국민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한 것에 기인해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이번 4/4분기는 고용상황 호조,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의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

[그림 3] 소득증감을 추이



주: 2019년까지 시계열은 비농림어가 대상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처분가능소득) 2021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8만 3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8% 증가(실질처분가능소득 3.2%)

*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가구에서 소비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85만 9천원으로 구성 항목 중 가구간 이전지출(-5.5%)과 비경상조세(-2.3%)는 감소하였으나, 경상조세(18.8%), 연금기여금(1.8%), 사회보험료(10.3%), 이자비용(4.4%) 등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분기대비 4.8% 증가

*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및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소비지출과 자산구입이 아닌 지출액

- 경상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상관관계가 큰데, 이번 분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상조세와 사회보험료가 큰 폭 증가
- 또한 경상조세에는 종합부동산세(납부기간 12.1~12.15)가 포함되는데, 부동산 가격 인상 효과도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2]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과 비소비지출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금액				증감률	
	'20.4분기	'21.3분기	'21.4분기	구성비	'21.3분기	'21.4분기
처분가능소득	3,542	3,773	3,783	-	7.2	6.8
비소비지출	820	956	859	100.0	11.4	4.8
경상조세	147	262	175	20.4	16.8	18.8
비경상조세	23	25	22	2.6	45.7	-2.3
연금기여금	136	137	139	16.1	7.4	1.8
사회보험료	146	160	161	18.8	12.1	10.3
이자비용	83	87	86	10.0	2.1	4.4
가구간 이전지출	207	209	196	22.8	14.4	-5.5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78	76	80	9.3	-3.2	2.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비소비지출의 증가(4.8%)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상대비중이 더 큰 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6.4%)한 것에 기인

- 2020년 4/4분기는 소득이 1.8%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비소비지출이 0.4% 감소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2.3% 증가한 바 있음

(소비지출) 2021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4만 7천원으로,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8% 증가(실질소비지출 2.2% 증가)

■ 11월부터 시행된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교육(20.6%), 음식·숙박(17.0%), 오락·문화(11.0%), 의류·신발(12.2%) 등 서비스 및 준내구재⁶⁾에 대한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

- 2021년 준내구재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⁷⁾: (1분기) 98.0 → (2분기) 107.0 → (3분기) 108.0 → (4분기) 110.3p

■ 자동차 구입액 감소에 따라 교통(-3.2%)에 대한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방역조치 완화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도 줄어 주거·수도·광열(-0.2%)도 미미하게 감소

- 동남아시아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신차 출고 및 인도 시기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구입액이 감소⁸⁾
-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연도 말 기준)⁹⁾: (2019) 1,804,456대(-1.7%) → (2020) 1,915,743대(6.2%) → (2021) 1,743,212대(-9.0%)

■ 평균소비성향은 67.3%로 전년동분기대비 0.7%p 하락하며 2006년 1인 가구 기준 통계 발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소비지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은 처분가능소득이 소비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

[표 3]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천원, 전년동분기대비 %)

	금액					증감률	
	'20.4분기	구성비	'21.3분기	'21.4분기	구성비	'21.3분기	'21.4분기
소비지출	2,408	100.0	2,544	2,547	100.0	4.9	5.8
식료품·비주류음료	394	16.4	430	404	15.8	5.7	2.3
주류·담배	36	1.5	42	38	1.5	5.3	3.7
의류·신발	144	6.0	106	161	6.3	10.0	12.2
주거·수도·광열	279	11.6	269	279	11.0	2.5	-0.2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28	5.3	140	129	5.1	7.2	1.1
보건	229	9.5	223	233	9.2	3.2	1.8
교통	306	12.7	287	296	11.6	5.8	-3.2
통신	120	5.0	128	128	5.0	3.0	7.1
오락·문화	130	5.4	142	144	5.6	3.7	11.0
교육	127	5.3	221	154	6.0	6.9	20.6
음식·숙박	309	12.9	353	362	14.2	5.2	17.0
기타상품·서비스	204	8.5	202	219	8.6	1.9	7.0
평균소비성향(%)	68.0	-	67.4	67.3	-	-1.5p	-0.7p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6)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주로 저가 상품(의류, 신발, 가방 등)

7) 통계청, 「2021년 연간산업활동동향」, 2022.1.28.

8) 일몰이 예정되었던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일시 감면제도는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어 자동차 구매액 감소에는 영향이 없음. 동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을 1.5%까지 낮춰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도입되었다가, 동년 7월부터는 100만원 한도를 없애고 연말까지 개별소비세율을 3.5%로 적용하기로 하였고 2021년 말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 그러나 2021년 구매한 차량의 인도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2022년 6월까지 재연장 시행.

9)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등록 현황 보고」

■ 4/4분기 소비지출 증가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음

- 2021년 3/4분기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명목 4.9%, 실질 2.3%로 차이가 2.6%p였으나, 4/4분기에는 명목 5.8%, 실질 2.2%로 차이가 3.6%p로 확대됨

2.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

2021년 4/4분기 소득분위별 가구의 소득은 소득 1~5분위에서 모두 전년동분기대비 증가하였고, 소득 1분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5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3% 증가하였고,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13만원으로 6.9% 증가

-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17.1%), 사업소득(7.0%), 이전소득(5.2%)은 증가하였으나, 재산소득(-16.8%)은 감소
- 5분위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7.3%), 사업소득(2.7%), 재산소득(19.7%), 이전소득(6.8%)이 모두 증가

■ 사적이전소득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감소

- 추석 명절이 2020년은 4/4분기인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있었으나 2021년은 3/4분기인 9월 중순에 있었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표 4] 소득 5분위별 소득 구성(2021년 3/4분기)

(단위: 천원, 전년동분기대비 %, %p)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가구원 수	1.49		1.81		2.40		2.90		3.22	
가구주연령	61.5		51.9		49.9		49.7		50.4	
소득	1,058	8.3	2,531	6.0	3,879	6.9	5,612	5.3	10,130	6.9
경상소득	1,048	7.9	2,512	5.8	3,847	6.7	5,562	5.3	9,726	6.1
근로소득	262	17.1	1,452	4.7	2,394	3.4	3,676	4.0	6,680	7.3
사업소득	142	7.0	485	17.3	834	14.9	1,229	14.4	2,402	2.7
재산소득	10	-16.8	15	-24.7	23	14.4	28	1.1	53	19.7
이전소득	634	5.2	560	1.1	596	9.5	628	-2.3	592	6.8
공적이전	462	9.0	404	5.2	438	21.6	407	-2.7	362	26.5
사적이전	172	-3.9	156	-8.1	157	-14.2	221	-1.5	230	-14.3
비경상소득	10	81.2	19	36.4	32	33.7	51	0.8	404	28.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1분위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가구 특성에 기인

- 소득 1분위 가구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1.5세로 가구주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4분위 가구주의 49.7세보다 11.8세 높음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55만 9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2% 증가¹⁰⁾¹¹⁾

처분가능소득은 소득 1~5분위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소득 1분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89만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8% 증가하였으나, 소득 5분위는 810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1% 증가

- 소득 1분위와 5분위 모두 비소비지출 증가율(각각 5.5%, 6.1%)이 소득 증가율(각각 8.3%, 6.9%)보다 낮아 처분가능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
- 1분위의 비소비지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증가에 따라 경상조세(73.4%), 비경상조세(132.6%), 연금기여금(29.8%), 사회보험료(25.2%)가 증가하였고, 5분위는 경상조세(27.7%), 사회보험료(9.8%)가 증가

[표 5]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및 비소비지출 구성(2021년 3/4분기)

(단위: 천원, 전년동기대비 %, %p)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처분가능소득	890	8.8	2,114	5.4	3,199	6.1	4,604	7.2	8,108	7.1
비소비지출	168	5.5	417	8.9	679	10.8	1,008	-2.7	2,022	6.1
경상조세	13	73.4	37	21.0	80	9.8	167	-3.2	578	27.7
비경상조세	5	132.6	11	-3.5	23	231.7	26	-44.3	45	-0.6
연금기여금	13	29.8	67	9.1	117	9.0	186	8.3	310	-6.0
사회보험	30	25.2	82	5.7	138	10.9	209	10.7	346	9.8
이자비용	20	-7.2	54	17.3	83	8.8	113	15.0	160	-5.6
가구간이전지출	60	-14.8	116	4.1	168	9.1	215	-20.4	421	-2.4
비영리단체로이전	28	15.7	50	12.1	70	-1.8	91	4.9	161	-0.4
평균소비성향	134.3	-4.3p	83.2	0.8p	74.5	2.6p	68.0	-1.2p	52.6	-1.7p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1) 4/4분기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대 5.3%, 30대 -0.7%, 40대 0.0%, 50대 2.5%, 60대 이상 6.2%

3. 소득분배 수준

2021년 4/4분기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1배로 전년동분기(4.81배)대비 0.10배p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짐

-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2020년 4/4분기와 2021년 4/4분기 모두 8.8%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변동이 없었던 반면, 소득 5분위는 2020년 4/4분기 2.2%에서 2021년 4/4분기 7.1%로 증가율이 4.9%p 증가함에 따라 5분위 배율이 증가

[표 6]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1인 이상 가구)

(단위: 배, 배p)

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년동분기 대비 변화)
2018	6.31	5.50	5.78	5.70	0.90
2019a	6.19	5.60	5.69	5.51	-0.19
2019b	5.51	4.69	4.83	4.80	-
2020	5.61	4.25	4.92	4.81	0.01
2021	5.20	4.67	4.55	4.91	0.10

주: 1) 2018년과 2019a 자료는 구계열, 2019b와 2020년 이후 자료는 신계열 자료

2) 2019년 개편 후 5분위 배율은 기존 조사와 상이한 표본체계와 조사방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기존 조사에서 작성된 5분위배율과 비교 불가능

3)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 처분가능소득 / $\sqrt{\text{가구원수}}$

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5분위) / 하위 20%(1분위)

자료: 통계청

4. 주요 특징

2021년 4/4분기 중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은 취업자 수 증가, 월평균 임금 상승과 함께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심리도 회복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월평균 임금도 상승하며, 근로소득이 증가하였고,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되어 사업소득이 증가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반 증가

■ 2021년 4/4분기의 소득증가율은 6.4%로 높은 수준이며, 소득증가율 구성 측면에서도 3/4분기에 비해 질적으로 개선

- 3/4분기는 국민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해 높은 소득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이번 4/4분기는 고용상황 호조,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의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

가계의 지출을 구성하는 비소비지출과 소비지출이 전년동분기대비 모두 증가

■ 비소비지출 중 경상조세, 사회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

- 경상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상관관계가 큰데, 2021년 4/4분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
- 또한 경상조세에는 종합부동산세(납부기간 12.1~12.15) 등이 포함되므로, 부동산 가격 인상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소비지출은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교육, 음식·숙박, 오락·문화, 의류·신발 등 서비스 및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5.8% 크게 증가

-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이 소비지출보다 더 높은 6.8%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2006년 1인 가구 기준 통계 발표 이후 최저 수준인 67.3%를 기록
- 소비지출의 명목증가율과 실질증가율 차이가 3/4분기 2.6%p에서 4/4분기 3.6%p로 확대되어, 4/4분기의 소비지출 증가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1배로 전년동분기(4.81배)대비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짐

-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2020년 4/4분기와 2021년 4/4분기 모두 8.8%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변동이 없었던 반면, 소득 5분위는 2020년 4/4분기 2.2%에서 2021년 4/4분기 7.1%로 증가율이 4.9%p 증가함에 따라 5분위 배율이 증가

IV.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 작성의 보안방안 연구

-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통계를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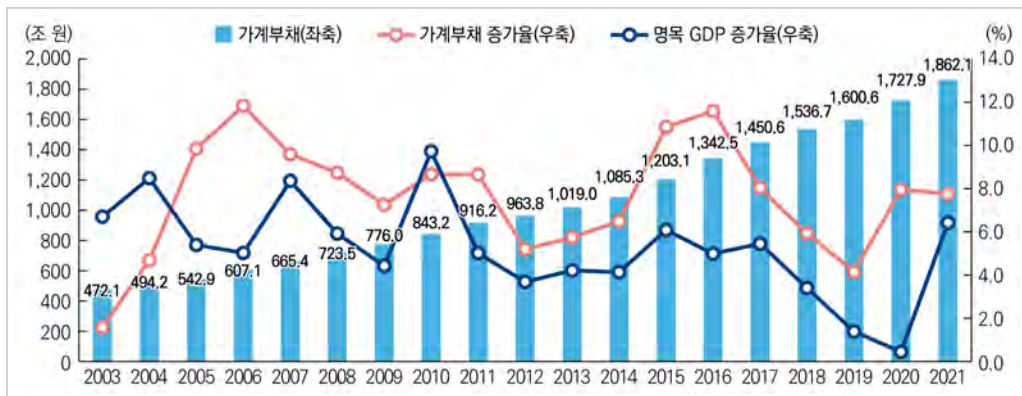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상미 분석관(6788-4752)

1. 분석배경

2021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62조원으로, 2002년부터 약 20년간 연평균 7.6%씩 증가하여 동 기간의 명목GDP 연평균 증가율 5.2%를 상회

- 2002~2021년 동안의 명목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5.2%에 그쳐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속도가 경제규모의 성장속도를 초과

[그림 1] 우리나라 가계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부채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나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가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

- 부채의 활용은 경제주체의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을 완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지만,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¹⁾

1) Cecchetti, S., M. Mohanty, and F. Zampoli, "The Real Effect of Debt", BIS, 2011.9.
World Economic Forum(2010), "More Credit Fewer Crisis", December 2010, 참조. 과다부채 임계치 수준(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으로 World Economic Forum(2010)은 75%, Cecchetti et al.(2011)은 85%를 제시함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BIS): 71%(2008년) → 80.1%(2014년) → 91.8%(2018년) → 103.4%(2020년)

■ 가계부채의 규모 및 위험성 전이 가능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속적인 가계부채의 증가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규모 및 위험성 전이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존재해야 함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와 급격한 증가세가 경제 위험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기 되는 상황

■ 가계부채 통계에 대한 개선과 임대보증금 포함여부에 대한 2가지 논의를 정리하고자 함

첫 번째 논의는 가계부채 통계의 세분화 필요성임

■ 가계부채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로 주로 사용하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는 대출(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

■ 주택담보대출 통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가계부채 위험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통계 필요성이 제기됨²⁾

- 가계신용통계의 주택담보대출은 ①일반 주택담보대출, ②집단대출³⁾, ③전세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세부 대출유형별 통계는 부재한 상황
- 각각의 대출은 다른 수요·공급 요인과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부 통계가 필요

두 번째 논의는 가계부채에 임대주택 보증금 포함 필요성임

■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의 총량으로 집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음

- 다만 우리나라는 임대차 시장의 특수성(전세제도 존재)으로 인하여 가계 간 직접금융 형태의 부채가 (임대보증금)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음

■ 가계부채 총량 규모를 제대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통계에 전세(준전세 포함) 보증금의 규모를 포함하여 가계부채의 총체적 규모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됨⁴⁾

2) 신인석(2022), "가계부채 증가구조의 이해와 정책방향", 예산춘추 vol.65

3) 집단대출이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잔금대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 현황을 살펴보고, 가계부채 관련 통계자료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2.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통계와 규모에 대한 2가지 이슈

가. 가계부채 통계의 세분화 필요

가계부채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로 주로 사용하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는 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

■ 주택담보대출에는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⁵⁾, 전세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 대출유형별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유형별로 자료 제공을 위한 세부통계 구축작업 중이나 구체적인 공표일정은 미정

■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동향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유형별 증감액 자료를 공표하고 있으나, 대출 총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⁶⁾

- 2022년 2월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8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유형별로는 전세대출(1.4조원), 집단대출(0.5조원), 정책모기지(0.2조원), 일반주택담보대출(-0.3조원)로 나누어 공표
-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세부항목 대해서만 공표하여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증감액만을 공표함에 따라 세부항목별 규모를 확인할 수 없음

신인석(2022)은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3개 기간에 대해 증가요인이 상이하며,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위해 세분화된 통계자료가 필요함을 주장⁷⁾

4) 김세직·고제현(2018),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경제논집 제57권 제1호, Hyun Shin & Se-Jik Kim, 2013. “Financing Growth without Banks: Korean Housing Repo Contract,” 2013 Meeting Papers 328,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서영수(2019),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페이지21, 참조

5) 집단대출이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잔금대출 등이 있다.

6) 금융위원회(2022), “2022년 2월 가계대출 동향”보도자료

7) 신인석(2022), “가계부채 증가구조의 이해와 정책방향”, 예산춘추 vol.65

- 1기(2005~2007년)에는 주택가격 상승을 동반한 일반주택담보대출 증가, 2기(2015~2016년)는 신규분양아파트 증가에 따른 집단대출 확대, 3기(2020년)에는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

-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각기 다른 수요공급 요인과 위험구조를 나타내므로 정확한 사실 파악과 분석을 위한 세분화된 통계자료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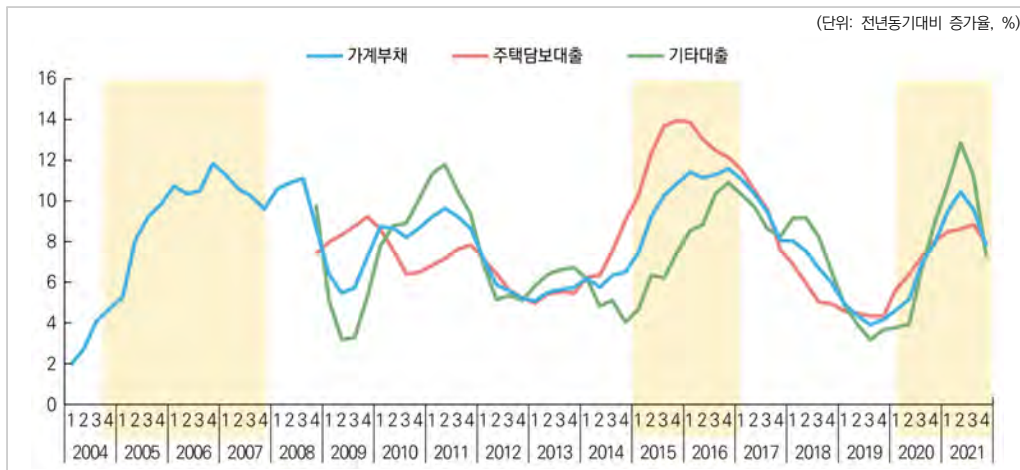
그러나 대출이 유형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통계 세분화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파악 및 정책설계가 어려울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율(그림 2)을 살펴보면, 2기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한 것으로 보이나, 3기에는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세대출 이외의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

- 특히 대출유형과 자금사용처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세분화된 통계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정확한 사실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⁸⁾

- 일반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으므로 주택구입 이외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으며,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신용대출을 이용하여 주택구입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음

[그림 2] 우리나라 가계부채 유형별 증가율 추이



주: 노란색 음영은 신인석(2022)의 가계부채 급등기를 표시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8)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8,187가구 중에서 담보대출이 있는 6,118가구의 대출용도(중복응답가능)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주택구입(3,903가구, 63.8%), 전세보증금마련(928가구, 15.2%) 이외에도 사업자자금마련(805가구, 13.2%), 생활비마련(665가구 10.9%)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나. 가계부채에 임대보증금 항목 포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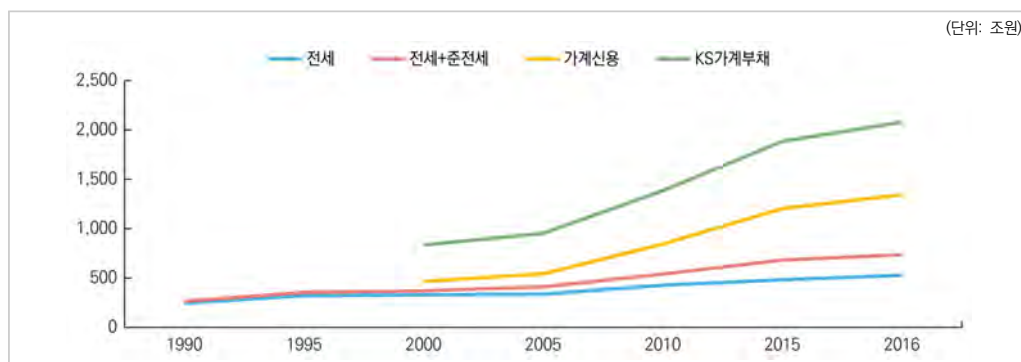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존재하지 않아 가계부채의 위험구조가 다를 가능성이 있음

- 김세직·고제현(2018), Hyun Shin & Se-Jik Kim(2013), 서영수(2019) 등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준전세 포함) 보증금의 규모를 포함하여 가계부채의 총체적 규모를 파악할 필요성을 주장

김세직·고제현(2018)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해야 하며, 포함 시 가계부채 규모는 현재의 가계신용통계보다 큰 규모일 수 있다고 주장⁹⁾

- 전세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집계하는 것이 적절하나, 우리나라의 임대보증금도 부채이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가계부채 규모를 과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임
-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가계신용(1,342.5조원)에 임대보증금 추정치(735.5조원)를 합산한 결과 2016년 가계부채 총액은 2,078조원으로 GDP의 127%에 달함
 -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과 준전세보증금을 합한 것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은행 전세가격, 주거실태조사 등을 이용하여 추정

[그림 3] 우리나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이



주: 2000년 가계신용은 2002년 수치

자료: 김세직·고제현(2018)

9) 김세직·고제현(2018),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 경제논집 제57권 제1호 참조

우리나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추정치를 비교해보면, 활용 자료 및 방법에 따라 추정치의 차이가 커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¹⁰⁾

■ 임대보증금을 추정한 연구들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동일한 자료를 이용했다고 해도 추정방법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큼

- 두 연구에서 동일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연도별 추정치의 최대 차이는 2011년 80조 원으로 약 24.3%의 차이가 존재함

[표 1] 선행연구에서 추정한 임대보증금 규모

(단위: 조원, %)

연도	노영훈(2015)		고제현·홍정의(2016)	추정규모 비교	
	주거실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A)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계신용 통계 (B)	차이 (C=B-A)	비율 (D=C/A)
2006	223.03	-	-	-	-
2008	262.40	-	-	-	-
2010	314.55	290.15	329	38.9	13.4
2011	-	329.02	409	80.0	24.3
2012	518.97	399.00	455	56.0	14.0
2013	-	428.68	475	46.3	10.8
2014	444.02	429.53	502	72.5	16.9
2015	-	-	517	-	-

자료: 고제현·홍정의(2016), 노영훈(2015)

■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

- 2021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규모는 1,805.8조원(금융부채 1,337.3조원 + 임대보증금 468.5조원)으로 나타남¹¹⁾
- 동일시점의 금융부채만을 집계한 가계신용통계 1,764.6조원과 40조원 차이에 그침

10) 노영훈(2015), "주택전세제도와 보증금 간주임대소득과세", 2015 한국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고제현·홍정의(2016), "주택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HF 이슈리포트 16-14호, 참조

11)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가구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가계당 평균 부채(금융부채+임대보증금) 8,801만원 × 20,516,728 가구 = 1,805.8조원에 달함.

3. 결론 및 시사점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리스크 분석 및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세부적인 통계자료 구축화가 필요¹²⁾

■ 주택담보대출의 종류별 규모에 대한 통계 구축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 및 연구 활성화 가능

- 일반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구분한 세부 통계가 존재할 경우 각각의 수요 공급 요인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다만 부채유형과 자금사용처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세분화된 통계만으로 정확한 사실 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전세제도로 인한 임대보증금과 같은 가계 간 직접금융의 규모를 가계부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간접금융(대출) 규모뿐만 아니라 가계 간 직접금융의 형태인 임대보증금의 규모를 포함하여 가계부채 총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

-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임대차 제도(전세)의 존재로 인해 가계 간 직접 금융의 규모가 크고, 주택가격 하락 등의 충격 발생 시 가계 간 재무위험성 전이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임대보증금 규모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가계부채 규모에 단순히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위험성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존재

- 향후 임대차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가계부채 리스크 분석에 활용할 필요

12) 신인석(2022), 김세직·고제현(2018), 서영수(2019), 한국은행(2021) 등을 참조.

〈BOX〉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 작성 현황

■ 가계부채 통계에는 가계신용,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이하 개인부채), 가계금융·복지조사상 가계부채가 있음

- **가계신용**은 가계가 생활 및 부업 등을 위해 받는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를 통한 외상거래를 뜻하는 ‘판매신용’으로 구분됨
 - 가계부채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로, 금융기관 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며, 2002년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
-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가계 뿐 아니라 소규모 개인기업과 민간 비영리단체의 부채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가계신용보다 광의의 개념임
 -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금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하여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통계(자금순환표)상의 개인부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 편제기준(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고 있어 국가간 비교에 상용되며 1965년부터 분기별로 제공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이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3월 자산·부채 현황을 조사한 것임
 -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가계의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 및 변화 등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년마다 설문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

통계 종류		범위
가계신용 (A+B)	가계대출(A)	• 가계가 생활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 •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판매신용(B)	•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를 통한 외상거래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 가계, 소규모 개인기업, 민간 비영리단체(소비자단체·자선구호단체·종교단체 등)의 부채
가계금융복지조사		•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3월 부채 현황을 조사

PART

3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이슈

I.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개선효과 실증분석:

OECD국가를 중심으로 130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개선효과 실증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허가형 경제분석관(6788-4751)

국가별 환경의 질은 지역별 소득별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경로와 연계된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필요

- OECD(2020)에 따르면 대기질 수준을 국가별로 구분할 때 저소득국가보다 중하위소득 국가의 대기질이 더 낮으며, 중상위소득 국가의 대기질은 저소득국가보다는 근소하게 좋고 고소득국가보다는 크게 낮음
 - 중하위소득 국가의 대기질은 2000년 이후 크게 악화된 반면, 중상위국가는 2010년 이후 개선되어 환경의 질이 경제성장과 정비례하지 않음
-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환경쿠즈네츠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 초기에는 환경의 질이 나빠지만 일정 소득수준을 넘어서면 환경 질이 개선되는 역U자 현상을 통해 실증

OECD국가의 온실가스배출량과 폐기를 발생량에 대한 패널분석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존재함을 확인

-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을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를 1인당 GDP, 그리고 통제변수들을 추가하여 패널분석한 결과,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다 정점 이후 감소하는 역U형 곡선이 나타남
 - 제조업 비중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며, 인구밀도와 연구개발은 배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쿠즈네츠곡선이 존재하지 않음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질 개선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

-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물질은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전형적인 사례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오염물질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나, 온실가스배출량은 이러한 소득전환점이 높은 수준이므로 추가적인 지구 공동의 노력이 필요
- 폐기물은 소득수준보다 인구밀도와 산업구조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주요 국가는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를 주요 국가정책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서 꾸준한 관심 필요

※ 본 원고는 OECD와 IEA의 통계자료와 선행 연구 및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1. 환경과 성장의 관계

가. 주요국의 대기환경 현황

세계의 국가별 대기환경은 지역별 소득분류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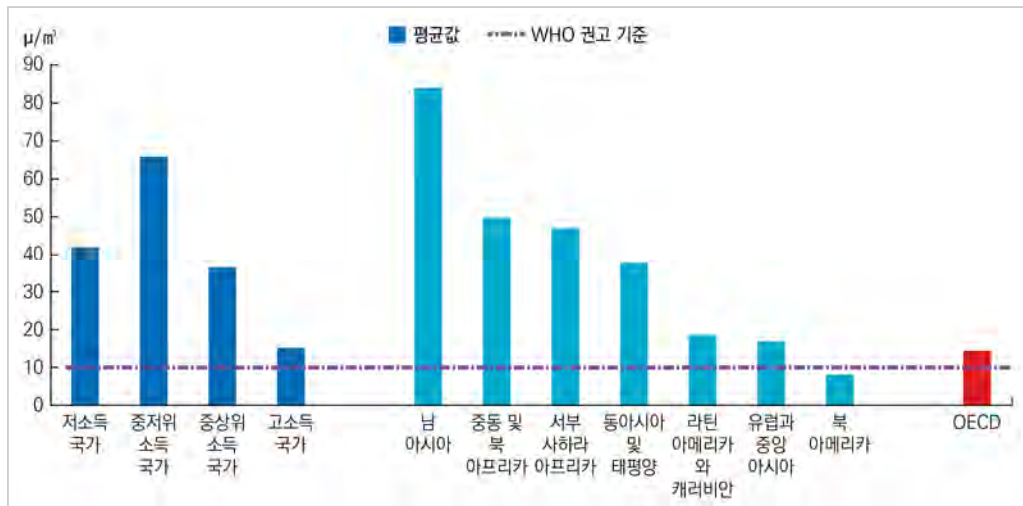
■ OECD(2020)에 따르면 대기질은 지역별로 구분할 때, 남아시아에서 가장 낮으며 중동과 남미,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및 중앙아시아, 북미 순으로 좋아짐

- 대기질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깨끗한 대기환경은 유엔 지속가능성장목표(UN SDG) 11에 해당

■ 소득에 따른 국가군으로 구분할 때¹⁾, 저소득국가보다 중하위소득 국가의 대기질이 더 나쁘며, 중상위 소득국가의 대기질은 저소득국가보다는 근소하게 좋고 고소득국가보다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기질 수준은 북미 국가만 충족하며, OECD국가 평균은 기준을 다소 초과함

[그림 1] 세계의 지역별 소득분류별 대기오염(2019)



주: 인구가중치를 고려한 국가별 주요도시의 PM2.5(μg/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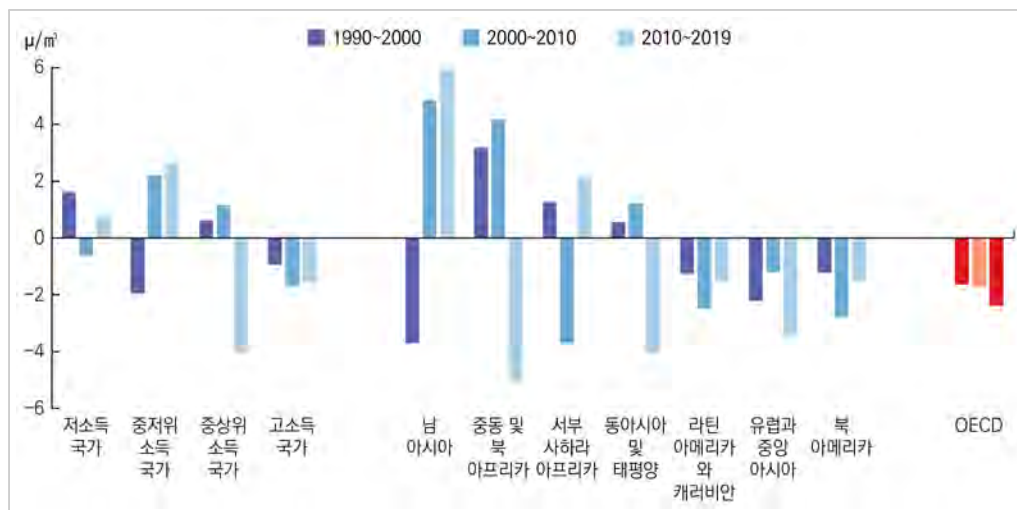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189260>)

1) 소득에 따른 국가군의 분류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1인당 GNI를 이용하며, 저소득국가는 \$1,006 이하, 중저위소득국가는 1,006~3,955, 중상위소득국가는 \$3,956~12,235, 고소득국가는 \$12,237 이상으로 분류 (2020년 분류기준은 2016년의 1인당 GNI를 이용)

세계의 국가별 대기 환경은 시기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며, 중하위소득 국가와 중상위소득 국가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1990년 이후 국가별 대기질을 10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 중하위소득 국가의 경우 2000년 이후 20년동안 대기질이 크게 악화된 반면, 중상위소득 국가는 2010년까지는 대기질이 악화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은 대기질이 크게 개선
 - 중하위소득 국가와 중상위소득 국가의 대기질 변화가 반대로 나타남
- 고소득 국가의 대기환경질은 1990년 이후 지속 개선되었으며, OECD 국가는 1990년 이후 대기질 개선 폭이 지속 확대됨

[그림 2] 세계의 지역별 소득분류별 대기오염도 변화(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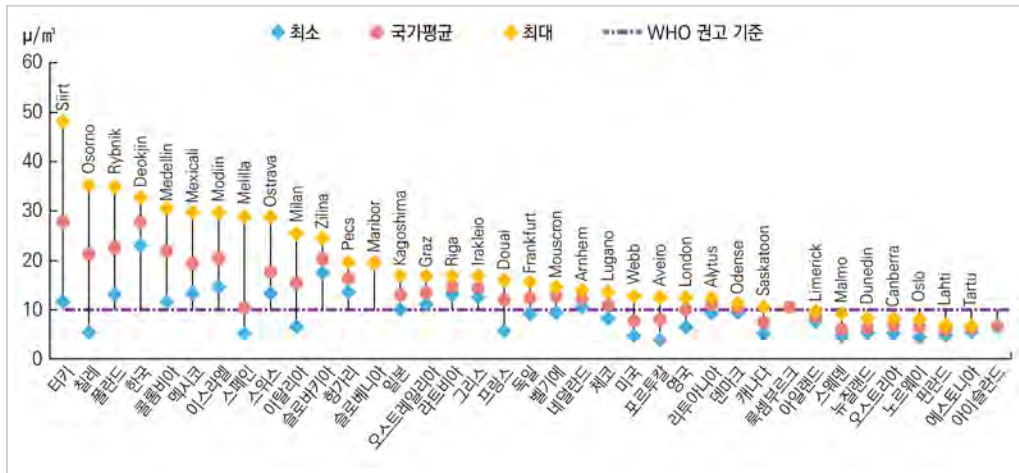
주: 인구가중치를 고려한 국가별 주요도시의 PM2.5($\mu\text{g}/\text{m}^3$)의 변화분

자료: OECD (2020c), "Metropolitan areas", OECD Regional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data-00531-en>)

OECD 국가별 대기 환경은 시기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며, 중하위소득 국가와 중상위소득 국가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의 도시를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우리나라는 터키, 칠레, 폴란드에 이어 4번째로 대기질이 나쁘며, 국가 평균으로 하면 OECD내 두 번째로 대기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남
 - 미국과 북유럽 국가의 대기질은 대부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선 아래를 유지

[그림 3] 국가내 도시간 대기질의 차이



주: 인구가중치를 고려한 국가별 주요도시의 PM2.5($\mu\text{g}/\text{m}^3$)

자료: OECD,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0(<https://doi.org/10.1787/888934189298>)

나. 환경쿠즈네츠곡선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환경쿠즈네츠곡선은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역U자형으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환경의 질이 나빠지지만, 일정 소득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의 질이 개선되는 현상을 의미

■ 쿠즈네츠곡선(Kuznets curve)은 노벨경제학자 쿠즈네츠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정의한 것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소득 격차가 커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소득 불평등이 점차 개선되는 현상을 의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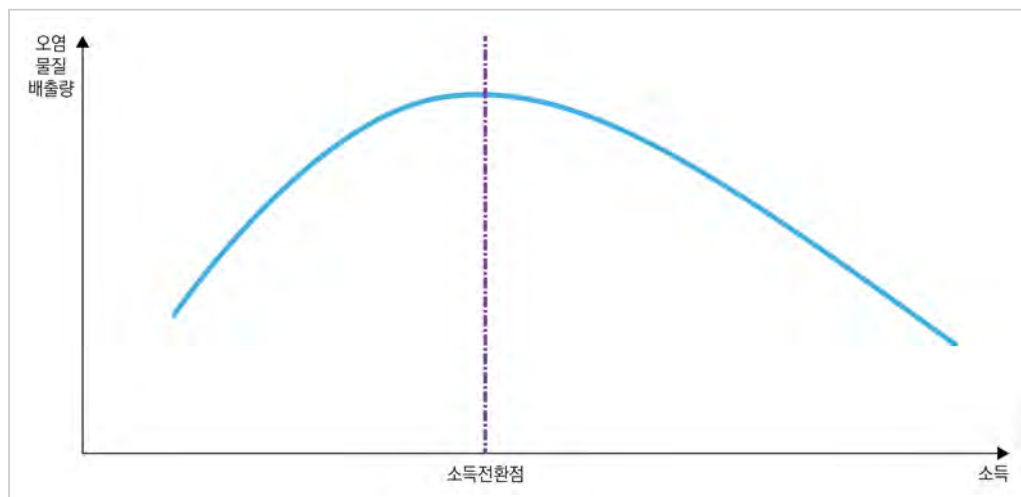
■ Grossman-Krueger(1991)³⁾는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에도 쿠즈네츠 곡선이 나타나며 이를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하 'EKC')으로 정의

-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환경오염이 심해지지만, 일정한 소득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서 환경오염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
- 따라서 경제성장이 시작된 중하위소득 국가의 환경 질이 빠르게 나빠져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고, 중상위소득 국가의 환경오염은 완만하게 개선되는 [그림1]은 국가단위의 환경쿠즈네츠 곡선을 대표적인 형태임

2) Kuznets, Sim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no. 1,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55, pp. 1-28, <http://www.jstor.org/stable/1811581>.

3) Grossman, G.M. and Krueger, A.B., Environmental Impacts of 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IT Press, Cambridge, MA, USA, 1991

[그림 4] 환경쿠즈네츠 곡선(EKC)



- 환경쿠즈네츠곡선은 황산화물(SO_x)과 분진 같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과 같은 공공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대해서는 OECD국가에서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소비활동과 연계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는 최근 통계를 이용한 EKC 실증이 필요

다. 선행연구

환경과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기술개발과 규제를 통해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물질은 환경쿠즈네츠곡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지표의 경우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음

- 대기오염물질(SO_x , 분진 등)과 수질오염(수중 화학적·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수중 중금속 함량 등)에 대한 환경쿠즈네츠곡선 실증은 대부분 확인됨
 - Grossman and Krueger(1995)⁴⁾은 이산화황(SO_2), 매연(Smoke), 분진(Heavy particles), 수질 오염물질(BOD, COD, DO), 수중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하여 1인당 GDP가 1만\$에 이르면 환경개선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 환경이 개선된다고 주장

4) Grossman, G.M. and Krueger, A.B., Economic Growth and the Environ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0, no.2,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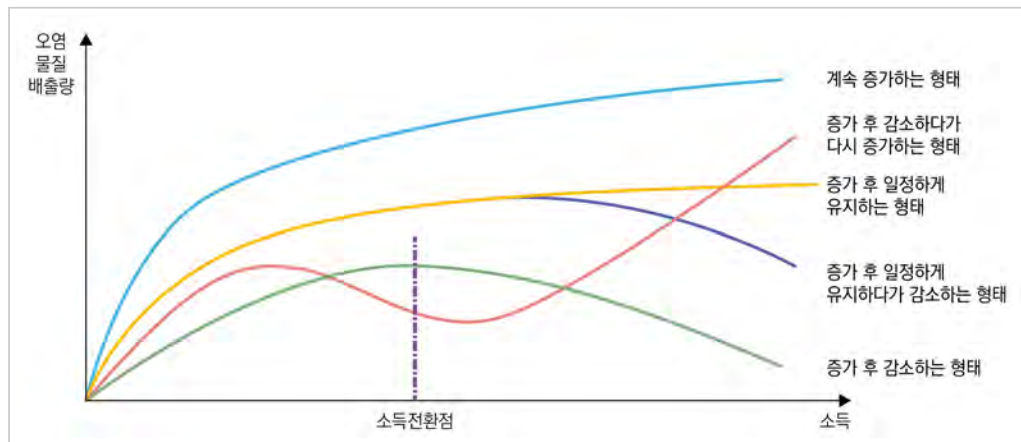
- Seldon and Song(1994)⁵⁾은 부유분진(SPM)과 이산화황(SO₂), 질소산화물(NO_x), 일산화탄소(CO)와 경제성장에 대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한 패널분석으로 환경 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양이며 역 U자 형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이나 소비구조가 변하는 동시에 환경정보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 김용빈(2015)⁶⁾은 OECD 34개국의 1980~2012년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온실가스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황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환경쿠즈네츠곡선이 존재함을 확인

■ 에너지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NO_x와 온실가스배출량은 분석시점과 대상국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 후 다시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도 존재

- Grant Hauer and C.Ford Runge(2000)⁷⁾은 SO_x는 소득 증가와 함께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NO_x는 EKC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또한 선진국의 1인당 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하더라도 개도국보다 많은 수준이며, 자국내 환경질을 위해오염물질의 개도국 확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
- Allard et al.(2017)⁸⁾은 1994~2012년의 74개국 데이터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 이후 감소했다 다시 증가하는 N자형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 Dasgupta et al.(2002)⁹⁾은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오염이 꾸준히 증가하는 형태와 일정량의 환경오염수준에 도달한 후 미세한 증가와 감소를 유지하는 형태도 있다고 주장
- 다만 2000년 이전 연구에서 온실가스(CO₂)에 대한 EKC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가 있는데 비해(Shafik(1994)¹⁰⁾, Ekins(1997)¹¹⁾, Agras and Chapman(1999)¹²⁾ 등), 2000년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서는 CO₂에 대해서도 EKC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다수(Galeotti et al.(2006)¹³⁾, Maneejuk et al.(2020)¹⁴⁾)

5) Seldon, T., Song, D., Environmental Quality and Development : Is there a Kuznets Curve for Air Pollution Emiss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27, 147-162, 1994
 6) 김용빈, "환경쿠즈네츠곡선을 활용한 대기오염 배출량의 오일 가격 탄력성과 사회적비용 탄력성 추정", 에너지경제연구, 2015 제14권 3호
 7) Hauer, & C. Runge, Transboundary pollution and the Kuznet's curve in the global common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innesota
 8) Allard, A., J. Takman, G.S.Uddin, A.Ahmed, The N-shaped environmental Kuznets curve: an empirical evaluation using a panel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25:5848-5861, 2018
 9) Dasgupta, P., B. Laplante, H. Wang and D. Wheeler, Confronting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1, pp. 147-169, 2002
 10) Shafik, N. 1994.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quality: an econometric analysis". Oxford Economic Papers, 46: 757-773
 11) Ekins, P. 1997, The Kuznets curve for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examining the evidence, Environment and Planning, volume 29, p.805-30
 12) Agras, J. and D. Chapman. 1999. "A dynamic approach to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hypothesis". Ecological Economics, 28(2): 267-277
 13) Galeotti, M., A. Lanza, and F. Pauli. 2006. "Reassessing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for CO2 emissions: A robustness exercise". Ecological Economics, 57: 152-163
 14) Maneejuk, N., Ratchakorn, S., Maneejuk, P., Yamaka, W., Does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xist? An International Study, Sustainability, 2020

[그림 5] 환경쿠즈네츠곡선의 다양한 형태



자료: 김용빈(2015), Dasgupta et al.(2002)

환경쿠즈네츠곡선이 존재한다면 소득증가에 따라 환경이 개선되는 전환점을 추정함으로써 국내 환경정책의 기준선으로 설정할 수 있음

■ Schmalensee et al.(1998)¹⁵⁾은 1950~1990년 47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해 소득전환점이 9,799~19,627\$임을 보였으며, Unruh and Moomaw(1998)¹⁶⁾은 16개 OECD국가의 소득전환점은 11,426\$로 1970년대에 이미 소득전환점을 통과했음을 보임

- 실제로 북미와 주요 EU국가의 경우 1970년대에 온실가스배출량 정점을 기록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배출량 소득전환점은 조상섭 등(2001)이 17,331~66,934\$로 제시했으며, 이광훈(2010)¹⁷⁾은 1990~2007년을 5개 광역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370~2,115만원으로 전망한 바 있음

-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소득전환점은 구간이 지나치게 넓거나, 과소추정되어 보다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소득전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에 따라 자연스러운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규제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

- 소득전환점은 경제성장 단계와 산업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군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시사점을 제공

15) Schmalensee, R., Stoker, T. and R. Judson, 1998, "World Carbon Dioxide Emissions : 1950-2050",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0, pages 15 - 27

16) Unruh, G. C. and W. R. Moomaw, 1998, "An Alternative Analysis of Apparent EKC- Type Transitions", Ecological Economics vol.25, pages 221 - 229

17) 이광훈, "국내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환경쿠즈네츠 곡선 추정 및 비교", 환경정책연구 94(4), 2010

- 다만 EKC가 존재하더라도 대부분 국제무역을 통해 제조업 특히 오염산업의 재배치에 따른 것으로 EKC가 지구적 관점에서 환경개선의 시사점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음(Arrow et al.(1995), Stern et al.(1996), Grant Hauer and C.Ford Runge(2000))

2. 온실가스배출량의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 분석모형

환경쿠즈네츠곡선의 실증분석에서 기본 모형으로 이용되는 Seldon and Song (1994)의 모형을 이용하여 OECD국가의 온실가스배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

-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을 종속변수로 1인당 GDP와 인구변수, 산업구조 변수를 추가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
 - Seldon and Song(1994)¹⁸⁾의 연구는 1인당 GDP에 대해 정점이 존재하는 2차식으로 구성되며, Grossman and Krueger(1995)¹⁹⁾는 3차식으로 설정하고 연구에 따라 소득 외 설명변수를 반영
- 온실가스배출량과 소득 간에 비선형 2차식 관계의 환경쿠즈네츠곡선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2차식으로 설정

$$EM_{i,t} = \alpha + \beta_1 Y_{i,t} + \beta_2 Y_{i,t}^2 + \beta_3 Z_{i,t} + c_i + v_t + u_{i,t} \quad (1)$$

- $EM_{i,t}$ 1인당 배출량 (tonnes of CO₂eq /인)
- $Y_{i,t}$ 1인당 GDP (2015년 기준, \$/인)
- $Z_{i,t}$ 통제변수벡터 (ln 인구(명), 제조업비중(%), 인구밀집도(명/km²), ln 환경기술투자)
- c_i 국가 효과

18) 전계서

19) 전계서

- ν_t 연도 효과
- $u_{i,t}$ 오차항

환경쿠즈네츠곡선의 실증은 계수값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기준인 소득전환점을 구할 수 있음

■ $\beta_1 > 0$, $\beta_2 < 0$ 인 경우 환경쿠즈네츠곡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득전환점이 존재

- 소득전환점은 소득증가에 따라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1인당 실질소득 수준을 의미하며, 식(1)을 1차 미분하여 도출
- 소득전환점 $Y^* = -\frac{\beta_1}{2\beta_2}$

나. 입력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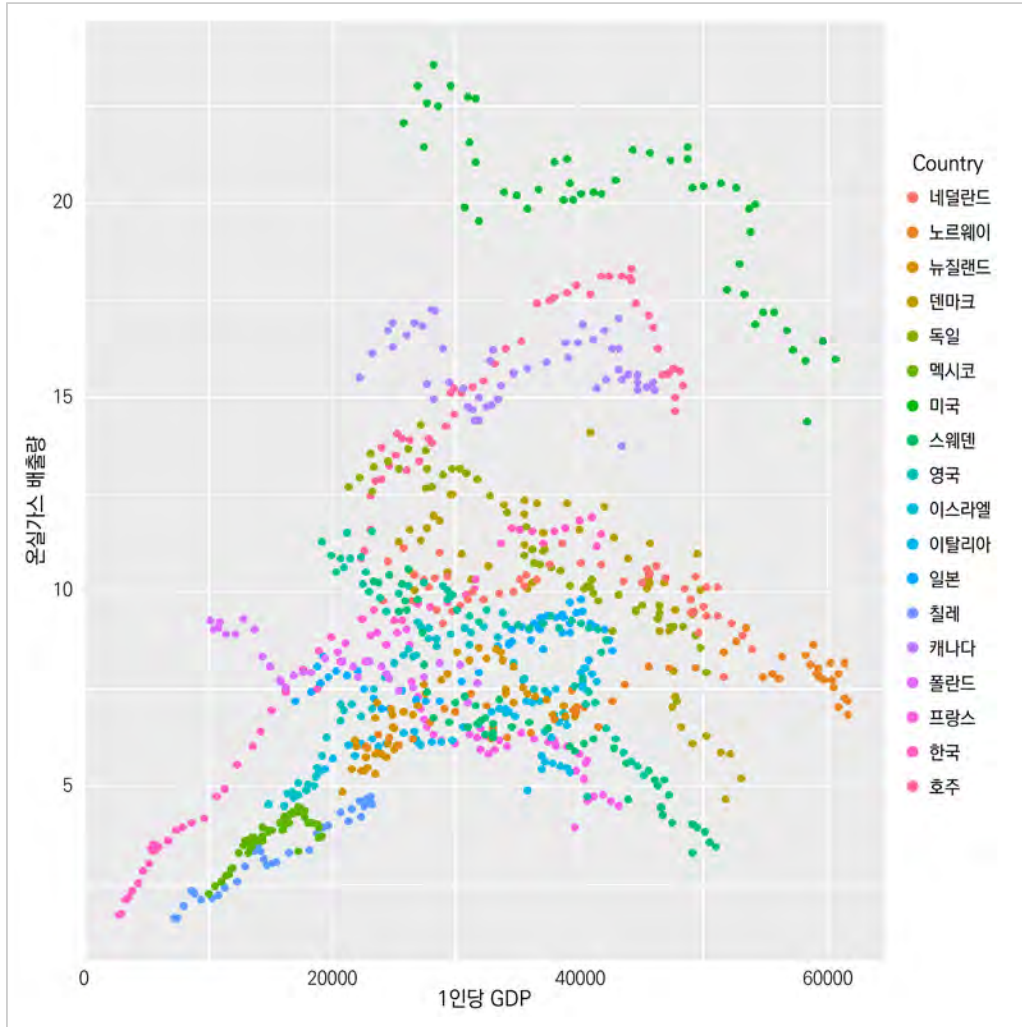
패널모형에 사용된 데이터는 OECD와 IEA 통계를 이용하며, 각 변수들의 요약통계량과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온실가스배출량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에너지소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²⁰⁾
 - 장기 온실가스배출량 통계가 있는 OECD 18개국을 분석대상으로 1990~2020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
- 그 밖의 변수는 모두 OECD 통계이며 변수별 국가별, GDP는 온실가스배출량과 동일한 시계열이 가능하지만, 통제변수 일부는 1990년 이후 통계만 존재하여 불균형패널을 구성
 - 일인당 GDP는 국가별 경제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구매력평가지수를 반영한 PPP환산이며 2015년 기준 불변가를 이용

20) IEA, GHG Emissions from Energy, 2021.

■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과 GDP는 2차식의 형태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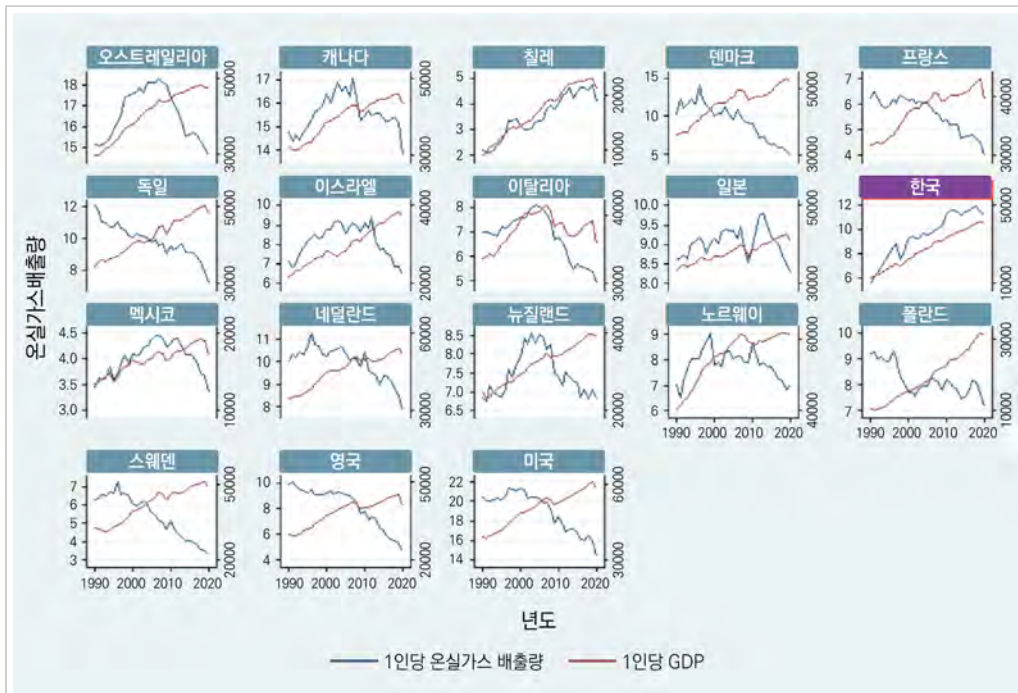
[그림 6] OECD국가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과 GDP



자료: 온실가스배출량(IEA), 1인당 GDP(OECD database)

-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과 GDP의 관계에 따르면 분석대상 18개국 중 한국과 칠레를 제외한 16개국은 온실가스배출량 정점이 뚜렷하게 확인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 이후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에 있음

[그림 7] 주요 OECD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



자료: 온실가스배출량(IEA), 1인당 GDP(OECD database)

- 제조업 비중은 총 부가가치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최대값은 39.5%(노르웨이, 2008년), 최소값은 13.0%(영국, 2020년)임
- 인구는 가장 많은 관측치를 가지며 최대 3.3억명(미국, 2020년), 최소값은 0.17억명(뉴질랜드, 1990년)임
- 인구밀도는 인구를 국가면적으로 나눈 값을 이용
- 환경부문 연구개발비는 환경부문 정부지출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등의 포함
-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은 발생기준 통계로 일반폐기물(municipal waste)을 의미

[표 1] 입력자료의 요약 통계량

(단위: 톤, \$, %, 명, 명/km², mil.\$, kg)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558	9.1	4.2	2.1	21.4
1인당 GDP	558	36,423	11,862	8,828	61,707
1인당 GDP ²	558	1.47e+09	8.38e+08	7.79e+07	3.81e+09
제조업비중	516	22.5	5.3	13.0	39.5
인구	559	5.15e+07	6.81e+07	3.3e+06	3.29e+08
인구밀도	558	150.5	147.8	2.2	515.7
환경부문연구개발비	418	1001	1612	2	11,734
1인당 폐기물발생량	414	516	147.0	245.6	982.3

자료 : OECD database, IEA(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다. 분석결과

국가별 인구규모와 제조업 비중, 연도 등이 통제된 패널모형 분석결과,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환경쿠즈네츠곡선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18개 OECD국가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증가하지만, 정점인 소득전환점을 지나 감소하는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형태를 가짐
 - 전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남
- 제조업 비중은 온실가스배출량을 높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여함
 - 인구밀도와 환경부문 연구개발비는 유의미하게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OECD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의 환경쿠즈네츠곡선 추정결과

	선형모형		로그모형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1인당GDP	0.0005 *** (0.0006)	0.0005 *** (0.0006)	21.8381 *** (2.936)	22.3191 *** (2.858)
1인당GDP ²	-6.38e-09 *** (7.68e-10)	-6.48e-09 *** (7.59e-10)	-1.0386 *** (0.139)	-1.0637 *** (0.136)
제조업비중	0.1916 *** (.0283)	0.2121 *** (0.025)	0.0228 *** (0.003)	0.0246 *** (0.003)
ln 인구	-0.1621 (1.623)	1.6028 ** (0.806)	0.1325 (0.189)	0.2078 ** (0.083)
인구밀도	-0.0238 *** (0.008)	-0.0161 *** (0.006)	-.0029 *** (0.001)	-0.0015 *** (0.006)
ln 연구개발비	-0.2598 *** (0.108)	-0.2876 *** (0.105)	-0.0476 ** (0.013)	-0.0489 *** (0.012)
관측치	396	396	396	396
R ²	0.4374	0.4347	0.4506	0.4480

주1: 괄호안은 표준편차이며, *** p<0.01, p<0.05, * p<0.1임을 의미함

주2: 로그모형은 종속변수와 소득변수(1인당GDP)에 로그를 취함

주요 OECD 국가의 온실가스배출량 정점은 36,008~39,984\$로 나타남

■ OECD국가의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패널데이터분석을 통해 1인당 GDP가 36,008~39,984\$까지는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이후에는 감소하는 소득전환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됨

- 선형모형의 소득전환점이 로그모형보다 높은 수준이며, 임의효과모형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의 소득 전환점 추정값이 높은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018년 배출량이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그림 기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GDP 참조)

- 2018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PPP환산)는 40,947\$로 OECD의 온실가스배출량 소득전환점의 상단 수준에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패널분석에 의한 환경쿠즈네츠곡선 추정결과

(단위: \$/인)		
	선형모형	로그모형
OECD 국가의 소득전환점	38,758~39,984	36,008~36,807

3. 폐기물 발생량과 환경쿠즈네츠 곡선

OECD국가의 폐기물배출량에 대해 환경쿠즈네츠곡선이 존재하는가를 분석

■ 에너지 생산이용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상품소비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폐기물배출량에 대해 환경쿠즈네츠곡선을 분석

- 온실가스배출량은 오염산업을 국외로 반출함에 따라 그린워싱이 가능하지만, 민간소비에 기초하는 폐기물 배출량은 국가별 지속가능소비 구조를 그대로 반영

$$Waste_{i,t} = \alpha + \beta_1 Y_{i,t} + \beta_2 Y_{i,t}^2 + \beta_3 Y_{i,t}^3 + \beta_z Z_{i,t} + c_i + \nu_t + u_{i,t} \quad (2)$$

- $waste_{i,t}$ 1인당 발생량 (kg/인)
- $Y_{i,t}$ 1인당 GDP (2015년 기준, \$/인)
- $Z_{i,t}$ 통제변수벡터 (ln 인구(명), 제조업비중(%), 인구밀집도(명/㎢), ln 환경기술투자)
- c_i 국가 효과
- ν_t 연도 효과
- $u_{i,t}$ 오차항

■ 1인당 폐기물발생량은 국가별 수준이 크게 차이가 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과 달리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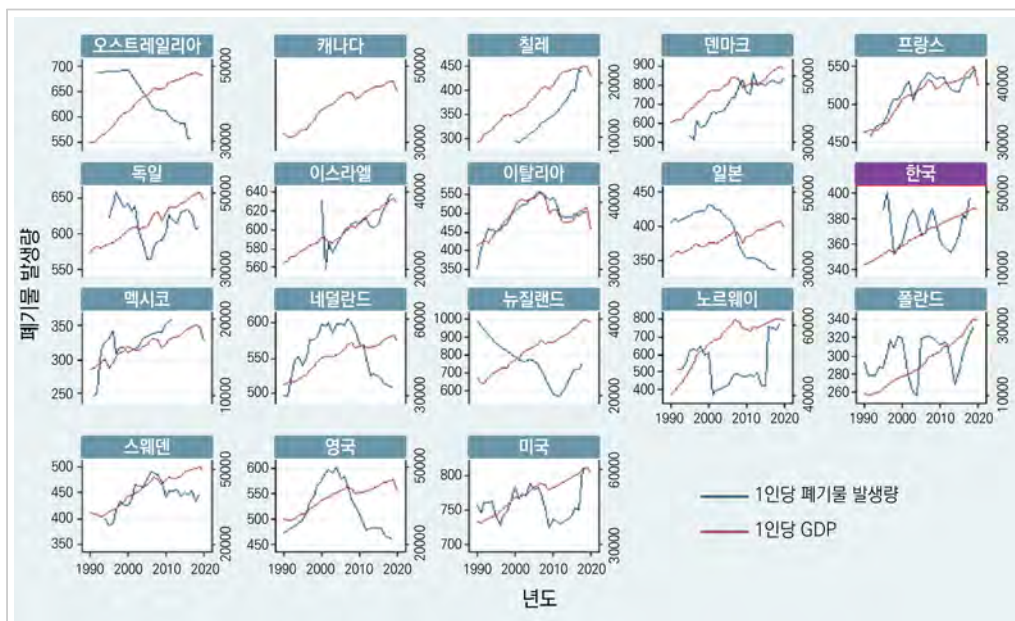
- 미국의 1인당 폐기물은 주요 OECD국가 평균(520kg/인)보다 높은 수준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연간 1인당 811kg의 폐기물을 배출했지만 독일 606kg, 프랑스 535kg, 한국 396kg, 일본 338kg으로 수준값이 낮음
- 국가별 폐기물발생량과 GDP 변화를 비교하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영국은 변동성이 있지만 감소세를 나타내며, 덴마크, 프랑스는 최근에 정체 혹은 감소세가 나타났으며,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은 최근까지 발생량이 증가하여 국가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주요 OECD 국가의 일인당 폐기물 배출량과 GDP



자료: OECD database

[그림 9] 주요 OECD 국가별 일인당 폐기물 배출량과 GDP



자료: OECD database

국가별 패널데이터 분석결과, 폐기물배출량에 대한 환경쿠즈네츠곡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형모형 및 로그모형에서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2차모형이 유의하지 않음
- 3차모형이 유의하지만 계수값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N자형 패턴을 가지나 반등의 크기는 크지 않음
- 1인당 폐기물발생량은 인구밀도와 제조업 비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인당 면적이 크고 서비스업 비중이 큰 국가의 폐기물발생량이 큰 편

4. 결론 및 시사점

OECD국가를 대상으로 환경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오염물질배출량,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에 대해 환경쿠즈네츠 곡선이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경제성장은 환경 질 개선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오염물질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임
-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제거는 최종처리기술(end of pipe technology)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문제 중 가장 빨리 적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
 - 오염물질 제거는 기술발전과 환경규제를 적용하여 투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깨끗한 환경의 질을 체감하기 용이하여 빠르게 정점에 도달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환경쿠즈네츠 곡선은 존재하지만, 소득전환점이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소득증가에 따른 배출량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움

- OECD국가의 소득전환점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지구 공동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전세계적인 규제와 기술개발, 경제적 유인 등을 통해 평균적인 소득전환점보다 낮은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소득전환점은 분석대상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적인 전망치로 활용하기는 어려움

- OECD국가 내에서도 소득 상위 10개국, OECD의 중상위국가군과 같은 세부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온실가스배출량의 소득전환점이 변경될 수 있음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환경쿠즈네츠 곡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수준보다 인구밀도와 산업구조의 영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소득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의 점진적인 감소가 이뤄지지 않음이 실증적으로 분석됨
- 폐기물 발생량은 생활방식 및 소비구조와 연계되므로,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별 전략과 산업구조 변화가 필요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관리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자원순환의 주요 지표로 최근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주요국에서 법제화되고 있으므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

■ 최근 탄소중립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폐기물제로 및 자원순환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적용함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기반을 검토한다고 발표(2021.12.30.)

■ 주요 국가는 자원순환을 주요 국가정책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

- 독일은 1996년부터 「자원순환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1년부터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을 시행
- 프랑스는 2020년에 「폐기물방지 및 순환경제법(Anti waste and circular economy Law)」을 채택

〈부록〉 주요 OECD국가의 1인당 SO₂ 배출량과 GDP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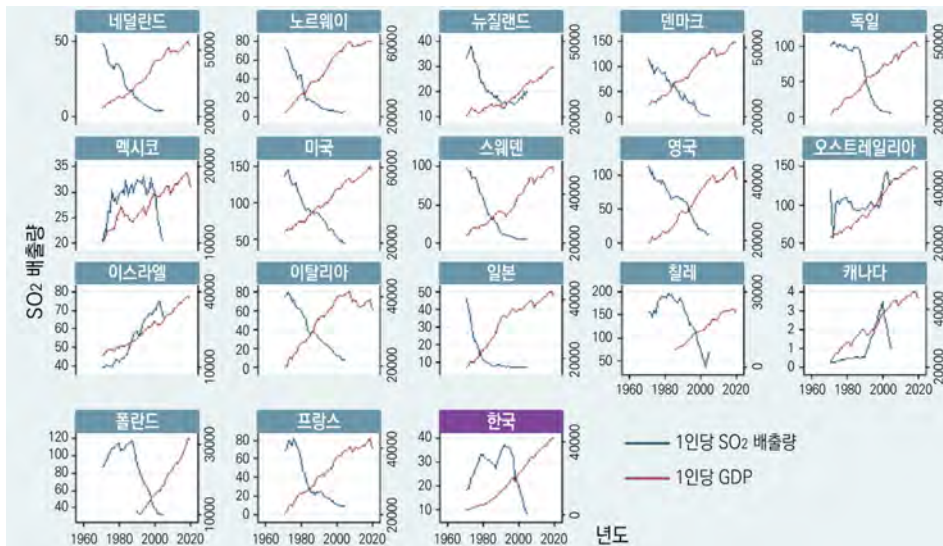
■ 1인당 이산화황(SO₂) 배출량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하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산화황 배출량이 감소하는 형태가 뚜렷하여 장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하면 전형적인 환경쿠즈네츠곡선을 확인할 수 있음

[주요 OECD국가의 일인당 이산화황(SO₂) 배출량과 GDP]



[주요 OECD국가별 일인당 이산화황(SO₂) 배출량과 GDP]



자료 : NASA Socioeconomic Data and Applications Center (SEDAC), OECD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2년 3월호 | 통권 제27호

발행일	2022년 3월 29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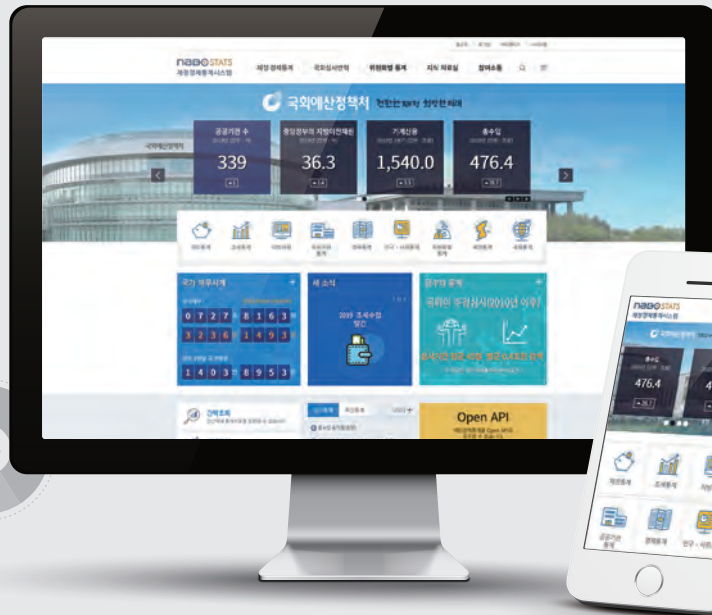
예·결산
심사연혁 제공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업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287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